

4-10-2017

# 평신도 교육을 통한 건강한 교회 전략 연 구 :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현규신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Missions and World Christianity Commons](#)

## Recommended Citation

신현규, "평신도 교육을 통한 건강한 교회 전략 연구 :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17.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mailto:archives@fuller.edu).

##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AN EFFECTIVE STRATEGY FOR BUILDING A HEALTHY CHURCH  
BY EQUIPPING THE LA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HALLELUJAH COMMUNITY CHURCH**

written by

**HYEON KYU SHIN**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Sunil Kim

  
Euiwan Cho

April 10, 2017

**AN EFFECTIVE STRATEGY FOR BUILDING  
A HEALTHY CHURCH BY EQUIPPING THE LA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HALLELUJAH  
COMMUNITY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HYEON KYU SHIN

APRIL 2017

평신도 교육을 통한 건강한 교회 전략 연구  
- 할렐루야 교회를 중심으로 -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 문 상 교수

신 현 규

2017년 4월

## Abstract

An Effective Strategy for Building a Healthy Church by Equipping the La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Hallelujah Community Church

Hyeon Kyu Shin

Doctor of Ministry

2017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research proposes an effective strategy to build a healthy church by equipping the laity. Chapter 1 introduces the topic and research plan. Chapter 2 surveys lay theology based on biblical and theological evidence.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ors and lay people, it emphasizes universal priesthood in which pastors must equip the laity to be the body of Christ. Chapter 3 describes changes to church structure that are required in the twenty-first century because of postmodernity and an aging society and growing technology. Rather than only a special few participating, all church members must be able to participate. The kingdom of God must be expressed not only within the church but also out in general society, which calls for mega-churches.

Chapter 4 explores family ministry, discipleship training, and small groups as strategies to build a healthy church. The church is organic and communal. It is vital for lay people to influence one another and their environment in small groups. Chapter 5 examines the lay equipping strategy of Hallelujah Community Church. Its Lay Ministry Institute, which aims to equip all members to participate in its ministries, is shown to be effective for equipping laypersons biblically, theologically, and ministerially. Chapter 6 concludes the study.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D

Sunil Kim, PhD

Euiwan Cho, PhD

## 감사의 말씀

약한 자를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본 논문의 내용처럼 평신도목회연구원이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평신도목회의 정신을 강조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김상복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게 김상복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무엇인지 성육신적으로 보여 주신 믿음의 아버지이시며, 목회 사역의 표본을 보여주신 참 스승이십니다. 본 논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원 코리아(One Korea)의 시대적 사명을 일깨우시는 김승욱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대한 평신도의 역할과 사명을 인식하며 함께 달려온 할렐루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신도목회의 정신을 함께 품고, 주님이 세우신 궤도를 향하여 함께 달려가게 될 미래의 동역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특별한 관심으로 지도해주신 권문상 교수님과 김선일 교수님, 황진기 교수님 및 그동안의 행정적 과정을 적절히 협력해주신 김태석 목사님과 신용길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4월

신현규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 2 장 평신도신학 .....	6
제 1 절 평신도의 의미 .....	6
제 2 절 평신도 신학의 성경적 근거 .....	8
제 3 절 평신도 신학의 주요 주제 .....	15
1. 한 백성 .....	14
2. 유기체로서의 교회 .....	14
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	16
나. 몸으로서의 지체 상호간의 관계 .....	17
3. 만인제사장직 .....	18
제 4 절 평신도와 목회자의 역할 .....	20
1. 은사의 구분 .....	21
2. 동역자 .....	22
3. 구비시키는 자 .....	24
가. 구비시키는 역할의 필요성 .....	24
나. 구비시키는 자의 명칭 .....	25
다. 구비시키는 내용과 방법 .....	25
제 3 장 21세기 시대적 특징과 미래의 교회구조의 변화 .....	28
제 1 절 절 포스트 모더니즘 .....	28
제 2 절 절 미래시대의 변화들 .....	33
1. 고령화사회 .....	33



2. 최첨단 과학기술사회 .....	35
가. 생명의료기술과 나노기술 .....	36
나. 가상공간의 출현 .....	37
다. 스마트시대와 유비쿼터스 구현 .....	39
3. 통일한국 .....	41
제 3 절 교회구조의 변화 .....	42
1. 교회구조 변화의 내용 .....	45
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	45
나. 중앙집권형 구조에서 지방분권형 구조로 .....	45
다. 성장 구조에서 성숙 구조로 .....	46
라. 개인목회 구조에서 팀목회 구조로 .....	47
마. 목회자 중심 구조에서 평신도 중심 구조로 .....	48
2. 메타교회로의 변화 .....	49
가. 메가교회 .....	49
나. 메타교회 .....	52
제 4 장 건강한 평신도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요소들 .....	55
제 1 절 가족공동체 목회 .....	55
1. 성경에 근거한 공동체 .....	56
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공동체 .....	57
나. 구약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	58
2. 가정교회 .....	59
가. 한국교회의 유교적 폐쇄성과 제반 문제 극복을 위한 과제 .....	60
나. 가정교회의 핵심가치 .....	61
다. 가정교회를 통해 기대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	64
3. 가족공동체 목회 .....	65
가. 가정교회 한계성 극복을 위한 과제 .....	65
나. 가족공동체 목회의 발전적 방향 .....	67

제 2 절 양육과 훈련 .....	68
1. 양육과 훈련의 필요성과 내용들 .....	69
가. 양육과 훈련의 필요성 .....	69
나. 양육과 훈련의 방향 및 내용 .....	70
2. 제자훈련 .....	72
가. 제자훈련의 근거 및 중요성 .....	73
나. 제자훈련의 실제 .....	74
제 3 절 소그룹활동 .....	77
1. 소그룹의 필요성과 기능 .....	78
2. 소그룹의 실제 .....	80
가. 네 가지 핵심 요소와 운영 원리 .....	80
나. 소그룹과 전체 교회와의 관계 .....	83
다. 양육과 관련된 실질적 운영지침 .....	84
라. 소그룹의 종류와 과제 .....	85
제 5 장 지역교회에서의 실제적 방법(할렐루야교회를 중심으로) .....	88
제 1 절 할렐루야교회의 현재적 상황과 특성 .....	88
1. 할렐루야교회의 역사 .....	88
가. 1기 시대 .....	89
나. 2기 시대 .....	89
다. 3기 시대 .....	90
2. 할렐루야교회의 목회 철학 .....	91
가. 김상복 목사의 목회 철학 .....	91
나. 김승욱 목사의 목회 철학 .....	92
3. 할렐루야교회의 구조적 특성 .....	93
가. 지역적 특성 .....	93
나. 연령적 특성 .....	95
다. 공간적 특성 .....	97

제 2 절 제자훈련과 각종 교육 내용 .....	99
1. 제자훈련 .....	99
가. 새생명훈련 .....	100
나. 새소명훈련 .....	101
2. 각종 교육 내용 .....	103
가. 새가족 교육 .....	104
나. 성경대학 .....	104
다. 전도폭발훈련 .....	104
라. 선교비전스쿨 .....	105
마. 상담아카데미 .....	106
바. 호스피스 .....	106
사. 무릎학교 .....	107
아. 문화강좌 .....	107
제 3 절 평신도목회연구원 .....	108
1. 출발과 연혁 .....	108
2. 과목 분류 및 주요 과목 소개 .....	108
가. 44과목 분류 .....	109
나. 특수 과목 소개 .....	110
3. 역대 수강 현황과 그 의미 .....	111
4. 수강방법 .....	114
가. 출석 수강 .....	114
나. 통신 수강 .....	114
다. 사이버 수강 .....	114
5. 평신도목회연구원의 특징 .....	115
가. 평신도목회 신학에 근거 .....	115
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과정 .....	116
다. 성경과 신학과 목회의 균형 .....	117
라.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훈련 .....	118

마. 성육신적 교육을 통한 감동 .....	118
바. 평이한 언어를 통한 교육 .....	119
사. 교육 내용의 보편적 유용성 .....	119
6. 향후 과제와 대책 .....	120
가. 자료 관리와 재정비 .....	120
나. 자료 활용 방안 .....	120
7. 간증 사례와 평가 .....	122
가. 간증 사례 .....	123
나. 간증에 대한 평가 .....	130
8. 발전적 제안 .....	131
가. 제자훈련과의 연결성 .....	131
나. 교육 내용의 연속적 활용 .....	132
다. 평신도목회연구원 활용 매뉴얼과 네트워크화 .....	132
제 6 장 결론 .....	134
부록 .....	138
참고문헌 .....	146
Vita .....	152

## 표 목 차

<표 1> 할렐루야교회 교구별 지역과 특성 .....	94
<표 2> 할렐루야교회 연령적 특성 .....	95
<표 3> 할렐루야교회 교구별 세대 수 및 인원 수, 2016년 7월 기준 .....	96
<표 4> 할렐루야교회 직분별 인원 수 .....	97
<표 5> 할렐루야교회 새생명훈련 교재 내용 .....	101
<표 6> 할렐루야교회 새생명 및 새소명 훈련 이수 현황 .....	103
<표 7> 평신도목회연구원 44과목 분류표 .....	109
<표 8> 평신도목회연구원 연도별 과목 및 수강 현황 .....	112
<표 9> 평신도목회연구원 학점 이수 현황 .....	113

# 제 1 장

##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교회를 논할 때에 양적인 기준을 강조하여 판단하게 되면 자칫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따르게 된다. 교회는 성경이 보여주는 본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시대에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감당하는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강성이다. 육체의 건강을 논할 때에 건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건강성을 살필 때에도 외형적인 규모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현상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는 영적 공동체로서의 본래의 성격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하나님나라 구현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시대에 맞게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 교회의 건강성은 지금 어떠한가? 외형적으로 과거 한 때 세계가 주목할 만한 수적 증가를 보였던 한국교회의 성장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변화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한 적절한 대안과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과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떠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일까?

이승구는 한국 교회의 문제들을 정리하기를 ①성경에 충실하지 않음, ②영육 이원론의 고착, ③성숙 이원론과 그에 근거한 생활, ④성경을 바르고 전체적

으로 제시하는 가르침의 부재, ⑤개교회주의, ⑥담임목사직 세습의 문제, ⑦교회 재정의 비합리적 사용과 불투명성, ⑧물질과 부에 대한 바르지 못한 견해의 등장, ⑨교회 내의 바르지 않은 인간관계, ⑩교회 안에서 특정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 ⑪사회 전반과 문화 일반에 대한 교회의 기독교 세계관적 대처 부족, ⑫성경적 사상, 특히 하나님 나라 사상의 부재와 온전하지 않음 이라고 하였다.<sup>1)</sup>

폴 스티븐스는 오늘날 정체된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책의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것은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 동기 부여가 안 된 평신도, 표준화시켜버린 목회자의 역할, 지도자의 소진, 반복되는 문제들, 내부 유지에만 초점을 맞추는 성향 등을 살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초점들을 통해서 교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동역 즉 유기체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하였다.<sup>2)</sup>

사실 이제까지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평신도의 힘이 절대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교회 구역을 맡아 돌보는 구역장, 주일학교에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을 키우는 교사들, 교회 안팎의 모든 행사와 활동들을 직접 감당하는 평신도들의 역할은 이제까지 한국 교회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두 다 한결 같이 미래 목회는 이제까지와 같이 대중적 카리스마를 가진 목회자가 주도하기 보다는 소그룹을 통한 평신도 중심의 목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그러므로 평신도의 존재 가치와 역할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목회를 대비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평신도에 대한 인식은 본질에서 많이 이탈되어 있었고, 실질적 훈련이나 사역의 확장 면에서도 많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러 가지로 표출되는 평신도의 문제를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적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이분법적 구

1)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서울: SFC, 2005), 289-290.

2) Paul Stevens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2007), 12-14.

3)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196.

분법이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양승훈은 다음의 4가지를 주장하였다. 첫째는 교회 안에 종교적 계급 구조를 낳음으로써 유기체로서의 역동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둘째는 잘못된 우월감과 열등감을 초래하였으며, 셋째는 평신도들을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면서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을 병들게 하였고, 넷째는 성직자의 잘못된 개념으로 인해 평신도들의 다양하고 풍성한 영적 은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sup>

이제 한국 교회는 그 본래적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평신도 문제를 깊이 다루어야 한다. 과거의 종교개혁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주었다면 이제는 성도들에게 존재가치와 사역을 되돌려주어야 한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유기체로서 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온전히 참여케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와 능력들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진행된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건강한 평신도로서의 인식 전환을 이루고, 평신도 사역의 실질적인 장을 확대하며,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구비과정을 이루어 낼 때에 한국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한국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내용 중에 평신도 구비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건강한 교회의 주요 요소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구비되어 그 부여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데 있다. 따라서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전략을 연구함으로써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 방법은 평신도 신학의 내용과 시대의 특징을 설명하고, 건강한 평신도

4)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 렌즈로 세상읽기*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03), 101-103.



구비 전략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떠한 내용들이 강화되어야 할지를 연구한 후에 할렐루야교회라는 한 지역교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할렐루야교회를 특정 대상으로 연구하는 이유는 할렐루야교회의 2대 담임목사였던 김상복 목사가 1990년 부임하면서부터 평신도 목회를 주장하였고, 평신도의 정체성 회복과 역할의 역동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구비시키기 위한 특별한 목회활동을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할렐루야교회의 여러 구비내용 중에서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대표적 사역이었던 평신도목회연구원은 평신도를 성경적, 신학적, 목회적으로 구비시키는 독특한 활동을 하였는데, 이를 깊이 있게 다룸으로써 다른 교회들도 건강한 평신도 교육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루고자 한다.

각 장별로 전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평신도라는 단어의 의미를 규정하고, 평신도 신학의 성경적 근거 신학적 근거를 제시한다. 신학적 근거로서는 한 백성의 개념과 제도로서의 교회가 아닌 유기체로서의 교회, 만인제사장직의 회복을 다룬다. 이와 함께 평신도와 목회자의 균형적 역할과 관계를 조명한다.

3장에서는 21세기 시대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 포스트모더니즘을 중심으로 제반 현상들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서 평신도 구비를 위한 성경적 교회구조의 변화를 다루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메타교회로의 변화를 전개한다.

4장에서는 건강한 평신도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요소들로서 가족공동체 목회 구조를 연구하고, 양육과 훈련의 중요성과 내용을 다루며, 소그룹 활동의 필요성과 운영의 실재를 연구하게 된다.

5장에서는 평신도 교육을 통한 건강한 교회 세우기의 현상으로서 할렐루야교회의 다양한 구비내용들을 살펴본다. 대형교회의 특징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이기에, 모든 교회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상이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과 성격은 충분히 고려할 내용들이 될 것이다. 또한 할렐루야교회에서 실시되었던 내용 중에 평신도목회연구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평신도목회연구원은 설립당시부터 할렐루야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그 적용성은 모든 교회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살핌으로써 모든 교회들이 건강한 평신도

구비를 위해 새로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 역사와 운영방법, 세부 내용들을 다룬다.

6장 결론은 종합적인 마무리가 된다.

## 제 2 장

### 평신도 신학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몸의 구성요소인 개개의 세포가 건강해야 하듯이,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교회의 구성요소이며 교회 그 자체인 하나님의 백성, 평신도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이 소수의 전문목회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하고, 평신도들의 존재와 역할을 축소시킨 면이 있다. 설령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하더라도, 평신도들을 어떻게 구비시키고, 어떠한 역할로 세워야 하는지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평신도의 제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과 변화를 다루기 위하여 먼저 이번 장에서 평신도의 의미를 규정하고, 평신도 신학의 성경적,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제 1 절 평신도의 의미

평신도라는 단어는 헬라어 ‘라오스(*laos*)’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계급적, 능력적 차별의 구분이 없고, 오직 동일한 백성임을 나타내는 뜻이 있다.<sup>5)</sup> 특별히 ‘라오스(*laos*)’는 ‘레이(*lay*)’의 복수 형태인데 여기에는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갖는 위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sup>6)</sup> 이 용어가 당시 세속적인 의미로는 헬라시대의 전 시민을 가리켰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처음에는 이방인과 대조되는 이스라엘을

5) Paul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The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서울: IVP, 1992), 12-13.

6) Stevens and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224.

가리키다가 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sup>7)</sup>

이와 함께 성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hagios)’로서, 신약 성경에서 56회 사용되는데, 단수 형태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으며, 이것은 성도가 특별한 개인의 의미가 아니라, 신자들의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준다.<sup>8)</sup>교회는 특정한 소수의 무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평신도라는 단어가 전문성이 없고, 영적으로 계급이 하위인 개념으로 잘못 사용되는 문제를 보이게 되었다. 평신도라는 용어가 성직자로 안수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목회자(성직자)와 평신도(일반 그리스도인)로 나누는 것은 성경 이후 시대의 산물로서 대개 주후 1세기 말부터 시작되었고, 3세기에 이르러 완전히 비성직자 그룹을 가리키는 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한다.<sup>9)</sup> 폭 넓은 의미를 갖고 있던 헬라어 ‘라오스’라는 단어가 특정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확대되어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이 단어는 처음부터 오용될 가능성을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라오스’는 고위관직을 나타내는 ‘클레로스’와 구별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sup>10)</sup>

평신도와 성직자라는 단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레그 옥텐은 주장하기를 이미 두 단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 있어서, 아무리 건전한 의도로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고정화된 선입관에 빠질 수 있으므로, ‘목사’나 ‘성직자’ 대신에 기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목회자’ 그리고 ‘사역자’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sup>11)</sup> 유기체적 공동체는 직책과 직무가 아니라 기능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역’이란 단어 앞에 ‘평신도’ 또는 ‘안수 받은’이란 수식어를 사용하는 자체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sup>12)</sup>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사용해 왔던 단어 하나하나에도 정확한 의미의 표현을 담고 있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39.

8)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The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1998), 75.

9) 송인규, “평신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목회 동역자,” *목회와 신학* 181 (2004년 7월), 90.

10) John R. W. Stott, *한 백성 (One People)*, 정지영 역 (서울: 아바서원, 2012), 47.

11) Ogden, *새로운 교회*, 94-96.

12) Ogden, *새로운 교회*, 97.

들이 그 단어들의 의미에 자신도 모르게 속박당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폴 스티븐스는 교회 안에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 지으려 하는 것은 세속적 영향 때문이며, 성경은 오히려 ‘모든 성도와 함께(엡3:1)’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sup>13)</sup> 결국 성직자와 평신도의 무리한 구분은 세속화의 영향이므로 이 부분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직자들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제 2 절 평신도 신학의 성경적 근거

그러면 평신도 신학을 가능케 하는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 중에 에베소서4:11-12, 베드로전서2:9-10, 출애굽기18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에베소서4:11-12(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를 보면, 이 말씀의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된다. ‘그’는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통하여 우주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궁극적인 통일성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에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것이며, 우주적 과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를 완전하게 갖추고자 하신다.<sup>14)</sup>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직분 중에 다섯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사도는 넓은 의미에서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며, 초대교회의 창설 사역자들을 말한다.<sup>15)</sup>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사명을 받은 사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이를 증거할 사명을 받은 사람, 성령의 특별

13) Stevens and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10.

14) Andrew T. Lincoln, *에베소서 (Ephesians)*, 배용덕 역, WBC 42 (서울:솔로몬, 2006), 152.

15) 두란노HOW주석43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3), 189.

하신 영감을 받은 자이어야 했다.<sup>16)</sup>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에서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가 세워졌고,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사도에 포함되었다(행1:15-16, 14:4, 갈1:15-19).

선지자는 넓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전하는 자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 좁게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계시로 받아 전하는 자로 볼 수도 있는데, 정경계시의 종료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선지자의 의미는 새 계시의 의미가 아니라, 종료된 계시의 새 이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할 것이다.<sup>17)</sup> 선지자는 사도처럼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도의 메시지가 일반적이고 교리적이었다면, 선지자의 메시지는 실제적이었다고 차이를 설명할 수도 있다.<sup>18)</sup>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도를 위임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처럼 계시의 소유자는 아니었으나, 그들로부터 계시를 전해 받았으며, 예언자들처럼 순회설교자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본다.<sup>19)</sup> 사도 바울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을 보면 바울에 의해 직접 세워진 것이 아니었음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한 교회들은 바울의 선교활동의 유형을 이어받은 바울의 동역자들과 추종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볼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의 왕성했던 활약을 알 수 있다.<sup>20)</sup>

한편 목사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서는 드물게 쓰이는 용어로서, 그 대신 상징어로 ‘목자’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 의미는 ‘보호자’, ‘지키는 자’, ‘백성을 염려하는 지도자’ 등으로 볼 수 있다.<sup>21)</sup> 또한 그들의 활동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감독들’(행20:28, 딤후전3:2), ‘지도자’(행15:22, 히13:7, 24), ‘의장’(롬12:8, 살전5:12), 장로들(행14:23, 딤후전5:17) 등이다.<sup>22)</sup> 결국 목사의 역할은 양육, 돌봄, 인도를 통한 지도력, 다스림 등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교사가 바로 이어서 연결되고 있다.

교사는 가르치는 자로서 사도적 복음과 기독교의 규범과 가치, 행동들을 보존하고, 전달하고, 설명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역할들을 담당했다.<sup>23)</sup> 초대교회에 교사라

16)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서울:바이블넷, 2006), 642.

17) 두란노HOW주석43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189-190.

18)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42.

19) 박창건, 에베소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53.

20) Lincoln, 에베소서, 520

21) 박창건, 에베소서, 154.

22) 박창건, 에베소서, 154.

23) Lincoln, 에베소서, 522.

는 직분이 많았던 까닭은 기독교가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sup>24)</sup> 목사와 교사를 헬라어로 표현하면서 그 앞에 관사가 하나 밖에 없다. 목사와 교사가 바로 이어서 표현되는 것에 대해서 목사와 교사를 동일한 직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Augustine, Jerome, Meyer), 다른 직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Ambrose, Calvin, Beza).<sup>25)</sup> 어떻게 보든 하나의 정관사가 나오는 것은 그 지역 회중 내에서 두 가지 모두를 수행하는 두 유형의 사역자들 사이의 기능에 대한 밀접한 연관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sup>26)</sup>

이제 지금까지 언급된 직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12절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한 마디로 성도를 구비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자들이다.

거의 모든 학자들은 엡4:11-12의 해석에 있어서 ‘성도에 대한 구절’ 다음의 쉼표를 빼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sup>27)</sup> 즉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은 서로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한글개역성경은 12절을 번역함에 있어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세 가지의 내용이 마치 동격인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다행히도 개역개정판에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표현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임을 적절히 보여주고 있다. 이곳에 나타난 ‘온전하게’라는 단어의 의미는 ‘완성하다’, ‘회복하다’, ‘준비하다’ 등을 포함하고 있다.<sup>28)</sup> 성도를 온전하게 하면, 그 성도들이 봉사 즉 사역(ministry)의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사역 또는 변화의 순서가 나타난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워주는 것이 그 다음이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성도들 각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24) 박창건, *에베소서*, 154.

25)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43.

26) Lincoln, *에베소서*, 521.

27) Ogden, *새로운 교회*, 80.

28) Lincoln, *에베소서*, 526.

여기서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며, 성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목사와 교사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히려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구비시키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봉사의 일을 통하여 정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체는 성도라고 봐야 한다. 또한 성도를 구비시켜 세운다는 것은 비단 교회에서만 사역이 아니라 보다 넓은 하나님 나라의 무대인 세상에서 부름 받은 역할까지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차원에서 볼 때 평신도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명은 목회자의 사명보다도 더 크고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sup>29)</sup> 따라서 사역은 소수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적인 사역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회체도가 평신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닌 주변인으로 몰락시켰으므로, 평신도들을 구비시키는 일에 자연히 소홀히 하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베드로전서2:9-1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를 보고자 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특별한 소수의 무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셨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보여준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4가지의 특권을 언급하는데,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것이다.

‘택하신 족속’이란 구약의 이사야28:6, 8:14, 43:20, 시편118:22 등에 근거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을 기준으로 정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새로운 이스라엘을 택하셨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그 누구도 혈통이나 그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출애굽기19:6에 근거하며, 여기서 제사장들로 표현된

29) Lincoln, *에베소서*, 15.



단어에서 ‘헤에라툼마’는 제사장 개인을 지칭하는 ‘히에류스’가 아니라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또는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왕이면서 제사장직을 구현한 분은 예수님이 전형적이고, 구약 시대에 멜기세덱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세 가지 특권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외에는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제사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이며, 셋째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이다.<sup>31)</sup>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61:6, 출애굽기 19:6을 근거로 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구별된 백성이라는 의미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처럼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소유된 백성’은 이사야43:21을 근거로 하며, 그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철저히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위와 같은 특권을 주신 것은 거룩한 계획하심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것이다. ‘아름다운 덕’이라고 한 것은 결국 우리를 어둠과 절망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신 복음의 내용이다. 이것을 ‘기이한 빛’이라고 수식어를 덧붙인 것은 이 구원의 진리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신비롭고 놀라운 것임을 강조해준다. 여기 ‘기이한’에 해당하는 의미를 두 가지로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현실적이고 실존적 측면으로서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사는 영적 상태이고, 둘째는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측면으로서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영역의 의미인 것이다.<sup>32)</sup> 이러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만이 아니라

30)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베드로전서 (서울: 바이블넷, 2006), 138.

31)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베드로전서, 138.

32) 옥스포드 원어성경대전 베드로전서, 140-141.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소수의 제한된 성직자들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들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출애굽기 18:19-22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을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를 보고자 한다.

출애굽기 18장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기록이 나온다. 모세가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하는 것을 보고 이드로는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할 것을 권면한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준비된 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모세의 사역과 권한을 위임해주라고 한다. 사람들의 역할의 범위가 서로 다르고, 사역의 성격도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세워진 자들이 할 일이 있었다. 이것을 제안한 이드로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제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오랫동안 발전되고 경험되어온 것에 기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의 구조 안에 넣어 주신 지혜는 인간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만드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sup>33)</sup> 이것은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영역과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공동체가 소수의 특정계층에게만 의존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준비된 사람들에게 사역이 위임되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33) Terence E. Fretheim, *출애굽기 (Exodus)*,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310-311.

### 제 3 절 평신도 신학의 주요 주제

기독교의 모든 시대마다 평신도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평신도들의 활약이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중세와 종교개혁 시대에도 아주 중요한 평신도 운동들이 있었으며, 19세기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학생선교운동이나 여러 선교운동들도 모두 평신도가 주도했던 일들이었다.<sup>34)</sup>

20세기에 들면서 평신도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본다. 1960년대는 세계적으로 극심한 변화의 시기였다. 아프리카에서는 소위 ‘변화의 바람’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변화의 운동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언론자유운동과 과격한 인종분쟁이 있었으며,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프라하의 봄’ 같은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한 운동들이 있었음을 언급하면서 존 스토틀은 주장하기를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사건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저항과 국민적 참여라는 염원이 강하게 표출된 시기였고, 이것은 곧 소수의 전문가들의 횡포에 항거하는 시민운동이기도 하였다고 존 스토틀은 설명한다.<sup>35)</sup> 이러한 흐름이 평신도 신학을 더욱 발전시키는 사회적 분위기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 1. 한 백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떠한 차별도 없이 모든 구성원들을 향한 온전한 부르심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혈육과 국가라는 장벽을 폐하셨고, 그 어떠한 조건의 차별도 없는 하나 됨을 이루어주셨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영적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동등한 것이다. 존 스토틀은 교회가 더 이상 성직위계체제나 성직자라는 특권층의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36)</sup>

34) Stott, *한 백성*, 17.

35) Stott, *한 백성*, 10.

36) Stott, *한 백성*, 30.

평신도를 나타내는 단어 ‘라오스(laos)’가 의미하는 것은 ‘성직자’도 ‘평신도’도 아닌 ‘한 백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폴 스티븐스는 주장했다.<sup>37)</sup>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한 백성이다. 즉 인종, 지위, 성별, 직분 등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높고 낮음이 없으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다(롬12:4, 고전12:14, 27, 엡4:16, 골2:19). 심지어 목회자도 교회의 머리가 아니며, 오직 유일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동일한 지체에 불과한 것이다(엡1:22, 4:15, 골2:19).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백성 이라고 할 때 우리의 역할은 몸의 지체 하나 하나가 갖고 있는 고유한 것이고, 각 지체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더 이상 성직자에게 소속된 보조역할이 아닌 것이다.<sup>38)</sup>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몸의 어느 한 부분만을 통해서 역사하기 보다는 몸 전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제도화된 개념에서는 두 백성, 두 사역이 주장되지만, 유기체적인 교회에서는 오직 한 백성, 한 사역만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존 스토틀트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직자이든 평신도이든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졌다는 면에서도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39)</sup>

## 2. 유기체로서의 교회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성도들은 한 몸, 동일한 지체라는 것이 유기체적 교회관이다. 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제도적인 교회관인데, 그것은 교회 안에 소위 종교전문가라고 불릴 수 있는 성직자, 목회자들만 특별한 소명을 받은 자라고 여기고, 그들은 평신도가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의 일을 전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회신학은 신약성경의 관점보다는 구약성경의 제사장적 관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40)</sup> 이러한

37) Paul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Liberating the Laity)*, 김성오 역 (서울: IVP, 1992), 8.

38) Ogden, *새로운 교회*, 95.

39) Stott, *한 백성*, 42.

40) Ogden, *새로운 교회*, 25.

제도적 교회의 관점에서는 성도들은 수동적인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구경꾼이거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첫째는 머리와 몸으로서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고, 둘째는 몸의 지체로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이다.

#### 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그 ‘머리’의 개념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라는 것과 궁극적 권위라는 것이다.<sup>41)</sup>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은 단순히 이해를 돕기 위한 은유이거나 생생한 표현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흘러넘치는 공동체라는 의미이다.<sup>42)</sup> 교회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동시에 교회를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지속적으로 공급 받을 때에만 가능하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 이 사실을 강조하셨다.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한다. 몸의 각 부분이 머리의 지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과 은사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적극 순종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만 가능한 것이다.

41) Ogden, *새로운 교회*, 42.

42) Ogden, *새로운 교회*, 38.

### 나. 몸으로서의 지체 상호간의 관계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묘사하면서 그리스도의 몸 외에도 그분의 나라, 그분의 가족 등으로 나타난 것은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상호간의 관계와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sup>43)</sup> 몸의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또 다른 부분과의 상호 연관성,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옥텐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그 지체들이 맺고 있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하였는데, 그 내용은 첫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며, 셋째로 우리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sup>44)</sup>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자격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모두 동일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어떤 지체도 다른 지체와의 연결 없이 독자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조건으로도 서로 비교할 수 없으며, 상대적인 우월감이나 열등감도 허용하지 않는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sup>45)</sup> 우리가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 은사와 섬김을 통한 사역적인 차원에서도 영향을 끼치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도 영향을 끼친다. 지체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부분에서만 그치지 않고, 몸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유기체로서의 교회관에 의하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는데,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그 모든 지시에 순종해야 하며, 지체 상호간에는 서로의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

43) Stott, *한 백성*, 36.

44) Ogden, *새로운 교회*, 46.

45) Ogden, *새로운 교회*, 52.

하다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들은 모두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받았으며, 목회자는 그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은사와 역할을 계발시켜줌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평신도와 성직자 사이에 불필요한 차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부름 받은 사역자이고, 그 사역의 범위도 교회 건물 내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다.

### 3. 만인제사장직

마틴 루터나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만인제사장직이 재조명을 받게 되었다. 만인제사장직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의 중보 없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심으로 이제는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이 만든 사상이 아니라, 그동안 중세교회에서 묻혀 있던 하나님의 진리를 다시 회복한 것이다. 폴 스티븐스에 의하면 사실 어거스틴조차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례의 기름부음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는데, 다만 아쉬운 것은 어거스틴은 낮은 수준의 제사장직인 보통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과 성직자들의 제사장직을 구분하였다는 것이다.<sup>46)</sup>

이어서 폴 스티븐스는 만인제사장직의 사상 속에는 신약의 주요 주제들 즉 보편적인 사역, 성령 안에서의 보편적인 능력 부여, 보편적인 부르심 등의 사상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라오스’ 제사장 사역 속에는 세 가지의 차원이 있으니, 그것은 예배와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사역, 세상에서의 섬김을 통한 제사장 사역, 일상생활에서 하는 제사장 사역이 있다고 함으로써

46) R. Paul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Laity)*, 홍병룡 역 (서울: IVP, 2001), 209

삶 속에서의 제사장 사역을 강조하였다.<sup>47)</sup>

이 만인제사장직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또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사장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대신할 수 있기도 한 것이다.<sup>48)</sup> 특별한 성직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갈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에 의해서 재조명된 만인제사장직이 당시 교권을 지배하고 군림하던 성직계급으로부터 정치적 해방은 이루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특성보다도 제도화된 교회와의 연결 고리가 더 컸기 때문이다.<sup>49)</sup>

만인제사장직을 충실히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을 유기체적 사역관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이것은 사역의 주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에 반해서 제도적 사역관은 먼저 성직자들이 자기들의 영역을 규정짓고, 그 후에 평신도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다.<sup>50)</sup>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할 때 신부, 포도나무, 양떼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비유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sup>51)</sup>

결국 만인제사장직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요, 특권이다. 동시에 만인제사장직은 새로운 부르심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것은 성도 서로 간의 영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도가 서로 간에 영적 책임을 지고, 서로 돌아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주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

47) Stevens,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213-215.

48) Ogden, *새로운 교회*, 16-17.

49) Ogden, *새로운 교회*, 73.

50) Ogden, *새로운 교회*, 70.

51) Stott, *한 백성*, 34.



나님의 백성과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다.<sup>52)</sup>

#### 제 4 절 평신도와 목회자의 역할

평신도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균형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면, 자칫 교권주의나 반교권주의 심지어 무교권주의가 될 수도 있다. 교권주의란 평신도를 평가절하 하고, 교회가 마치 소수의 성직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여기면서,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어떤 차별을 두는 사상이라면, 반교권주의는 과도한 교권주의에 대한 반발로서 성직자를 평가절하하고, 성직자들을 불필요하거나, 있으면 안 되는 존재로 여기는 사상이다. 웨이커교도나 형제단 운동은 교권주의의 폐해가 매우 극심했던 시대에 등장한 것이기도 한데, 반교권주의에 비해서 무교권주의는 성직자의 권리남용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성직 그 자체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직무용론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53)</sup>

교권주의와 반교권주의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원론 사상을 주의해야 한다. 이원론 사상에 의하면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동일한데, 그 부르심의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의 사상의 결과로서 12세기의 그라티안(Gratian)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까지 하였는데, 존 스토틀은 이원론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원론에 의하면 평신도들은 여전히 이차적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평신도들은 스스로 교회도 구성하지 못하는 것이며, 성직자와 평신도는 대립적인 관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sup>54)</sup> 평신도들이 곧 교회이고, 성직자는 평신도들을 섬기기 위해 세움을 받았으며, 그 섬긴다는 것은 평신도들이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역할과 은사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란 용어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원론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평신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52) Ogden, *새로운 교회*, 33.

53) Stott, *한 백성*, 55.

54) Stott, *한 백성*, 62-66.

백성들이고, 성직자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백성’일 뿐이요, ‘하나님의 종들의 종’인 것이다.<sup>55)</sup>

### 1. 은사의 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여러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교회의 단일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강조한다.<sup>56)</sup>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동시에,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다. 신약에는 대략 20여개의 은사들이 등장하고, 이 중에서 세 가지는 공동체 내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가르침과 연관된 은사와 목양의 은사와 다스림의 은사이다.<sup>57)</sup> 이러한 가르침, 목양, 다스림의 활동은 당연히 대상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은사들을 가진 자들을 지칭하여 목사, 교사, 감독, 장로라는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은사는 어느 한 가지 만으로는 목회자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세 가지 은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sup>58)</sup>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은사가 충만한 유일한 분이셨으며,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은사들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공동체를 통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하셨다.<sup>59)</sup>

1950년대부터 은사주의운동이 로마카톨릭과 개신교 모두에서 나타났는데, 이 은사주의운동으로 인하여 성령세례와 신유 같은 문제에서 중대한 신학적 혼란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동시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즉 모든 지체들은 각자 받은 은사들이 있고, 그 받은 은사들은 교회 사역에 적극 활용해야 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

55) Stott, *한 백성*, 76, 85.

56) Stott, *한 백성*, 45.

57) 송인규, “평신도 지도자,” 91.

58) 송인규, “평신도 지도자,” 91.

59) Ogden, *새로운 교회*, 98.

강조되었다는 사실이다.<sup>60)</sup> 이와 함께 은사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존 맥아더의 경고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존 맥아더는 은사주의 운동도 은사반대주의 운동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제3의 물결이라는 흐름을 타고 다가오는 혼합주의운동도, 무분별한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회성장학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경고하였다.<sup>61)</sup>

이 부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다. 은사의 종류를 세세하게 열거하며 그 내용과 특성을 일일이 논증하는 노력은 여기서 다루기에는 성격상 적합하지 않다. 다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고, 만물을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참되어야 하고, 저마다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여 섬김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은사에는 우열도, 차별도 없으며, 기능상의 구분만 있을 뿐인 것이다.

## 2. 동역자

목회자와 평신도의 사역적 차원의 관계는 동역자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3장9절에서 아볼로를 가리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소개하고 있다. 자신도 물론이고 아볼로도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강조한다. 당시 공식적으로 주어진 외형상의 관계 속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쉬운 것이 아니었다. 비록 바울이 과거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이제는 초대교회 안에서 상당한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던 사도였다. 그에 비하면 아볼로는 바울이 영향을 끼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므로, 같은 동급으로 여기기에는 쉽지 않은 관계였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은 직분과 은사와 역할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역자라는 의식을

60) Stott, *한 백성*, 7.

61) John F. MacArthur, Jr., *은사-예언자인가, 광신자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Charismatic Chaos*) (서울: 생명의 샘, 1994), 217-234.

있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는 우열의 관계가 없으며, 차별도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필요한 상호의존적 관계성이 중요한 것이다.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을 향하여 동역자의식을 갖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송인규는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향하여 동역자 의식을 갖지 못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 즉 신학적 이유, 심리적 이유, 기질적 이유가 있다. 신학적 이유는 목회자인 자신을 구약의 제사장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성례 집전과 말씀 사역 같이 목회자의 고유 영역 외에는 평신도들도 같이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심리적 이유는 자신의 고유 영역으로 말아오던 사역들을 평신도들에게 맡기게 되면 자신이 목회자로서 설 위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스스로 건전한 자아상을 확립하고, 자신과 자신의 은사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기질적 이유는 기질상 완벽주의적 성향의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의 업무 능력을 믿지 못하고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평신도들을 신뢰하는 것부터 회복해야 한다.<sup>62)</sup>

계속해서 송인규는 목회자가 평신도들을 동역자로 인정하고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모습을 꼭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목회자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대함에 있어서 군림하거나 좌우하려고 하지 말고, 섬김의 자세와 정신으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목회자는 말씀 선포나 성례 집전 같은 사역 외에 일반 업무에서는 일방적인 지시형태를 취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며, 셋째로 목회자는 가능하면 많은 사역과 책임들을 평신도들에게 위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3)</sup>

모든 평신도들은 목회자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제사장이요(벧전2:5, 9, 계 1:5-6, 5:9-10, 20:6), 함께 하나님의 부름 받은 종인 것이다(행2:17-18, 롬 6:22, 고전7:22, 벧전2:16, 계2:20, 19:5, 22:3).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하고 선택적인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됨의 본질의 일부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서 흠여지는 교회로의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에게

62) 송인규, “평신도 지도자,” 93.

63) 송인규, “평신도 지도자,” 92-93.

는 이 세상이 우리의 사역지이다. 그래서 로버트 슬로컴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는 세상은 당신의 사무실이다’라고 하였다.<sup>64)</sup>

### 3. 구비시키는 자

평신도가 목회자와 동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그에 맞도록 구비되어야 한다. 그러면 평신도를 동역자화 하는 과정에서 구비시키는 역할이 왜 필요하고, 그 구비시키는 자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며, 구비시키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가. 구비시키는 역할의 필요성

모든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의 부르심을 입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구비시켜야 한다는 목회 개념에서는 목사의 역할도 당연히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방법에서처럼 모든 것을 목사가 주도하고, 성도들은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며, 목사를 돕는 보조자, 방관자, 구경꾼, 목회 대상자로만 있는 체제에서는 별도로 성도를 구비시킬 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역의 주체가 평신도에게 있음을 인정한다면, 그에 따라서 목사의 역할은 당연히 평신도들을 구비시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는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고, 그것을 위하여 이미 주신 은사들을 계발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목사가 신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사실은 이러한 구비사역을 하기 위한 것이다. 목사가 구비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역들 중의 하나가 아니다. 목사의 사역 자체가 구비시키는 사역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설교를 하든, 심방을 하든, 상담을 하든, 성경공부를 인도하든 어떤 사역이든지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일환인 것이며, 목사의 은사는 이런 사역을 위해 사용하라고 받은 것이다.<sup>65)</sup>

64) Robert Slocum, *Maximize Your Ministry* (Dallas: The Entrepreneurial Church Series, 1993), 185.

65) Slocum, *Maximize Your Ministry*, 126-127.

#### 나. 구비시키는 자의 명칭

구비시키는 자를 어떻게 불러야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것일지에 대해서 옥덴은 목사도, 장로도 목회자도 아니고, ‘선수겸 코치’라는 단어가 좋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목사(Minister)는 특정한 소수를 위한 용어라서 공동체 전체를 위한 용어로서는 부적합하고, 장로(Elder)는 통치와 감독의 위치에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구비시키는 기능에는 약하며, 목회자(Pastor)도 이미지는 부드럽고 보호적이며 목자로서 돌보는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구비시키는 역할로서는 부족한데 비해서, 선수 겸 코치(player-coach)는 다른 사람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훈련시키는 동시에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싸움과 소동의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sup>66)</sup>

퀘이커교도 출신인 엘튼 트루블러드(Elton Trueblood)도 성직자의 명칭을 코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

사역자가 젊다면 ‘장로’라고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고, 사역자가 독신 남성이라면 ‘신부(father)’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 않으며, ‘설교자’라는 표현은 성직자가 감당하는 사역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기에 적당하지 않고, ‘목자’라는 단어가 가장 성경적이긴 하지만, 양은 털과 고기를 제공하는 존재로 오해할 소지가 있고, 너무 낭만적이어서 적절치 않다.<sup>67)</sup>

#### 다. 구비시키는 내용과 방법

한편 폴 스티븐스는 구비자의 역할을 의사, 그물 고치는 어부, 석공, 토기장이, 부모, 설계자등으로 다양하게 설명하면서 동시에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것은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자기가 받은 은사를 통하여 서로를 구비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는 성도가 구비되어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다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68)</sup> 그것은 그들이 안고 있는 삶의 현상이

66) Ogden, *새로운 교회*, 151.

67) Stott, *한 백성*, 85-86.

68) Stevens,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132-149.

다양한 것과 같다. 어떤 부분들은 목사보다 평신도가 더 전문적으로 구비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의 저마다의 경험과 은사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이다.

구비시키는 내용을 이해하려면 먼저 구비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옥덴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sup>69)</sup> 그 내용에 의하면 첫째로 ‘고치다, 회복하다(Mend, Restore)’는 의미로서 부러진 것을 고치거나, 제 자리에서 이탈한 것을 적절한 자리로 돌려보내거나, 기준에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다. 둘째로는 ‘세우다, 기초를 놓다(Establish, Lay Foundations)’의 의미로서 세움에 있어서의 참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움의 내용은 고유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성육신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준비하다, 훈련하다(Prepare, Train)’의 의미로서 구비시킴의 결과로서 영적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되고, 소명을 확인하며, 전문화된 훈련을 받아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평신도들을 교회 사역에 동참시킨다고 해서 아무 일이나 무조건 맡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의 구비가 필요하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의 성장 과정(엡4:13)과 둘째는 모든 성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와 부르심을 잘 발견하고 계발하여 쓰임 받게 하는 과정이다. 이것은 곧 평신도 구비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다. 요즘은 성도들을 구비시킬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매체도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자칫하면 성도를 구비시키는 것이 하나의 기술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기도 하며, 때로는 목사가 갖고 있는 신학적 지식을 넣어주는 것으로 오해하여 마치 지식의 전달처럼 오해 할 수도 있다.<sup>70)</sup> 따라서 평신도를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구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구비시킨다는 것은 지배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섬김의 리더십으로 나타나야 한다. 세상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지배와 권력에 의한 것이라면, 섬김과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sup>71)</sup> 바울도 고린도후서1:24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

69) Ogden, *새로운 교회*, 131-152.

70)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18-19.

71) Stott, *한 백성*, 54.

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라고 하였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5:3에서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평신도의 의미와 평신도 신학의 성경적, 신학적 근거 및 평신도와 목회자의 역할을 정리하였다. 평신도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동일한 부르심을 입었고, 은사대로 쓰임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름 받은 백성들로 구성된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유기체적이며, 각 지체들은 몸을 구성함에 있어서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주어진 영적 기능을 성령 안에서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동역자로서 서로의 기능과 은사를 따라 유기체적 사역을 감당하는데, 목회자의 주된 역할은 평신도를 구비시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현재 21세기의 시대적 특징을 연구하고, 그에 따른 교회 구조의 변화를 다루고자 한다.



## 제 3 장

### 21세기 시대적 특징과 미래의 교회구조의 변화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시대에 맞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특징들을 잘 알아야 한다. 21세기는 과거 그 어느 시기에도 비교할 수 없는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으며, 변화의 양상도 매우 다양하다. 그 복잡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몇 가지의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적당한 교회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포스트모더니즘

오늘의 시대를 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일컫는다. 포스트모던 시대와 대비될 수 있는 개념으로 본다면 전통적인 시대와 모던 시대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시대라 하면 서구사회의 경우 기독교적인 사상이 지배하며, 종교의 권위로 모든 것을 해석하던 시대였다. 그 후 모던 시대가 도래 하는데, 모던 시대는 계몽주의의 영향이 증대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과학 및 합리성이 강조되는 시대였다. 모던 시대는 산업화의 물결과 어울리면서 기계화, 조직화, 과학화의 특징을 나타내 보였다. 이후에 등장하는 포스트모던 시대는 그 어떤 절대가치도 부정하면서 다원주의, 상대주의를 표방하며 개인의 자기중심을 강조하는 특징을 보인다.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은 모던 시대가 질서, 통제, 안정, 단일성과 불변성을 갈망했다면, 포스트모던 시대는 혼돈, 불확실성, 타자성, 개방성, 다중성, 그리고 변화를 열망하는 시대라고 비교하였다.<sup>72)</sup>

72) Leonard Sweet,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Summoned to Lead)*,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5), 37.

포스트모더니즘은 일종의 철학 체계나 논리적인 사상이 아니라 감정적인 반응이며, 어떤 면에서는 문화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닐 콜(Neil Cole)은 설명하기를 보편적 ‘방법론’으로만 삶을 풀어 가려는 모더니즘 가치관에 대해 반발하는 세대가 자발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싶어 했으며, 합리주의 이성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시적 감상을 동경했다고 하였다.<sup>73)</sup> 그는 이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교실이나 과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사상이 아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보다 ‘무엇이 아닌가?’에 더 가깝다. 출발점 자체가 무엇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반작용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그 목적 또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든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sup>74)</sup>

이러한 닐 콜의 설명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포스트모더니즘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왜 그렇게도 어려운지 납득이 간다. 우리는 막연하게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해있던 모더니즘의 사고체계로 볼 때는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어차피 모더니즘의 체계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 문제점의 기초 위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경험한 것들이 거의 다 모던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더니즘도 포스트모더니즘도 아니고, 그것을 초월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주어진 세대에서 성육신의 자세와 시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시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브라이언 맥라렌(Brian McLaren)은 포스트모더니즘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핵심가치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스트모더니즘은 확실성을 의심한다. 객관적 세계와 타인 및 자기 스스로의 존재와 이해능력도 비판하게 된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은 맥락에 민감하다. 동일한 사안도 다른 시

73) Neil Cole, *교회 3.0 (Church 3.0)*, 안정임 역 (서울: 스텝스톤, 2012), 60.

74) Cole, *교회 3.0*, 61.

각, 다른 맥락에서 볼 때 전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포스트모더니즘은 해학적인 성격을 띠며, 어떤 것들도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넷째, 포스트모더니즘은 주관적인 경험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 경험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다섯째, 포스트모더니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을 열망하고, 관용과 다양성 인정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sup>75)</sup>

이러한 맥라렌의 주장을 보면 포스트모더니즘은 비록 그것이 일정한 체계를 갖춘 것일지라도 외부적인 강요와 같은 일방적 형태로는 그 어떠한 진리의 수용도 거부하며, 모든 것을 자기가 주관적으로, 자발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상황 속에서 해석하기를 원하고, 그 상황을 이루는 사람들과 환경에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라렌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좀 더 세분하여 설명하는 이동원은 포스트모던 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주장하였다.

첫째, 이성적인 것에 대해 반발하는 감성적 인간이다. 즉 감성적 고려가 없이는 어떠한 이성적 진리도 거부한다.  
 둘째, 객관적, 절대적인 진리를 거절하는 모호한 인간이다.  
 셋째,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의심하는 주관적인 인간이다. 오직 자기 자신이 기준이며, 자기가 새로운 우상이다.  
 넷째, 질서를 부정하면서도 초월을 추구하는 신비한 인간이다.  
 다섯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희생하기보다 오늘의 현실을 더 중시하는 실존적인 인간이다.  
 여섯째, 과거보다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공동체를 추구한다.  
 일곱째, 다양한 미디어 문화에 집착하는 피상적인 인간이다.<sup>76)</sup>

이동원의 주장을 살펴봐도 포스트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것과 권위적인 것을 부정하면서도 그 자리에 자신을 대입하였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오히려 또 다른 공동체를 선호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설적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성적 논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어울려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75) Brian McLaren, *저 건너편의 교회* (*The Church on the Other Side*), 이순영 역 (서울: 낮은 울타리, 2002), 219-224.

76) 이동원,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 패러다임,” *목회와 신학* 176 (2004년 2월), 219-224.

과거에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사상의 변화가 빠르지 않기에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사상이 서로 비슷했지만, 21세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보니 동시대의 사람들 중에도 연령과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사상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해서 에디 깁스(Eddie Gibbs)는 주장하기를 거의 모든 교회들 특히 30년 이상을 존재해 온 교회들에서는 전통적 사고, 근대적 사고, 포스트모던적인 사고를 하는 그룹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들은 나름대로 합당한 관점과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up>77)</sup> 스윗도 이러한 내용에 동의하는 주장을 다음과 같이 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구세계 교회와 신세계 교회로 분리되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서로 다른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 다르게 성공을 측정하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고한다. 한쪽은 주로 크고 작음의 측면에서, 다른 한쪽은 빠름과 느림의 측면에서 생각하며, 한쪽은 책 중심이고, 다른 한쪽은 웹 중심이다.<sup>78)</sup>

서로 다른 사고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대의 같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을 오히려 조화롭고 균형 있게 아우를 수 있는 고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이점들이 상호 갈등 구조가 되는지 아니면 상호 보완 구조가 되는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역동성이 달라질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며, 객관적이기보다는 주관적인 면이 강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면에서는 교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나름대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면들도 있다고 봐야 한다. 맥라렌은 포스트모더니즘 속에도 나름대로 선한 모습들이 있음을 강조하였는데, 그 내용들은 적당한 겸손, 건강한 회의주의, 영성에 대한 목마름, 신앙에 대한 열린 마음, 기분 좋은 관용, 제한된 상대주의 등이라고 하였다.<sup>79)</sup> 에디 깁스도 포스트모던 사회에 대해서 평가

77) Eddie Gibbs,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0), 10.

78)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ostmodern Pilgrims)*,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23-25.

79) McLaren, *저 건너편의 교회*, 219-224.

하기를 어두운 그림자도 있지만, 현대적 문화의 기후에서 신생하는 좋은 흐름도 있다고 하였는데, 그는 라일 살러의 의견을 들어서 포스트모던 사회에 기대할 수 있는 흐름들에는 동시대적이며 창조적인 예배, 다양한 문화에서의 새로운 자원, 시장 중심적인 기획, 강화된 평신도 사역, 기도와 영성에의 강조, 스타와 같은 설교자를 대신한 팀워크, 위계적 교회직분 구조의 단순화, 평신도가 이끄는 성경 공부 그룹의 급격한 증가 등이 있다고 하였다.<sup>80)</sup> 이러한 특징들은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대의 특성에 따른 당연한 변화의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그러할 때 오히려 모던 시대의 교회가 가질 수 없었던 새로운 역동성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과 연관 지어 볼 때 교회의 대사회적인 접근 방식이나 복음 전도의 방식에 있어서도 적절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포스트모던 시대는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고,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관이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무작위적인 전도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관계중심의 전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한다고 닐 콜은 강하게 주장한다. 심지어 그는 포스트모던 시대가 모든 진리를 상대화시키는 그 근본적인 이유도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 누구도 제외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81)</sup>

이제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보다 새로운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인간관계 형성 속에서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일방적인 선포 스타일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며, 삶의 접촉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성도들끼리 자기들만의 문화만을 추구하다가 정작 세상 속으로 들어갈 기회와 관계를 상실한다면 복음의 통로는 그만 닫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화, 개인주의화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보다 훨씬 심하게 계층화되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필요에 적절한 다양한 소그룹 형태의 활동이 중요하고, 그들의 깊은 외로움과 삶의 문제들을 품어주고 도와주며, 영적인 터치까지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멀티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의 채널의 활용이 더욱 효과적이기에, 과거와 같이 소수 목회자의 권위적인 리더십보다는 평신도들이 앞장을 서는 공동체적 리더십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80) Gibbs, *Next Church*, 90.

81) Cole, *교회 3.0*, 67.

## 제 2 절 미래시대의 변화들

포스트모더니즘 외에도 미래 시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고령화 사회, 최첨단 과학기술사회, 통일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1. 고령화 사회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매우 염려스러운 정도로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고령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인 사회를 말하는데, 한국은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화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며, 2030년이면 인구의 24.3%, 2050년에는 46%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하는 주장이 있다.<sup>82)</sup> 한편 2005년 통계청 인구조사와 2010년 인구 추계 피라미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보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는 0~19세가 23%, 20~39세가 30%, 40~59세가 31%, 60~90세가 16%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2050년경이 되면 전체 인구가 800~1,000만 정도 줄어들고, 0~19세가 13%, 20~39세가 17%, 40~59세가 24%, 60~90세가 46%를 구성하게 되면서 완전히 역피라미드형의 재앙적 인구구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sup>83)</sup> 한국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를 연구한 통계들을 기초로 해볼 때 OECD는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 순위가 10위인 한국은 2020년에는 세계9위, 2030년에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 다음으로 세계4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sup>84)</sup>

한국사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고령화 되는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한 젊은 층 인구 감소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그 심각성은 점점 더 우려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단순히 인구구조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적인 문제의 복합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 모든 기관들이 힘을 모아야만

82) 최윤식,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151.

83) 최윤식,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143.

84) 최윤식, “고령화 시대와 미래 전략,” *이슈&미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447.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젊은 층의 취업률 하락과 자녀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 연장은 점점 더 속도를 내면서 100세 무병장수시대를 눈앞의 현실로 만들고 있다.

인간의 수명 연장은 반가운 일이겠지만,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마냥 좋게만 볼 수 없는 현실적 문제들이 있다. 은퇴 후 더 길어진 노년의 삶에 대한 재정적인 빈약한 대책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노동구조의 변화와 이로 인해 파급되는 경제 시스템의 취약화, 노인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젊은 세대의 과중한 부담 등이 그러하다. 사회, 경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령사회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은 국가 재정부담 가중으로 인한 경제 성장의 걸림돌, 평균 생활수준의 하락, 부동산 하락, 내수시장 규모 축소, 사회 활력 하락, 저축률 하락으로 경제 기반 약화, 농촌 및 중소도시 경제파괴, 내수 시장의 급격한 침체 등의 결과를 초래한다.<sup>85)</sup>

한편 고령화 사회가 늘어남에 따라 동시에 길어진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960년의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50세였다고 한다.<sup>86)</sup> 그 당시에 비하면 이제 80세를 넘어 100세 수명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은퇴 후 노년의 시간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은퇴 후 수십 년 간의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 최윤식은 은퇴 후 노년의 시기를 인생의 제2막 또는 새로운 출발이 되는 시기인 만큼 노인이나 은퇴자로 부르지 말고 ‘신중년’이라고 호칭할 것을 권하면서 신중년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우월한 4가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킨 역량과 높은 문화수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에너지, 높은 교육 수준과 교양, 삶의 지혜와 경험이라고 하였다.<sup>87)</sup> 즉 신중년은 아직도 이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에너지와 능력이 있고, 그 지혜와 경험은 후세대를 위한 중요한 멘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도 문제이지만, 한국 교회의 고령화는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85) 최윤식, “고령화 시대,” 151.

86) 최윤식,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239

87) 최윤식, “고령화 시대,” 242.

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 고령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상태에서 부모의 신앙 계승이 자녀세대에 원활히 되지 않았다는 상황이 첨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출산 장려정책과 함께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다음 세대를 위한 철저한 전략과 투자가 너무도 절실히 필요하다.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며, 그 결과는 당장 5년, 10년 뒤에 나타날 것인데, 이에 대응하지 못해서 비롯되는 잘못된 결과들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신중년 세대가 아직 활동할 수 있는 특별한 여러 자산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육체적으로 찾아오는 노쇠함의 변화와 인생의 후반기를 맞이하며 느끼게 되는 심리적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영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이다. 신중년이 되면 삶과 죽음, 인생의 의미, 물질과 명예의 성격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할 때에 복음의 의미와 능력을 깊이 인식하여 죽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 경험을 통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살게 함으로써 노년에 찾아오는 존재감의 상실과 공허함, 허탈함,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또한 아직 영적인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분명한 역할 인식과 사명 감당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평신도들을 위한 훈련과 제자로서, 사역자로서의 구비시킴의 과정은 신중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평생 지속되어야 한다. 오히려 신중년의 시간과 경험과 열정은 더욱 좋은 토양이 될 것이다.

## 2. 최첨단 과학기술 사회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그 속도와 내용 면에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고 있다. 과거 공상 과학이라고 경시했을법한 내용들이 이제는 현실화는 물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삶의 편리함과 이로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전반에 걸친 커다란 변화와 함께 우려스러운 결과들도 가져오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가치관과 영성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학기술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 생명의료기술과 나노기술

의학계에서 유전자공학의 발달로 인해 생물의 유전자 조작이 보다 쉽게 되었고, 이미 여러 고등동물의 복제가 성공했으며, 심지어 인간의 복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시대를 살면서 심각한 종교적, 사회 윤리적 고민이 진행되고 있다. 복제 인간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체세포의 배아줄기세포는 원래 불치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동물복제에서 성공을 거두자, 인간의 복제에까지 도전하는 것이다. 생명기술공학과 바이오 생명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산업의 핵심으로서 그 위상을 급속히 더하고 있다. 체세포 복제, 유전자 분석, DNA 합성기술등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신비의 영역에 도전한지 오래 되었다. 얼마 안 있어서 누구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의 유전자 분석 지도를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 발생할 질병을 조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게 될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중국에 가서 생명의 재창조와 변종생물의 창조에까지 도전을 할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88)</sup>

물질세계에서의 나노기술의 발전도 매우 놀라운 결과들을 내고 있다. 나노기술(nanotechnology)이란 10억분의 1수준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극미세가공 과학기술을 말한다. 나노산업은 양자역학의 기반 위에서 원자를 다루는 기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나노산업은 장차 소재혁명과 양자 수준의 아주 작은 인공기계의 활용으로 발전될 것이다.<sup>89)</sup> 소재혁명은 구리보다 100배 빠른 전류속도를 내면서도 실리콘의 대체 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그래핀이나 강철의 200배의 강도를 가졌음에도 머리카락처럼 휘어질 수 있는 탄소 나노튜브 같은 소재들을 개발함으로써 섬유, 가전, 자동차, 건축에 이르기까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양자 수준의 작은 인공기계 혁명은 인간의 신체에 투입하여 혈관 속을 타고 다니는 나노로봇을 비롯하여 각종 장기 기관의 생산 및 대중화도 가능

88) 최윤식, “고령화 시대,” 258-259.

89) 최윤식, “고령화 시대,” 260-263.

하게 함으로써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은 이제 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서 과연 해도 되는가의 문제로 우리의 생각을 전화하게 하고 있다. 생명의료기술의 발달은 자칫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까지 훼손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 나. 가상공간의 출현

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의 기술의 융합은 결국 가상공간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다. 가상공간은 물질을 기반으로 한 이제까지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상의 신세계인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새로운 환경의 세계를 여는 도구가 되었다. 가상공간에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고, 물리적 환경에 기초한 사고체계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후기정보화사회는 모니터 없이도 현실공간에 가상과 현실이라는 두 개의 공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기가 되고, 가상의 영상이 이미지만이 아니라 촉감까지 전달하게 되어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며, 인공지능기술과 유비쿼터스 기술이 융합되면 컴퓨터가 사라지고,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파괴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최윤식은 주장하면서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예측했다.

미래는 인간이 컴퓨터 속에 사는 느낌이 드는 시대, 내게 필요한 정보가 스스로 알아서 나를 찾아오는 시대, 가상이 현실을 지배하고, 가상의 지식이 현실의 상품을 지배하는 시대, 지능형 3D 가상 공간 안에 가상의 정부, 가상의 정치, 가상의 회사, 가상의 학교, 가상의 사회가 만들어지고, 이들이 현실 세계와 절묘하게 결합하는 시대가 10년 후에는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2030년 이후가 되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가상사회 구현이 가능한 기술이 개발되면서, 가상의 나와 현실의 내가 서로 연동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sup>90)</sup>

이렇게 가상공간이 실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연결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공

90) 최윤식, “고령화 시대,” 229-231.

간까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가상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현실 세계에서 불만을 대리 만족하는 부분이 많을 것인데, 이것은 영적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상당 부분 대치될 것으로 본다.

향후 가상공간이 어디까지 발전되고 그 현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최윤식의 연구는 계속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2022년이면 가상현실이 보편화될 것이고, 2030년 이후가 되면 3차원 가상혁신이 완성되어, 가상과 현실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 인간의 기억과 역사가 가상공간의 아바타에 주입되는 시대가 될 것인데, 그 아바타는 실제 인간이 죽더라도 가상공간 안에서 영생하는 시대가 된다. 가상공간이 발달하면서 ‘페이스북’같은 상상속의 공동체, 가상국가의 개념이 출현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를 통해 초기국가와 유사한 가상세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up>91)</sup>

이렇게 가상공간이 발달하면 사람들은 현실과 가상공간의 두 세계에서 어디에 내가 더 집중해야 할지 혼란스럽게 될 것이고, 더욱 확실한 자기 관리의 영성이 없이는 현실감각을 상실하기 쉬운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차원에서 가상공간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도 많이 있을 것이니 두려워 할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가상공간을 통한 삶의 유익한 점들은 재택근무, 원격학습, 원격의료치료 등은 물론이요, 아주 특별한 세계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의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게 했다. 곧 이것은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와 새로운 사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며, 새로운 인간관계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가상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활동과 익명성으로 인해 잘못된 욕구충족과 범죄가 가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정체성을 상실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또한 가상공간을 통한 활동들이 현실세계의 많은 부분들을 좌우하는 사회적, 국가적 상황들과 연관을 갖고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가상공간에서는 우리의 보다 높은 책임성과 자율성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에 따른 사고체계와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되는데, 교회는 이것에 대해 선제적으

91) 최윤식, “고령화 시대,” 236-238.

로 연구하고 대응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는 우리의 윤리적 평가 기준을 뛰어 넘을 정도로 너무 빨라서 그 현상이 가시화 된 후에는 이미 늦기 때문이다.<sup>92)</sup>

#### 다. 스마트 시대와 유비쿼터스 구현

2009년 국내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부터 촉발된 스마트시대는 유비쿼터스 구현을 위한 서막이 되었다.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단어는 원래 라틴어로 ‘하나님(신)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과학기술에 적용되면서 결국 그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극소형 컴퓨터가 모든 사물에 내장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을 뜻한다.<sup>93)</sup> 스마트 시대에는 점차로 모든 제품에 컴퓨터칩이 장착되게 되어서 정보와 서비스 접근을 용이하게 하며, 개인화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환경의 특성을 모색하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 인간의 심리까지도 파악하여 인간의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를 가능하게까지 발전할 것이라고 박요섭은 내다봤다.<sup>94)</sup>

이와 같이 스마트 시대의 엄청난 확장성과 용이한 접근성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장점도 제공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단점들도 가져다준다. 사생활을 안전하게 보호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가 하면, 사행성, 음란성, 폭력성의 문화가 연령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거대한 네트워크와 엄청난 양의 미디어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한국 교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긴장감과 영적 전쟁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

스마트 시대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들의 내용을 안중배는 세 가지로 설명했

92) 박영숙, Jerome Glenn, *유엔미래보고서 2050* (서울: 교보문고, 2016), 369.

93) 안중배, “스마트시대의 성경적 의미와 영적 전쟁,” *이슈&미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402.

94) 박요섭, “유비쿼터스 시대와 목회환경,”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163

는데, 첫째는 허구 문화를 퍼뜨리는 것이고, 둘째는 뉴에이지 같은 건전하지 못한 신영성운동이 확산되는 것이며, 셋째는 반기독교적 문화와 가치관이 확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95)</sup> 허구 문화를 퍼뜨린다는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인 상대주의의 영향 하에 모든 것은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들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할 시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포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영성운동은 과학기술이 발달될수록 그와는 상반되게 영성을 추구하게 되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여 신비주의와 인본주의에 물들은 문화현상이 확산된다는 것이다.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가치관의 확산은 드라마, 영화, 음악 및 모든 대중매체를 통하여 기독교의 가치관과 정 반대되는 물질주의, 폭력성, 악마숭배, 향락문화, 인간성 실종, 가족해체, 성 개념 파괴등과 같은 사상들이 견잡을 수 없이 밀려오는 것을 말한다. 결국 21세기 포스트모던 시대의 영적 전쟁은 스마트화된 네트워크에서의 문화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스마트 시대의 한국교회의 영적 책임은 반기독교적 가치관의 확산을 방어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독교 문화를 보급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능동적, 적극적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반기독교적 문화의 활동들을 감시하고, 그 허구성을 보여주며, 그보다 더 우위적인 기독교 문화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제까지 미래사회의 과학 기술의 발달의 모습을 예상하며, 그로 인한 삶의 변화들을 살펴왔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자체를 연구하기 위함이 아니며, 그보다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와 시대적 사명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자칫 과학만능주의라는 우상을 만들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삶의 변화들은 새로운 가치관의 도전을 경험하게 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하고, 편리성과 쾌락성에 노출된 죄의 유혹을 극복해야 하며, 익명성과 욕심에 기초한 이기적인 자세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미래사회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은 그만큼 더욱 철저한 우리의 영적 무장과 기독교적 가치관의

95) 안중배, “스마트 시대,” 404-406.

확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3. 통일한국

한반도의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현과 선교적 차원에서 필수적인 과업이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될지 시기와 방법은 속단하기 어려울 지라도 장차 한국은 통일한국이 될 것이라는 것만큼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준비가 안 된 통일은 결코 희망이 아니라 커다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통일을 위해 영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통일이 되면 막상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오랜 시간 적대적 갈등 속에서 빚어진 갈등의 해소와 이질감의 극복, 남북한의 심각한 경제적 차이 극복 및 균형적 발전 전략, 막대한 통일 비용의 부담 등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통일이 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국제적 유익도 매우 클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한국교회가 기대하는 것은 고난의 신학을 이겨내 온 북한의 영적 순수성과 열정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매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통일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복음통일(평화통일과 북한선교)이 되어야 한다. 허문영은 복음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설명하기를 1980년대 진보진영에 의한 평화통일로의 노력과 1990년대 보수진영에 의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선교에의 노력 등으로 인해 1988년 7.7선언과 2000년 6.15선언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의미 있는 역할이 되었지만, 이후에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 복음통일을 위해 가장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sup>96)</sup> 그리고 복음통일을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적 사고의 토대 위에, 극단적 사상을 지양하고 관용과 포용의 균형적 인식이 필요하며, 미래지향적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미래지향적 시각이란 세계문명사적 흐름위에서 장차 통일한국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및 전 인류의 공동발전을 향한 역할을 진취적으로 해야

96) 허문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비전,”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285.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통일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통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평화통일이 아니라면 그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 통일의 목적도 우리 민족만을 위한 유익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선교와 봉사의 비전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려면 한국교회는 지금부터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대안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대안적 공동체란 통일 이전에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주체적 역할을 감당하듯이, 통일 이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한 ‘혁명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통일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체이다.<sup>97)</sup>

이상과 같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탈북자들을 향한 사역이다. 남북한 분단 이후 적대적 관계 속에서 고착된 이질적 문화의 갈등은 통일 이후에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탈북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탈북자들을 통한 북한 사람들의 이해 및 복음을 통한 내면적 심리 치유 사역이야말로 통일 한국의 미래가 오기 전에 기독교의 선교적 과제를 넘어서 반드시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되는 것이다.<sup>98)</sup> 만일 이러한 내면적 심리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통일 한국은 오히려 분단 상태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약 3만여 명의 탈북자들을 비롯해서 아직 국내에 입국하지 못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자들을 향한 적극적인 사역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가족적인 개념을 넘어서서 선교적, 민족적 회복을 위한 동역자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 제 3 절 교회구조의 변화

교회구조란 교회 건물이나 교단 같은 조직보다는, 교회가 세상에서 사명을

97) 최윤식, “고령화 시대,” 223.

98) 임현만, “미래 통일 한국의 전령, 탈북자,”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 산업사회연구소, 2006), 311.

완수하기 위해 사용하는 형태와 양식들을 의미한다. 교회가 평신도들을 세우고 일으켜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시대적 특성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구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이 변화는 반드시 유기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sup>99)</sup> 즉 평신도들을 구비하고 세우는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단지 개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교회의 문화와 조직체계를 함께 보면서 사역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특별한 성격을 갖고 있으며, 부분은 본래의 갖고 있던 성격의 부분으로서 만이 아니라 전체 속에서 또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100)</sup>

평신도를 양육하고 구비시켜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교회의 분위기와 사역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할 때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환경인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이 자기가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와 같이 자아상을 찾는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사회적, 영적 분위기와 인간관계 같은 것들이다.<sup>101)</sup> 그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가 피상적이어서는 안 되고, 서로 깊은 사랑과 신뢰의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하며, 사역의 구조도 가급적 단순하고 부담을 주지 않게 함으로써 교회 내에서 지나치게 과도한 사역으로 인해 정작 가정과 사회에서 사역을 감당할 육체적, 시간적 여유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수동적이던 평신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사역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옥덴은 교회적으로 6가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sup>102)</sup> 그 내용 중 첫째는 교회는 성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며, 셋째는 교회는 살아 있는 유기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이다. 넷째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사역자들이라는 것과 다섯째는 성령의 에큐메니즘(모든 그리스도인의 협력과 일치를 위한 노력)은 교파를 초월한다는 것이며, 여섯째로 예배는 교회의 본질을 뚜렷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99) Stevens and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14.

100) Stevens and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21.

101) Stevens and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36.

102) Ogden, *새로운 교회*, 17-18.



그러면 이러한 교회 구조 변화의 인식 위에서 교회 구조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본 장 1절과 2절에서 시대의 변화의 특징을 언급하였다. 교회 구조의 변화는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던 시대에서는 보편적 방법론으로만 삶을 풀어나가던 시대였지만, 포스트모던시대 속에서는 교회가 하나의 패턴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다양한 패턴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특징을 감당해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위계적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수평적으로 해야 하고, 개인보다는 팀워크가 발휘되어야 하며, 목회자보다는 평신도들이 중심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무 규정 같은 강제사항 보다는 다양한 유익을 제시하고, 감성적 접근을 포함하며, 일방적인 선포보다는 삶의 현장성에서의 접촉을 강조하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화 사회의 특징 속에서는 가족신앙 계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공동체 활동을 다양하게 계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노인들이 겪게 될 상실감, 외로움, 무력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년을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과 의미 있는 참여를 모색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이 적극 필요하다. 첨단 과학의 시대를 맞이하여 유비쿼터스 시대인 만큼 종전의 획일적인 형태의 교육 활동이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고,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울러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그에 상응하는 윤리 문제의 기준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고, 편리성과 함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통일을 대비하면서 특히 탈북자들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그들이 통일 시대를 주도적으로 담당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적합한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이 모든 시대적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하여 필자는 교회 구조가 수평적, 지방분권적, 성숙적, 팀목회적, 평신도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 1. 교회구조 변화의 내용

평신도를 효율적으로 구비시키고 진정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교회 구조 변화의 내용을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 가.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목회의 수평적 구조는 목회의 직무를 계급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가 깊이 새겨져 있는 한국 문화 속에서 수평적 목회구조를 실행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유기체적인 공동체로 이해한다면 이는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교회의 유기체적 구조에서는 높고 낮음이 아니라 동역자로서의 분위기가 필요하다.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들에게도 결정권을 부여하고, 리더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가장 낮은 서열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sup>103)</sup> 이러한 구조에서의 리더십은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주는 것이고, 통제하기보다는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

### 나. 중앙집권형 구조에서 지방분권형 구조로

교회는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과거 한국사회가 갖고 있던 중앙집권적 관료사회의 영향이 교회 내에도 그대로 유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1995년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 중앙집권이라는 사회문화가 퇴조하고, 대신 지방분권이라는 새 구조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적 구조는 정보화로 말미암아 가속화되었고,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보화 조직은 조직 구조가 얇아지고, 이전의 조직의 최상층이 모든 지식을 독점하고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지식은 주로

103) Sweet, *영성과 감성*, 272.

최하층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지식이 최하층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실제의 일은 각 문제를 맡은 하층의 팀이 하게 되는 것이다.<sup>104)</sup> 지금까지의 교회 리더십은 군사문화의 영향 아래서 군대식의 계급구조가 익숙했고, 상하명령 복종관계의 계선조직의 형태였지만, 이후에는 직접적인 명령이나 지휘보다는 보조적, 자문적, 기능적 요소를 제공하는 막료조직이 더욱 절실할 것이고, 동시에 미래 교회는 블럭화 및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성희는 주장했다.<sup>105)</sup> 블럭화와 네트워크화는 교인들이 기존의 교회 조직 외에도 각자의 취향과 필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상호보조적 관계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단순하고 융통성 있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교회의 목회구조가 중앙집권적에서 지방분권적으로 변화하게 될 때에 대표적으로 당회의 변화도 주목해야 한다. 이전에는 당회의 절대권위를 통하여 중앙집권적 통치가 가능했지만 미래 교회는 지방분권적 역할 분담이 중요한 원리로 부각될 것이다. 이전에는 당회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했지만, 이후에는 이 같은 권위를 상실하게 되고 당회원은 각 기관과 부서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교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필요시에는 당회도 열린 당회가 되어서 교인들로부터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받고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 다. 성장 구조에서 성숙 구조로

종래의 한국 교회는 수십 년 간의 성장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성장구조를 갖게 되었다. 성장구조의 조직에서 조직의 중심은 구역이고, 목회의 중심은 심방이었다. 그러나 미래형 교회인 메타교회에서는 달라져야 한다. 물론 메타교회에서도 구역이나 심방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기능은 전혀 다르다. 성장 구조에서 구역의 주목적은 연대감을 심어주고, 교인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성숙 구조에서는 이보다 평신도의 훈련이 강조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 사회의 복잡하고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평신도 지도자들의 철저한 훈련이 선행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104)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283.

105)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284-285.

일이다. 심방도 과거 농경사회에 기초한 문화에서의 관리형 심방이 아니라, 유목민 문화와 이동성, 다양성 사회에 맞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sup>106)</sup> 성장구조에서는 오직 교회 모임에 참여해야 모든 것이 해결되었지만, 성숙구조에서는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영적 필요를 채우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선교와 디아코니아 섬김의 목적도 교회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의 본질과 함께 성도들의 영적 성숙의 기회로서의 의미가 부각되어야 하는 것이다.

#### 라. 개인 목회 구조에서 팀 목회 구조로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계층화가 심화된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능력 있는 개인 목회보다는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팀 목회가 훨씬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이다. 미래는 개인 유력자들이 아닌 팀을 구성해 일하는 리더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이다. 창조적인 개인이나 천재들을 양육하는 것이 포스트모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에 대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팀으로 구성된 협동 작업이다.<sup>107)</sup>

성경 여러 곳에서 팀 목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희는 바울의 팀 목회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바울에게 팀의 개념은 성직자와 평신도,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두지 않는 협력 사역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팀 목회의 성경적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이 제공하는 직제의 개념은 팀의 개념이었다. 초대교회의 처음 직원인 집사의 직은 사도의 직과 팀의 관계였고, 초대교회의 사도, 예언자, 교사, 감독, 장로, 집사, 목사, 전도자, 말씀 전하는 자 등의 직제는 목회의 모든 기능을 하나의 직제로 분류하여 고유한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교회로서의 통일성을 모색하였다.<sup>108)</sup>

106)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274.

107) Sweet, *영성과 감성*, 198.

108)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276.

한편 목회적 팀을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구성하실 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전혀 다른 성격과 스타일을 함께 어우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예수님은 열심당원 이었던 시몬과 세리 마태와 같이 정치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이었던 사람들을 자신의 팀으로 모으셨다. 또한 연령별, 세대별로 구분되는 경험들을 섞으시고 문화적 차이와 부조화 및 다양성들을 조화롭게 이루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된다.<sup>109)</sup>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팀이 성공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관리적 기술(management skill)보다는 비전적 리더십(visionary's leadership)이 더 중요하다. 즉 팀의 구성원들이 동일한 비전의 일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sup>110)</sup>

#### 마. 목회자 중심 구조에서 평신도 중심 구조로

앞에서 언급한 대로 개인 목회 구조에서 팀 목회 구조로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목회자는 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평신도를 구비시키고, 팀의 구성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인 팀원의 활동들은 평신도 중심이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 이후 개혁주의의 개혁 목표는 탈성직주의와 탈제도주의였다.<sup>111)</sup> 평신도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위해 선교와 교육 등 다양한 교회의 사역들을 수행해야 할 중요한 직책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 이전의 전통적 목회에서 평신도의 위치는 목회자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협력자이었으나, 미래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동등한 관계에서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 교회는 카리스마적 목회자의 출현보다 평신도 사역이 극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것도 소그룹을 통한 평신도 중심의 목회이어야 한다.<sup>112)</sup> 목회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평신도들을 구비시켜서 그들의 부르심과 받은 은사

109) Sweet, *영성과 감성*, 290.

110)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279.

111)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237.

112)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196.

대로 사명을 감당케 하는 역할에 힘써야 한다. 21세기의 복잡 다양한 사회 구조 속에서 온갖 문제를 감당해내야 하는 평신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 내에서의 그 어느 사역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의 구조는 교회 내에서의 범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회 밖 평신도들의 삶의 현장의 범위까지 확장되어야 하므로 당연히 평신도 중심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내용은 교회 내부 활동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서 실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 경제, 정치, 문화, 가정, 교육 등 전 분야, 전인적인 구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 2. 메타교회로의 변화

교회 구조를 논함에 있어서 서로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메가교회와 메타교회를 비교하고자 한다. 메가교회가 양적 특성에 의해서 질적 변질을 가져왔다면, 메타교회는 양적 규모에 관계없이 그 본질적 특성과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 가. 메가교회

메가교회라는 용어는 대략 1970-1980년대쯤 미국에서 생겨난 신조어인데, 그 전에도 대형교회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용어가 탄생한 것은 메가교회가 단순히 크기만 큰 교회가 아니라, 규모와 함께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sup>113)</sup>

메가교회는 일반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인원이 2,000명 이상인 교회를 일컫는데, 이러한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대한 쇼핑 몰과 같으며, 많은 직원들과 굉장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sup>114)</sup> 메가교회는 단순히 소형교회가 커진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체질의 교회이다. 미국에서 대형 사회

113) 신광은, *메가처치를 넘어서* (서울: 포이에마, 2015), 28.

114) Leith Anderson, *21세기를 위한 교회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8), 62.

현상에 익숙한 베이비 붐 세대들에게 상당한 매력을 준 메가교회는 자신을 감추고 싶어하는 익명성을 요구하는 교인들, 전문화한 봉사를 요구하는 교인들, 세련된 프로그램과 방법을 원하는 교인들이 특히 좋아했다.<sup>115)</sup> 이러한 메가교회에서는 담임목사의 역할이 교회의 성격에 핵심적 요인이 된다.

메가교회를 다른 말로 ‘초대형교회’라고 할 수도 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초대형교회를 건강한 교회의 본질적 모델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했다.<sup>116)</sup> 첫 번째 이유로서 초대형교회는 너무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제한되기에 이를 모델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우를 보면 중산층이나 특수계층과 같은 일부 문화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이유로서, 초대형교회들은 그 크기와 규모 때문에 믿을 만한 원천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마치 교회의 성공이 교회의 규모와 연결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는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 아마도 교회의 최적의 크기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00-200명 정도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이유는 초대형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복음을 강조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네 번째 이유는 교회가 커질수록 영적 활력이나 제자도에 충실한 삶의 모습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오히려 초대형교회는 비즈니스 모델의 경향을 띠기 쉬우며, 이것은 이론적인 교회론과 실제적 실천이 분리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하워드 스나이더의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는 그의 교회 연구 결과를 예로 들면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비교해볼 때 단순 수자 면에서는 큰 교회가 새신자도 많고, 활동도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전체 교인 수와 대비하는 비율로 볼 때에는 오히려 작은 교회가 새신자 비율도 더 많고, 여러 가지 교회의 질적 특성에 있어서 더 우수한 면을 보이기 있다고 하였다.<sup>117)</sup>

메가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규모가 커도 너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커지면 그로 인해 내부 본질의 변질이 우려될

115) 이성희, *미래사회와 미래교회*, 197.

116) Howard A. Snyder, *교회 DNA (Decoding the Church)*, 최형근 역, (서울: IVP, 2007), 88-96.

117)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Paradigm Shift in the Church)*, 정진우 외 역 (서울: 도서출판 NCD, 1999), 46-48.

수 있기 때문이다.<sup>118)</sup> 그리고 메가교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메가교회 현상’을 초래하여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부정적 영향을 급속도로 끼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신광은은 메가교회의 문제와 메가교회 현상을 구분해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 각각의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메가교회의 특성은 첫째로, 메가교회는 교파나 신학적 전통보다는 개 교회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대체로 탈교파적 교회가 되고, 둘째는, 교리교육이나 신학보다는 실용적인 면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탈신학적, 실용주의적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로, 메가교회는 영혼 구원과 세계선교를 강조하는 복음주의적 교회가 많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메가교회는 그들만의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지, 건축 양식, 사역 프로그램 등 여러 면에서 일반교회와 다르다고 홍보하고, 전통적이기보다는 현대적 교회이기를 원하며,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현대적 교회로서 예배 스타일이 현대적이고, 전문적인 퍼포먼스를 잘 활용하며,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백화점식으로 진열되고 있는데, 동시에 큰 규모로 인한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익명성을 즐기는 방관자들도 많다. 메가교회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메가교회로 인해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거의 모든 교회가 ‘좀 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거대한 흐름, 교회 간의 무한 경쟁과 그 경쟁이 만들어내는 교회 생태계 교란과 교회적 특성의 왜곡, 신학교와 교계에 대한 메가교회의 영향력 확대, 나아가 한국 사회의 종교적 영역만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sup>119)</sup>

이상에서 보았듯이 메가교회는 초대형 교회로서 전통적인 교회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나타내며, 나름대로 초대형 교회로서의 장점도 살릴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교회의 본질에 입각한 건강성에 심각한 우려를 안고 있고, 더구나 메가교회 현상으로 인해 촉발되는 전반적인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보완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118) 신광은, *메가처치를 넘어서*, 34.

119) 신광은, *메가처치를 넘어서*, 34-36 55-56.



## 나. 메타교회

메타교회라는 용어에서 접두사 ‘메타’는 메타볼리즘(metabolism, 신진대사), 메타모르포시스(metamorphosis, 변형), 메타피지컬(metaphysical, 형이상학적인)에서처럼 ‘변화’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 그 초점은 변화에 있고, 목회자는 목회의 방식과 조직의 형태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칼 조지는 말했다.<sup>120)</sup>

메타교회는 동화(assimilation), 훈련, 목회적 돌봄, 위로, 전도의 센터로서 기능을 하는 소그룹의 네트워크에 근거하고 있는 교회이다.<sup>121)</sup> 그리고 메타교회는 주일예배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주중에도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평신도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것을 위해 평신도 훈련을 강조하는데, 목회자의 역할보다는 평신도의 역할이 중심이 된 교회를 말한다.<sup>122)</sup> 리드 앤더슨은 메타교회에 대해 말하기를 메타교회는 토지나 빌딩, 예산, 스텝진들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메가교회보다 성장 잠재력이 더 크고, 21세기에는 수만 명이 모이는 메타교회들이 있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교회가 메타교회로 전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것이므로, 교회가 설립될 처음에 제도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sup>123)</sup>

메타교회의 가장 뚜렷한 두 가지 요소는 가정단위의 소그룹(셀그룹)과 공동예배 대그룹이다. 소그룹은 10명 정도의 모임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며, 서로에 대한 관심, 격려 및 영적 교제를 나눈다. 건강한 소그룹은 더 나아가 복음 전도와 영적 양육 및 봉사까지도 감당한다. 잘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소그룹을 이끌어 가면 목회자들은 그만큼 과중한 목회의 부담을 피할 수 있고, 평신도 지도자들을 구비시키는 일에 더욱 몰두할 수 있게 되며, 성도들은 서로를 통하여 더욱 다양하고 깊은 영적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공동예배 대그룹은 소그룹 멤버들이 공동체 소속감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그룹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영적 은혜와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게 된다. 칼 조지는 이러한 소그룹과 대그룹의 연결구도

120) Carl F.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9), 80.

121) Anderson, *21세기를 위한 교회*, 63.

122)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198.

123) Anderson, *21세기를 위한 교회*, 64.

가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유형과 유사한데, 지파별로 모이는 지역회당(회중)과 민족이 함께 모이는 절기나 성일의 집회가 그러하다는 것이다.<sup>124)</sup>

결국 교회의 본질과 본래적 기능을 잘 유지하면서도 21세기 시대의 특성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교회구조는 메타교회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회의 변화는 결국 교회 구조의 변화를 우선시 한다. 교회 구조의 방향은 평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며, 모든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평적 구조가 되어야 한다. 종래의 개교회 성장위주의 형태로부터 개인의 성숙을 도모하고, 성숙한 평신도들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지체의식 속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메가교회 지향적이던 흐름에서 모든 평신도들이 보다 긴밀한 관계 속에서 목양적 사역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내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메타교회로의 전환이 매우 절실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제까지 3장에서는 21세기 시대의 특징과 거기에 맞는 교회 구조의 변화를 연구했다. 21세기는 기존의 논리적, 이성적 사고체계를 유지하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에서는 그 어떤 절대적 진리도 거부하면서 상대주의, 다원주의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감성적이면서도 영성을 추구하고 있고,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공동체와 자발적인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매우 역설적인 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것을 잘 분석하고 이용하면 오히려 새로운 선교적 접촉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21세기의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상상 속에 있던 과학적 사고를 현실화 하면서, 인간의 삶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변혁시키고 있다. 생명의료 기술과 가상공간의 급격한 발전 및 유비쿼터스의 구현에 따라 새로운 윤리체계와 가치관 및 영성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초고령화 사회와 통일한국의 도래를 대비하면서 시대에 맞는 교회구조의 변화를 통해 모든 평신도들이 부르심에 맞는 사역을 능동적으로 실제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목회구조의 대 변혁이 필요한데, 미래에 필요한 목회구조는 수평적 구조, 지방분권적 구조, 성숙의 구조, 팀목회 구조, 평신도 중심 구조로 되어야 하고, 결국 메가교회에서 메타교회로의

124) George,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93.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를 토대로 다음 4장에서는 건강한 평신도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요소들로서 가족공동체 목회를 다루고, 이를 가능케 할 양육과 훈련, 소그룹 활동을 다루고자 한다.

## 제 4 장

### 건강한 평신도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요소들

우리는 앞장에서 21세기 시대의 특징과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교회 구조의 변화를 연구했다. 모든 것을 상대화 시키고, 개인주의와 감성과 다양한 관계들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인 동시에 고령화 사회, 초고도의 과학기술 사회, 통일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회 구조도 다각도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구비된 평신도들이 삶의 전 영역에서 유기적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목회구조로서 가족공동체 목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요소들을 본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 제 1 절 가족공동체 목회

교회가 주어진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목회구조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던 필자는 3장에서 목회구조의 방향을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중앙집권형 구조에서 지방분권형 구조로, 성장 구조에서 성숙구조로, 개인목회 구조에서 팀목회 구조로, 목회자 중심 구조에서 평신도 중심 구조로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제 그 논지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목회구조가 가족공동체 목회구조라고 생각하며 그 근거와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동체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 1. 성경에 근거한 공동체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서 출발하듯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분쟁과 갈등, 분열 및 세속화에 따른 무기력함과 본질에서의 이탈한 모습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경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한다.

### 가.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한 교회 공동체

교회를 공동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은 외로운 단일체가 아니라 세 위격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통일체, 공동체이신데, 여기서 ‘위격’(person)이란 의식적인 삶과 활동의 중심으로서, 삼중적인 실재의 하나님의 이름(아버지, 아들, 성령)은 하나님 안에서 맺는 역동적인 관계를 가리킨다.<sup>125)</sup>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무한한 영적 존재 안에 공존하는 신적인 세 위격의 공동체인 셈인데, 신명기6:4에 나오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의미도 하나님의 통일성을 강조하되 그것은 복합적인 통일체인 것이다.<sup>126)</sup>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존재하시는데, 인간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인간이 유일하게 공동체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sup>127)</sup>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역시 그의 형상을 따라서 공동체적 존재로 창조하셨고(창세기1:26),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도 공동체의 원리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요한복음17:22). 하나님은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에 단수형 ‘나’가 아니라, 복수형 ‘우리’의 표현을 사용하셨고,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셨다(마태복음28:19, 고린도후서13:13). 그의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아니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

125) Bruce Demarest, “영성 형성의 토대로서의 삼위일체,” *제자도와 영성 형성*, 홍병룡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268.

126) Demarest, “영성 형성의 토대,” 268.

127) Keith J. Matthews, “영적 변화의 과정,” *제자도와 영성 형성*, 홍병룡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120.

자 예수님의 놀라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동체적 사건이 되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열방 위에 높이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은혜를 역사 속에서 실체화 시키시고 계시는 공동체적 역사이다.

‘개별적 존재’가 아닌 ‘연합된 하나’ 즉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존재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은 십자가 사건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며, 의지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인내, 양보, 상호 존중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며, 삼위 하나님의 서로의 생각과 의지가 침투되고, 각각의 생각과 의지를 주고받음으로써 순환되는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적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sup>128)</sup>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물리적인 일치(conformity)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 실재가 함께 모여서 인격적 연합(personal unity)을 이루고 계시는 것이며, 이 내용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족적 공동체로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129)</sup>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타내야 할 공동체성도 바로 그러한 사랑에 기초한 상호의존적, 관계적 공동체성 이어야 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역시 관계성이 강하게 표현되는 가족공동체 목회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나. 구약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삼위일체 공동체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공동체적 개념에 따라서 복수의 인간을 창조하셨고, 부부로서의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의 원형을 만들어 주셨으며, 공동체적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에도 공동체성을 강조하셨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아브라함의 가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염두에 두셨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요단강 반대편 다른 장소에 거처

128)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서울: 킹덤박스, 2013), 247-249.

129) 권문상, “한국교회 연합과 ‘가족’신학,” *성경과 신학* 57 (2011), 178.

를 정할 것을 요구했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먼저 감당한 후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하였는데(수1:12-18),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족적 실존의 대표성을 띤 자들로 훈련을 받았으므로 형제적 의식이 기본적인 인간관계요, 사회적 존재 양식으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sup>130)</sup> 그 좋은 예로 다윗 왕마저도 자기 백성을 ‘형제’라고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모습은 고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절대적 군주가 자기 백성을 형제로 부른 사례가 없는 것을 본다면 다윗의 이러한 형제적 의식은 매우 놀라운 것이다.<sup>131)</sup>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인 삶을 살도록 ‘가족’개념을 적용한 ‘형제’개념을 도입하셨는데, ‘형제’라는 호칭은 가족적 친밀성이 돋보이게 하는 단어로서, 친숙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포함해 호칭하였으며, 이 외에도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형제 의식, 가족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도록 구체화 하셨음을 알 수 있다.<sup>132)</sup>

그러나 인간의 범죄는 이러한 공동체성을 파괴하고, 개인 중심적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결국 공동의 유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곧 공동체성의 회복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 다. 신약에 나타난 교회 공동체

신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도 공동체의 성격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지역성을 넘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보다 강하게 구체화되어 나타난 것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였다. 더 이상 지역, 혈통, 성별, 사회적 신분 그 어느 것에 의해서도 차별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그의 서신서 여러 곳에서 강조하면서 개방형 공동체를 보여주고 있다(로마서12:5, 갈라디아서 3:28, 고린도전서 12:27 등) 권문상은 신약의 공동체성을 가족적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 수평적 공동

130) 권문상, “한국교회 연합,” 174.

131) 권문상, “한국교회 연합,” 174.

132)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18-221.

체라고 특징지어 설명하였다.<sup>133)</sup> 먼저 가족적 공동체라 함은 교회 안의 성도들을 실제의 한 가족의 구성원처럼 인식하고, 가족으로서 나누어야 하는 사랑의 개념위에서 서로 수고하며, 섬길 것을 강조하였다는 것이다. 유기적 공동체라 함은 바울이 교회를 사람의 몸의 비유를 통해 설명하였듯이 구성원들의 독특한 주체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성을 전제로 하나가 되며, 상호의존성, 상호 협력성을 살리면서 유기체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이다. 수평적 공동체라 함은 그 어떠한 차별적 구분 없이 구성원들 간에 인격적으로 상호 평등하고, 상호 간에 위계적 리더십이 아닌 섬김의 리더십의 질서가 갖추어져서 더욱 역동성을 나타내는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초대교회의 가족 공동체 성격은 심지어 공동가족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로 그들은 모든 특권, 책임, 보상과 함께 진정한 관계가 발전했고, 이렇게 강화된 가족 개념에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 물질적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실제 가족으로서의 모든 삶의 관계들을 함께 했음을 보여준다.<sup>134)</sup>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 당시의 가족공동체가 공동가족이라고까지 부를 수 있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심의 과정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역할을 대신해주기도 하였고, 상처 받고 훼손된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었다.<sup>135)</sup>

이와 같이 신약 초대교회 가족공동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인 동시에, 성도들이 안고 있는 시대적, 상황적 삶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다.

## 2. 가정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과 기능에 적합하려면 그 공동체의 성격은 가족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권문상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33)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24-233.

134) Robert Banks and Julia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52.

135) Banks and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53.



성경적 공동체의 키워드는 바로 가족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가 아닌 둘, 그것도 부부로 창조하셨다는 것에서, 또한 이스라엘을 한 가족 공동체로 훈련시키셨던 역사에서, 그리고 신약의 코이노니아를 통해 형제애적 가족 구조 형태를 만들어 주셨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때 가족 공동체는 유교적 폐쇄적 가족주의가 아닌 개방적 가족주의 구조를 갖는다.<sup>136)</sup>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한국 문화의 중요한 배경으로서 한국교회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유교적 폐쇄적 가족주의의 문제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며, 사랑의 관계성에 기초한 개방적 가족주의 구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가. 한국교회의 유교적 폐쇄성과 제반 문제 극복을 위한 과제

교회는 항상 그가 속한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에게 종교를 묻는 질문에 유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2% 정도에 불과하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영향을 받는 비중은 매우 커서, 명절 때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차례 등을 목적으로 고향을 찾게 되고, 그 외에도 사회 각 영역의 삶에서 유교는 엄밀히 종교적 특성이 아니면서도 오히려 종교적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37)</sup> 우리가 유교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은 수직적인 상하관계 중시, 남성 중심의 문화, 가부장제적 인습, 제사 제도, 권위주의, 가족 중심주의, 집단주의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성들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적인 통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평등성, 역동성, 합리성, 창의성 등을 크게 저하시키는 것들이다.<sup>138)</sup>

이와 같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바탕은 바로 유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현세 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전통종교와 결합된 유교사상으로서 이 유교사상은 폐쇄주의적 가족주의, 유교적 집단주의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유교적 가족주의는 정과 연의 문화와 연결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라는 공동의식을 통하여 매우 견고한 친화력과 결

136)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05.

137)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7), 109, 233.

138) 최준식, *한국의 종교*, 94-96.

속력을 보이지만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무관심하거나 지나친 경쟁, 배타적 구조를 가지고 공공성의 배양과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이다.<sup>139)</sup>

이로 인해 개교회주의, 분파주의, 권위주의, 성장주의, 파벌주의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개교회주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가치관의 중심이 지극히 개교회로만 집중되어서,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과 역할 및 하나님 나라 전체를 바라보지 못한 채 개교회의 외형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잘못을 보여 왔으며, 이로 인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교회주의가 된 이유 중에는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성숙의 분리 개념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신앙과 세상을 지나치게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문제를 안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우주와 사회 속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sup>140)</sup>

이 외에도 한국 전통신앙에 기초한 기복신앙이 유교에 접목되고,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주게 됨으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극히 현세적, 물질적 가치로 대체하였으며, 하나님을 우리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기복신앙과 성숙의 잘못된 이분법적 사고 및 유교식 폐쇄적 가족주의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그 신앙의 역동성을 교회 내부로만 제한시키며, 하나님 나라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시킴으로 인해 건강한 공동체의 성격을 상당히 훼손시켜 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도덕성 회복을 통해 사회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족주의의 특성을 잘 활용하되, 하나님 사랑에 기초한 성경적 개방성을 접목한 개방적 가족공동체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나. 가정교회의 핵심가치

가족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한 목회구조로서 우리가 폐쇄적 가족주의를 극복하고 개방적 가족주의가 되기 위해서 필자는 가정교회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139)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75-76.

140) 이학준, *한국교회*, 87.

본다. 왜냐하면 가정교회는 21세기에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신약 초대교회에서 발견되어지는 교회구조로서 성경이 제시하는 공동체로서의 의미를 매우 잘 담고 있으며, 그 본질적 의미가 21세기의 목회환경에서 더욱 새롭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가정교회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규정하면서 볼프강 짐존(Wolfgang Simson)의 설명을 참고하고자 한다. 짐존에 의하면 가정교회는 일반 가정 안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공동체적으로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한 방식으로서, 제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유기적인 방식인데,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따라 공동체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자신의 삶과 자원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공유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sup>141)</sup> 가정교회의 의미에 있어서 모임의 장소가 가정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구성원 서로에 대한 보살핌과 책임감인데, 그들은 확장된 그리스도인 가족으로서 모든 영적 활동과 삶을 함께 나누며, 이러한 관계는 더욱 확대되어서 이웃과 직장, 사회 등 더 넓은 범위의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개별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선교사역에 참여한다는 것이다.<sup>142)</sup> 계속해서 짐존은 가정교회가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구조에 비해서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sup>143)</sup> 짐존에 의하면 가정교회는 제자화를 통한 배가와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외부의 압력과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규모가 커지더라도 목회의 질이 손상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의 삶에 대한 깊은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가능하고, 새로운 그리스도인들도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으며,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을 극복한 가운데 성경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에 근거하여 상호 동등성과 상호 의존적인 유기체성을 나타내고, 사랑 안에서 강한 친밀성을 강조하며, 권위주의적 수직구조가 아니라 섬김의 수평적 구조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141) Wolfgang Simson, *가정교회*,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141.

142) Banks and Banks, *교회, 또 하나의 가족*, 22-23.

143) Simson, *가정교회*, 81-89.

오직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두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한다. 초대교회 당시 가정교회는 각 가정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우선 당시 종교적 자유가 완전하지 않아서 온갖 박해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필요했고, 또 다른 문화적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높은 친밀성을 가능케 하는 가정 중심의 종교행사 문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다.<sup>144)</sup>

가정교회는 세 가지의 축과 네 가지의 기둥이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다. 가정교회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 준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의 설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145)</sup>

먼저 가정교회의 세 가지 축은 목장 모임, 삶 공부, 주일 연합예배이다. 목장 모임은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진솔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통하여 인간의 정적인 부분을 다루고, 삶 공부는 복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앙의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다루며, 주일 연합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결심을 하게 만드는 인간의 의지적 부분을 완성시켜 준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가정교회의 네 기둥은 교회의 존재 목적, 보여주는 제자훈련, 성경적인 교회사역 분담, 종의 리더십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근본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고, 보여주는 제자훈련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식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삶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이며, 교회사역 분담은 평신도와 성직자간의 종래의 잘못된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목사는 성도를 구비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사역을, 성도는 목양과 교회 세우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종의 리더십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은 권위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종의 리더십인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목회자들은 평신도를 사역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목회자가 평신도를 성공시켜 주는 도구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정교회의 이러한 특징들이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의 목회구조와

144)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58-259.

145)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서울: 두란노, 2015), 66-89.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구역과 순모임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정교회가 기존의 구역과 다른 점을 몇 가지 차원에서 구별할 수 있다.<sup>146)</sup> 우선 조직 방법 면에 있어서 구역은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묶어 타의에 의해 조직되지만, 가정교회는 지역을 초월하여 각자의 동질성을 따라 모이며, 그 구성도 회원(목원)들의 선택에 의해서 조직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차이점이 있다면 구역은 주로 관리 차원의 성격이 크고, 친교와 서로의 도움 정도의 모임이라면, 가정교회는 예배, 성경 공부, 제자훈련, 선교, 전도, 친교 등 교회의 기능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회원(목원) 상호간의 실질적인 관계 사역이 주 활동을 이룬다는 것이다. 또한 개념상으로 볼 때 구역은 교회 부속기관의 성격이라면, 가정교회는 그 자체가 곧 교회이다.

가정교회와 순모임의 차이를 본다면, 순모임은 성경공부에 의한 제자훈련의 모임으로서 성경공부가 주된 활동이라고 할 때 가정교회의 주된 활동은 성경공부가 아니고 삶의 나눔이며, 구성원으로 볼 때 순모임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로 구성된다면, 가정교회는 비신자들이 대상이므로, 비신자들을 고려하여 QT나눔이나 깊은 성경공부를 지양해야 한다고 한다.<sup>147)</sup>

#### 다. 가정교회를 통해 기대되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짐준이 기존의 전통적 교회보다 가정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언급하였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성도 간에 매우 깊은 친밀함과 사랑 속에서 상호 의존, 상호 존중,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면의 깊은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영적인 힘을 함께 나눔으로써 내적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에 매우 좋은 구조이다. 현대가 될수록 사람들은 고립주의, 홀로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체성을 더욱 찾게 된다. 앞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을 다루며 나타난 사실이지만, 포스트모던 시대 사람들은 그 무엇에도 구속 받기를 원치 않는 동시에 자발적이고 의미 있

146) 최영기,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7), 20.

147) 최영기,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70.

는 관계성을 열렬히 추구하기에 가상공간에서까지 강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교회의 또 다른 유익은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모두 예외 없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목회자 중심의 구조에서 대부분 방관자로 내몰렸던 평신도들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은사를 계발하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소그룹 모임에서조차 모임을 위한 각자의 사역(말씀, 찬양, 기도, 선교, 음식 준비 등)을 나누어서 분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신도들이 무력화되지 않고 모두가 각자의 은사대로 사역을 한다는 것은 평신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교회 구조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자유롭고 충만하게 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sup>148)</sup>

가정교회의 또 다른 유익함은 영혼 구원과 제자훈련에 더욱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기존의 구역이 관리차원의 성격이었다면, 가정교회의 소그룹은 비신자들이 부담 없이 참석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동시에, 제자훈련의 실제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안고 있는 삶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상호간에 실제적인 유익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과, 제자훈련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섬김을 통한 보고 배움의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 3. 가족공동체 목회

가정교회가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적합한 모델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더 고려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을 다루고자 한다.

#### 가. 가정교회 한계성 극복을 위한 과제

가정교회의 목회구조가 신약의 초대교회로부터 그 근거를 갖고 있기에 매

---

148) 최영기, *구역조직*, 30.

우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려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신학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교회론적인 차원에서 가정교회의 독립성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교회의 유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며, 지도자가 없는 완전 평등 구조의 문제점은 어떻게 될지 해결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그 역할에 있어서 예를 들어 성례 집행 같은 것까지 허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가정교회 내에서도 각각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보다 급진적인 가정교회는 가정교회를 완전한 독립교회로 보고 평신도 목자가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성찬이나 세례를 베풀 수도 있다고 보는 반면에, 또 다른 가정교회에서는 가정교회의 특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조직으로서의 기존교회의 붕괴가 없고, 기존교회 구조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sup>149)</sup> 이러한 맥락에서 홍성철은 주장하기를 사도 바울은 소그룹 가정교회가 집에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회는 지역교회에 속하여 함께 연합되기를 원했으며, 지역교회 안에 있던 가정 모임들이 서로 연합하고 유기적 관계를 맺도록 머리와 몸의 비유를 들어 서로 불가결의 관계임을 강조했다고 하였다.<sup>150)</sup> 우리는 교회 구조에 대해서 본질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상황적 특성에 유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지만,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제자가 되라는 요구를 받지 않고 있음을 인정한다면, 교회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했던 하워드 스나이더의 주장에 공감이 간다.<sup>151)</sup>

문화적 요인에 대해서는 현대 한국 사회 가정의 구조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과 가정에서의 신앙 활동이 주변으로부터 소음공해를 비롯해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가정을 개방하기를 기피하는 시대상황적 요인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잦은 이동성으로 인해 모임의 지속성이 방해 받기 쉽고, 야근 또는 개인적인 활동들로 인해 늦도록 이어지는 밤 문화 역시 사람들이 가정교회

149) 이문식,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회와 신학* 221 (2007년 11월), 64.

150) 홍성철,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와 가정교회,” *목회와 신학* 221 (2007년 11월), 84.

151) Howard A.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the King)*,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7), 199.

에 더욱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가정교회의 문화는 개인주의가 더욱 발달한 서구사회에 더 적합한 여러 이유들이 있다. 서구사회는 개인주의의 긍정적 결과로서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도 마음을 여는 개방적 분위기와 대화 토론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다. 또 집의 구조면에서도 서구에 많이 있는 마당과 뜰이 있는 넓은 구조는 훨씬 유리하다. 그러므로 이런 장소적, 문화적 상황을 잘 고려해야 부담을 줄이면서도 본질적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나. 가족공동체 목회의 발전적 방향

신약 초대교회의 가정교회적 형식과 개방형 가족공동체적 본질 및 우리의 가족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대안적 목회구조를 찾고 있는데, 권문상은 이것을 ‘가족교회’라고 호칭하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목회구조상의 적합성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sup>152)</sup> 첫째는 공간적, 문화적 의미에서 한국 집의 구조상 또한 가정을 공개하기를 기피하는 현대의 특성상 굳이 가정에서의 모임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이를 위한 대안으로서 교회에서의 모임을 창의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휘적 의미에서 ‘가정’이란 단어는 장소적, 혈연적 개념이 중시되는 것에 비해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혈연적, 지연적 개념을 초월하는 사회적 개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가족’은 생활공간에 관계없이 공동체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게 해준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가족을 나타내는 단어(형제, 자매, 아버지, 자녀 등)들을 매우 많이 사용하였다. 셋째로 목회 구조면에서 가정교회가 지도자 없는 완전한 평등구조를 지향하는 것에 비해서, 가족교회는 수평적 섬김의 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지도자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예로서 사도 바울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형제 관계, 동역자의식을 가지면서도 가르치는 지도적 위치를 위해서는 권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서구의 가정교회는 소수의 가정으로 구성된 완전한 교회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가족교회는 기존 교회 안에서 소수의 가정이 자발적으로

152)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68-272, 279.



분화되어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교회의 지도 체제와 수평적 구도 속에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필자도 이러한 가족교회의 개념에 동의하며, ‘가족교회’의 개념이 ‘가정교회’의 개념보다 한국 교회에 훨씬 부담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가족공동체 목회’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왜냐하면 아직 용어상의 정리를 위해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자 하는 것이다. 용어의 문제는 그 성격 규정과 대외적인 관계에서 중요하다. 한 예로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의 가정교회 사명 선언문에 의하면 가정교회의 정신과 방법론에 대해 동의하고 회원이 되고자 한다면 동질감의 차원에서 그 교회에서는 ‘가정교회’, ‘목장’, ‘목자(목녀)’의 호칭을 반드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153)</sup> 이 부분에 있어서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정말 성경적이고 더 많은 교회가 이 물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혹 시라도 용어로 인한 거부감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목장 문화가 아직 낯설고, ‘목녀’같은 용어는 어감 상으로도 부담스럽게 여겨질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제 2 절 양육과 훈련

가족공동체 목회가 본래의 기능대로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본 토양화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곧 공동체 의식 강화와 함께 훈련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하고,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재구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 여기서는 양육과 훈련을 다루며 특히 제자훈련을 강조하려고 한다.

153)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121.

## 1. 양육과 훈련의 필요성과 내용들

### 가. 양육과 훈련의 필요성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기에 힘썼고, 예수님도 때와 장소에 상관 없이 때로는 소수를, 때로는 대중을 가르치셨으며,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명령도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속적 메시지는 선포를 통해 전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적 계시의 어떤 내용은 설교보다는 가르침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sup>154)</sup>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랜 동안, 천천히, 때로는 고통스러운 교육적 과정을 거쳐 양성되는데,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성령님 자신이 선생이시며, 성령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언제나 교육적 과정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sup>155)</sup>

양육이란 말은 다른 말로 구비(equipment)시킨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부르신 이들을 한데 모으고, 명하신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sup>156)</sup> 필자는 본 논문 2장 4절에서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것의 중요성과 내용을 다루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성도들은 구비되지 않고는 온전해 질 수 없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성품을 이루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계발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비되는 것은 목회자에게서만이 아니라 평신도 간에도 서로 구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구비되어야 할 내용이 교회생활에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회 활동 중의 하나는 바로 평신도 훈련이고, 목회자는 평신도 훈련을 위하여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sup>157)</sup> 잘 훈련된 평신도는 그에게

154) Howard P. Colson and Raymond M. Rigdon, *교회 커리큘럼의 이해 (Understanding Your Church's Curriculum)*, 김희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2), 16.

155) Colson and Rigdon, *교회 커리큘럼의 이해*, 19.

156) Sweet, *영성과 감성*, 272.

157)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197.

주어진 은사와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하여 헌신할 것이며,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감당해 낼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도 사람을 만들고, 세우는 일에 중점을 두셨다. 성도를 양육하고 훈련하여 부름 받은 사역자로 구비시키기 위해서는 인격적인 면과 실천적인 면이 모두 필요하다. 에베소서4:11-12의 말씀처럼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모두 필요한데, 그 순서도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sup>158)</sup>

평신도 교육에 대한 강조점은 특히 청교도들에게서도 매우 중요시 되었다. 청교도들은 개인 성경공부, 대중 교육, 대중 계몽운동을 주도하여 일반 민중이 모두 성경을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영성의 중요성, 삶에 교육이 끼치는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였는데, 그 이유는 깊은 성경 연구와 깊은 영적 체험 및 오랜 기독교 문화의 뿌리에 바탕을 둔 철저한 평신도 교육 없이는 만인제사장주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sup>159)</sup>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한 양육과 훈련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인정하게 된다.

#### 나. 양육과 훈련의 방향 및 내용

평신도를 교육시킴에 있어서 그 내용이 중요하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예배생활을 일깨우며, 공동체 생활을 훈련하였다. 이처럼 교회의 양육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영성과 교회 생활에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복음의 공적 차원을 강조하여 사회 각 영역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길러내는 커리큘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개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교회 내의 일꾼을 양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sup>160)</sup> 같은 맥락에서 이석철은 기독교 성인교육은 일반적인 성인교육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차원과 조직체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이 모두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평신도 교육이

158)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196.

159) 이학준, *한국교회*, 172-173.

160) 이학준, *한국교회*, 200-201.

가져야 할 세 가지 초점을 주장하였는데, 그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161)</sup>

기독교 성인 교육은 첫째로 전인적인 성숙에 기본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성도를 온전케 구비시키는 사역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근거한 성숙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것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전 존재를 포괄하는 의미이고, 지, 정, 의 모두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정신세계에서의 성숙한 영성을 함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 대체적으로 한국교회는 교인들에 대한 공급과 양육보다는 봉사자로서 활용하려는 측면이 더 강하게 보였는데, 그로 말미암아 ‘인격 공동체의 성숙’이 아닌 ‘종교집단의 성장’에 치중해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제는 개인과 전체의 균형 속에서 성장모드에서 성숙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로 평신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대내외적 봉사를 균형 있게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기독교 성인교육의 바람직한 목적은 기독교 메시지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시대와 사회 및 문화적 상황과의 관련성과 적합성을 갖도록 설정해야 하는데, ‘제자직’(discipleship)과 ‘시민직’(citizenship)을 잘 발전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하나님 나라 구현의 책임을 잘 감당케 해야 한다.<sup>162)</sup>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필자는 평신도들을 양육해야 하는 내용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하워드 콜슨(Howard P. Colson)과 레이몬드 릭돈(Raymond M. Rigdon)의 주장에 의하면 오늘날은 영적 문맹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여러 연령층으로 구성된 다양한 그룹들에게 실시한 어느 조사에서 성경 지식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성경 지식이 매우 빈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sup>163)</sup>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훈련의 출발이다. 성경을 가르치되,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변화를 이루는 성경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 내용의 깊이와 방법적인 문제는 구성원들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교리와 신학을 가르쳐야 한다. 평신도들이 성경을 배우지만 말씀으로부터 확립해야 하는 신학적 정리는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체계화된 신학적 훈련이 되어야 복음의 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거짓 교훈

161) 이석철, *기독교 성인 사역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8), 77.

162) 이석철, *기독교 성인 사역론*, 78-83.

163) Colson and Rigdon, *교회 커리큘럼의 이해*, 21.

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으며, 더 깊은 단계로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는 목양의 은사가 훈련되어야 한다. 평신도들도 유기체적 공동체로서 모두가 서로를 돌봐야 하는 목양의 부르심이 있다. 이것을 위한 전문적인 목양 훈련이 필요하다. 물론 목양의 은사가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서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목양 훈련을 받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변화에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세상 사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데, 변하지 않는 복음을 변하는 세대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흐름과 문화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더욱 급격히 빨라지는 환경 속에서는 사회적 지식의 생명 주기도 매우 짧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훈련과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평신도 교육의 실제의 한 모습을 본 논문 마지막 장에서 ‘평신도 목회연구원’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제자훈련

필자는 본 논문 2장에서 평신도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다루었다. 평신도는 그 말의 본래 의미대로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머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가 되는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가시적인 교회의 90% 이상을 구성하는 평신도는 교회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인데, 이제까지 교회는 평신도를 관람객, 단골손님, 하인 정도로만 인식하고, 기껏해야 교회 조직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위 통상적인 활동의 범주 안에만 머물게 했으며, 그것도 극히 소수에게만 그런 역할이 주어지고, 나머지 대부분의 평신도는 그런 의식도 없이 지내왔다는 것이 문제이다.<sup>164)</sup>

평신도들이 부여 받은 은사를 계발하고,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앞에서 서술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양육과 훈

164)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44-46.

런 중에 제자훈련의 개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와 제자훈련의 실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가. 제자훈련의 근거 및 중요성

제자훈련의 성경적 근거를 든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훈련을 시키셨고, 마지막 지상명령(마태복음28:19-20)으로 부탁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고, 그들과 모든 삶과 사역을 함께 하시면서 친히 그들을 훈련시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섬김을 통한 본을 보이셨으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sup>165)</sup>

그동안 한국 교회는 물량주의의 영향 속에서 한 영혼의 가치와 가능성을 깊이 돌아보지 못하고 흘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다수의 무리를 이끄는 것 이전에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여 진정한 제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매우 균형적인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대중을 위한 설교와 개인적인 상담과 12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균형 있게 사용하셨다.<sup>166)</sup> 예수님은 대중을 상대하시기 보다는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수를 먼저 훈련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먼저 ‘제자’의 의미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하여 ‘제자도’의 의미를 살펴봐야 하는데, 옥한흠은 제자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제자도는 믿는 자의 삶이요, 걸어가야 할 과정이요, 끝까지 지향해야 할 목표요, 동시에 교회의 사역 자체인데, 제자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평신도의 모습이고, 마태복음28장에 기록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의 내용이라는 것이다.”<sup>167)</sup> 그는 이어서 교회 안으로 세속주의, 이단사상, 무속사상, 뉴에이지 운동, 불건전한 성령 운동, 형식주의, 도덕적 불감증 등이 거세게 흘러들어온 이유는 제자도로 훈련된 평신도의 벽이 없어서 교회가 막아내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sup>168)</sup>

165) 최중상, “신학적 관점에서 본 제자훈련,”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57-59.

166) Stott, *한 백성*, 88.

167)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22-123.

168)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24.

과연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라고 볼 수 있으며, 다만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제자의 삶의 수준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못한 부분을 향하여 계속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을 받는 것이 제자훈련인 것이다.<sup>169)</sup> 제자훈련을 받았으므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이기에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결코 그 누구도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기에, 끝없이 성숙하기 위한 노력이 중단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제자라는 개념 속에는 인격적 위탁자, 증인, 종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위탁자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맡기는 신뢰이고, 증인은 제자의 궁극적인 사명이며, 종은 섬기는 자의 자세로서 예수님이 그 모범이 되시는 것이다.<sup>170)</sup> 결국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부여받은 은혜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부단히 성숙의 과정을 지나가야 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자세로, 예수님이 맡기신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존 스토틀은 ‘제자’와 ‘그리스도인’ 두 단어를 구분하기를 두 단어가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은 공통점이지만, 제자라는 단어가 더 강력한 의미이면서 스승과 제자라는 특수한 관계의 의미를 포함한다고 하였다.<sup>171)</sup>

#### 나. 제자훈련의 실제

제자훈련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옥한흠은 그동안 제자훈련에 대한 여러 오해 가운데, 몇 가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sup>172)</sup> 첫째는 제자훈련이 성경공부라는 오해인데, 성경공부가 제자훈련을 위한 수단이지, 제자훈련 자체가 성경공부는 아니라고 하였다. 둘째는 제자훈련이 전도와 가르침에 유능한 평신도 기능인을 만드는 코스라는 오해에 대해서 제자훈련은 예수를 닮고 그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우

169)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38-139.

17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40-169.

171) Stott,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서울: IVP, 2013), 16.

172)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85-189.

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고, 진정한 제자훈련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잘못된 이분법적 성숙의 개념을 넘어서서 선교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제자훈련은 중산층 이상의 평신도에게만 가능하다는 오해에 대해서 제자훈련의 성패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린 것이지, 평신도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오해들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이 내용들이 제자훈련을 어떻게 실행할 지에 대해서 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의 중요성을 다루면서도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었지만, 제자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성도의 자아상을 확립하는 것인데,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각자의 왕,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인격적인 면과 사역적인 면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sup>173)</sup>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기도를 통하여 제자훈련의 목표를 보여주셨는데, 최종상은 이것을 교회 공동체 형성, 재생산을 위한 과송, 제자들의 온전함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sup>174)</sup> 교회 공동체 형성이란 것은 요한복음17:16의 내용처럼 세상에 있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새로운 생활 원리에 따라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다. 재생산을 위한 과송이란 요한복음17:20의 내용처럼 신앙공동체의 형성이 그 구성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여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제자들의 온전함이란 요한복음17:19의 내용처럼 제자들의 거룩한 삶 즉 바른 삶과 인격의 성숙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훈련의 목표는 오늘날 실행되는 제자훈련의 목표가 되기도 한다.

결국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인데, 존 스토틀(John R. W. Stott)는 그 닮는 내용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섬김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스도, 오래 참으신 그리스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75)</sup> 유사한 맥락을 다른 표현으로 빌 헐(Bill Hull)은

17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192.

174) 최종상, “신학적 관점,” 60-63.

175) Stott, *제자도*, 38-42.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것의 의미는 변화된 마음, 변화된 인격, 변화된 관계, 변화된 습관, 변화된 섬김, 변화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176)</sup> 즉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서 삶의 전 영역에서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키이쓰 매튜즈(Keith J. Matthews)는 회심적 복음과 제자 중심적 복음을 구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회심적 복음의 질문은 ‘당신이 만일 오늘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구원을 실현해 줄 중대한 사건에 초점을 둔 반면, 제자 중심적 복음에서의 질문은 ‘당신이 만일 영원히 살 것임을 알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sup>177)</sup>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 과정이 곧 제자의 삶이라면 그 제자의 삶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가장 큰 부르심이요, 제일 소명이 되는 것인데, 그 삶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삶의 전 영역에서,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은사와 성격, 모든 주변 상황들은 이 제자됨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sup>178)</sup>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자의 삶은 평생 지속되는 변화의 과정인데, 삶의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며, 이웃과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고, 그들의 삶을 실제로 돕는 내용이 변화될 때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79)</sup>

다음으로 제자훈련을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여기에서 선교단체의 전유물처럼 여기던 제자훈련을 기존 교회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성경적 목회방법으로 정착시켰다고 볼 수 있는 옥한흠의 주장을 중심으로 다른 학자들의 의견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176) Bill Hull, *온전한 제자도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160.

177) Keith J. Matthews, “영적 변화의 과정,” 105-106.

178) Mark Labberton, *제일소명 (The Crisis and Promise of Following Jesus Today)*,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57.

179) Labberton, *제일소명*, 58.

제자훈련을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서 첫째로 지도자는 이 제자훈련 방법이 에베소서 4장에 표현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과정’에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둘째는 지도자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지도자가 가르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르침에 필요한 은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대중에게는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셨으며, 개인에게는 상담하셨다는 설명은 우리가 상대에 따라서 가르침의 다양한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sup>180)</sup> 넷째는 제자훈련의 내용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도자의 모범, 제자들의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sup>181)</sup> 다섯째는 제자훈련을 위한 환경은 철저히 소그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효율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변화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제자훈련에서 말씀을 다루고 삶을 나누는 과정에서 귀납적 방법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 귀납적 방법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지식 보다는 인격의 변화를 더욱 가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리한 제자훈련의 원리들은 근본적인 원리로서 기능적인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가장 중요하게 명령하셨던 것으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내용이 아니라 당연히 본질적으로 실행해야 할 훈련이다. 그리고 제자훈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함께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결국 그 목적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는 사명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다.

### 제 3 절 소그룹활동

평신도가 사역의 주체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가족 공동체 목회 구조를 효과적으로 실현하며, 제자훈련을 비롯한 적절한 양육이 가능하려면 그 목회 구조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이제 그 소그룹의 기능과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80)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200.

181) 최종상, “신학적 관점,” 57-59.

## 1. 소그룹의 필요성과 기능

오늘날 교회사역이 평신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평신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사역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소그룹의 재발견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하여 영적 성장과 영적 교제와 섬김과 전도를 통한 사역의 경험들을 목회자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가능할 수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은 그리스도의 몸인 유기체적 교회의 축소판이라고 말한 그레그 옥덴의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82)</sup>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하여 더욱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며, 그 안에서 성경공부, 중보기도, 이웃 관계 전도 및 모든 사역들을 더욱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또한 크리스티안 A. 슈바르츠 (Christian A. Schwarz)도 그의 저서 ‘자연적 교회성장’에서 설명하기를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 중 많은 부분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회가 커질수록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그룹이라고 하였다.<sup>183)</sup> 소그룹은 성도들이 자신의 사역을 하는 동시에 상호 관계를 통하여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특수한 조직이기도 하다.<sup>184)</sup>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도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의 정신이 교회 안에서 실재하려면 교회 구조는 개인을 위한 여지 즉 인간이 책임 있는 개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직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교회 구조는 융통성과 다양성이 있어야 하며, 교회 구조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하고, 교회 구조는 성령의 다양하신 영적 은사 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조건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시대의 중요한 목회구조는 소그룹인 것을 알게 된다고 강조하였다.<sup>185)</sup> 그는 이어서 소그룹은 현대 세속 도시 사회 속에서 복음의 교제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구조이며, 이러한 소그룹의 활동들이 오늘날 기존의 전통적인 교회 예배, 제도적 교회 프로그램, 대중 방송 매체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교회의 사명에 알맞은 것이고, 교회 내의 은사의 발견과 사용에 대해서도 최대의 희망을 제공하

182) Ogden, *새로운 교회*, 26.

183) Schwarz, *자연적 교회성장*, 33.

184) Stevens,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96.

185) Howard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he Problem of Wine Skins)*,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140-145.

여 준다고 말했다.<sup>186)</sup>

한편 빌 도나휴(Bill Donahue)와 러스 로빈슨(Russ Robinson)은 성경을근거로 한 진정한 공동체는 네 가지 축복을 제공해준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삶의 폭풍우를 헤쳐 나갈 힘을 얻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며, 영적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상호책임’을 경험하고, 우리의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용납’을 발견한다는 것이다.<sup>187)</sup> 그 내용들을 요약 설명하면 첫째로 ‘힘’은 전도서4:9-10의 내용처럼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다가오는 환난이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극복할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혜’는 잠언15:22의 내용처럼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적절한 공동체가 많을수록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상호책임’은 잠언27:17의 내용처럼 삶이 변화되고, 영적 성장을 이루며, 위기 시에도 상호 교제와 역할을 통해서 지탱해 줄 수 있는 유익을 얻는 것이다. 넷째로 ‘용납’은 돌봄과도 연결되는데, 잠언18:24의 내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진정한 용납과 우정과 돌봄의 관계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소그룹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은 사랑의 돌봄과 성령을 통한 영적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하여 서로의 소속감과 감정적 친밀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적절한 안내를 받으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분위기 속에서 영적 성장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성도들은 소그룹을 통하여 여러 가지 기능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전도와 새 가족 정착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고, 서로 돌볼 수 있는 사역이 가능하며, 상호 관계 속에서 각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하나 된 힘으로 더 큰 섬김의 기회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sup>188)</sup>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소그룹의 구조는 평신도들이 잃어버렸던 사역을 되

186) Snyder,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159.

187) Bill Donahue and Russ Robinson,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57-58.

188)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목회컨설팅*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42-43.

찾고, 그리스도의 몸 된 유기체적 교회에서 지체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꼭 필요하며, 그것이 가능하도록 평신도를 구비시키고 성도들 상호간에 깊은 교제를 갖는 일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구조임을 강조하게 된다.

## 2. 소그룹의 실제

소그룹이 실질적으로 운영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하여 필요한 핵심 요소와 운영 원리 및 전체 교회와의 연결성과 종류 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 가. 네 가지 핵심 요소와 운영 원리

건강한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핵심적인 네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양육, 예배, 공동체적 교제, 선교라고 할 수 있다.<sup>189)</sup> 이것은 건강하고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수 요소이기도 한데, 몸의 건강은 그 구성요소인 세포의 건강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각 지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영적 건강이 그래도 공동체의 건강이 되기 때문이다. 양육이란 것은 지성과 심령 양 측면에서의 성장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도구들을 다 사용하시지만, 특별히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의 경배인데, 진정한 예배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있다. 공동체적 교제는 단순한 소속감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결과로서 사랑 가운데서 연합하게 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 선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유기체적인 몸으로서 세상의 사람들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인데, 선교의 개념에는 전도와 사회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은 각 교회에서 강조되는 비율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를 갖게 되는데, 균형을 갖출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이 요소들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에게 영향

189) Ron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IVP, 1992), 26-32.

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sup>190)</sup>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유기적으로 이루고 있듯이, 네 가지의 요소들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가 부족하면 결국 다른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못하고 약화되거나 변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역동적인 소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리들이 필요한가? 이에 대해서 채이석, 이상화는 8가지를 강조했다.<sup>191)</sup> 그 내용들 중에는 소그룹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인정해야 하고, 모든 잠재력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최고로 실현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협력과 나눔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이 필요하고, 내적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그룹은 열린 소그룹이 되어야 하고,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며, 영적인 정체성을 지향해야 하고, 풍성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들이다. 이 내용들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구성원 각자가 갖고 있는 잠재력 부분이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은 은사와 부르심과도 연결될 수 있다. 개인이 이미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공동체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라도 공동체 안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계발하고 사역하는 과정에서도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공동체의 중보 기도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부르심과 은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것도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며, 공동체적 하나님은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8가지의 원리들 중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 속에서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건물이나 시설 및 프로그램으로 사회를 압도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맛 볼 수 없는 진솔하고 인격적이며, 서로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만져줄 수 있는 공동체의 만족과 기쁨인 것이다.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인 동시에, 사회학적인 기쁨이 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소그룹 사역의 구조에 있어서 위임의 원리를 잘

190) Nicholas et al., *소그룹 운동*, 34-36.

191)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61-65.

활용하는 것이다. 건강한 소그룹 사역을 위해서는 주요한 지도자들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역할을 위임해야 한다. 그러나 종종 공동체 지도자들은 권위와 권력을 자신들 중심으로 집중시키려는 경향이 있다.<sup>192)</sup> 모세도 출애굽기 18장에서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기 까지 모든 사역이 본인에게 과도히 집중되도록 하였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탁하신 사역은 본래부터 모세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었다. 당시 바로를 중심으로 한 세상 권력은 통제와 압제를 통한 리더십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셨고, 그 리더십이 모세를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sup>193)</sup> 이러한 것은 신약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사도들에게 집중된 사역들이 집사들에게 위임되고, 계속 나누어짐으로서 거대조직에서는 전혀 사역을 감당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소그룹을 통하여 자신들의 역할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러스 아이스노글(Gareth W. Icenogle)이 소그룹 사역의 구조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구조 원리로서 지도력개발, 권한 부여의 과정, 그룹의 분명한 목적 설정, 행정적인 지원 구조 등을 역설한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sup>194)</sup>

아울러 위임의 원리는 돌봄의 범주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에도 연결된다.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되,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말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범위를 너무 크게 하지 말아야 실질적인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돌봄의 범주의 원리는 먼저 크고 복잡한 그룹을 보다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위들로 나눈 다음에 각각의 리더들에게 각각 돌봄의 범주를 지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sup>195)</sup> 다만 돌봄의 연계는 끊이지 않아야 하고, 모든 사람이 돌봄을 받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돌봄의 책임을 감당하는 상호보완적, 연계적이어야 한다.

192) Gareth W.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안영권, 김선일 공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113.

193)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114.

194) Icenogle,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121.

195) Bill Donahue and Russ Lobinson,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The Seven Deadly Sins of Small Group Ministry*),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70.

## 나. 소그룹과 전체 교회와의 관계

소그룹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그룹과 전체적 교회와의 연결구도가 중요하다. 소그룹이 전체 공동체와의 긴밀한 결합이 되어야 하고, 다른 소그룹과도 네트워크화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일 그렇지 않고 독립되어 있거나 계도를 벗어나 있으면 교회가 전체 몸으로서의 유기적 기능을 할 수 없을뿐더러 오히려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도 한 것이다.<sup>196)</sup> 이렇게 소그룹과 전체적 교회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분해 볼 때, 빌 도나휴(Bill Donahue)와 러스 로빈슨(Russ Lobinson)은 소그룹이 있는 교회, 소그룹 교회, 소그룹의 교회로 나누어 설명했다.<sup>197)</sup>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소그룹이 여러 부서 중의 하나 정도로 여겨지는 교회이며, 소그룹 참석은 선택 사항일 뿐이고, 전체 교회와의 연결 고리의 하나일 뿐이다. 이런 구조에서는 세력 다툼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며, 소그룹의 활발한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 소그룹 교회에서의 소그룹의 목적은 최소 형태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모델은 소그룹을 교회 생활의 핵심으로 보며, 전도, 예배, 성만찬, 성경 공부 등 모든 활동이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그룹의 교회에서 소그룹의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인데, 이 모델은 소그룹의 네트워크가 곧 큰 공동체라고 본다. 그러므로 소그룹 개념이 교회의 모든 영역에 들어 있으며, 소그룹을 교회의 기본 구조라고 여긴다.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가족 공동체 목회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필자는 소그룹의 교회를 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소그룹이 있는 교회는 소그룹의 진정한 의미가 전혀 나타날 수 없는 구조이고, 소그룹 교회도 소그룹과 전체 교회와의 관계성이 신학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그룹의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지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믿음과 헌신의 단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핵심 교인(10%), 회중 교인(30%), 군중 교인(60%)이다.<sup>198)</sup> 핵심 교인은 헌신된 소수로서 교회와 지도자들의 역량을 전달하는 매개체와 같은 사람들이다. 회중 교인들은 나쁜

196) Snyder, *그리스도의 공동체*, 210.

197) Donahue and Robinson, *소그룹 사역*, 26-30.

198)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목회 컨설팅*, 26-28.



대로 성실하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그 외의 교회의 활동에도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들이다. 군중 교인은 일 년에 몇 차례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로서 자녀들의 교육 문제나 기타의 관계로 인해서 교회에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참석은 많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 외에도 교회 밖의 지역 주민들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도 소그룹을 통해 교회로 연결되어야 할 잠재적 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회들은 핵심 교인들에 의해서 거의 모든 주요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군중 교인은 아예 무시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나 소그룹은 이런 군중 교인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는 핵심 교인들 위주의 필요가 아니라, 군중 교인 및 잠재적 교인들인 지역 주민의 필요를 세심히 연구해서 소그룹을 구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소그룹의 생명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다. 양육과 관련된 실질적 운영지침

그렇다면 이제 소그룹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히 평신도들을 구비시켜야 하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보다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소그룹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서 운영 원리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데, 양육과 관련한 효과적 소그룹 운영을 위하여 톰 & 조아니 쉘츠(Thom & Joani Schultz)는 다음의 내용을 주장했다.

적은 양을 철저하게 다루라.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 이해를 추구하라. 좋은 질문들을 하라 생각할 시간을 할애하라. 암기와 강의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라. 활동 학습 방법을 사용하라. 모든 활동에 질문과 토론 발표하는 과정을 포함시키라. 배우는 사람들이 서로 가르치게 하라. 효과적인 교과 과정을 사용하라.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설교 방식을 만들라.<sup>199)</sup>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소그룹 활동은 많은 양의 지식을 넣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적은 양의 지식일지라도 그것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하는 것이며, 지식

199) Thom Schultz and Joani Schultz, *지루함을 깨뜨리는 가르침의 기술 (Why Nobody Learns Much of Anything at Church)*, 마영례 역 (서울: 디모데, 2000), 309.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통한 삶의 나눔과 적용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도 획일적인 방법은 안 되며, 구성원들이 각자 갖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 라. 소그룹의 종류와 과제

양육과 관련한 소그룹의 종류에 대해서 논의해본다. 소그룹은 그 목적이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 중심 그룹, 교제 중심 그룹, 변화 중심 그룹이다. 도나휴와 로빈슨의 주장을 따라 각각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200)</sup> 말씀 중심의 그룹은 성경공부나 교리공부 위주로 진행되는 소그룹으로서 이 그룹의 리더는 정답과 올바른 교리와 성경 지식을 성숙한 신앙의 기준으로 삼기에 지식 위주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시간이 주를 이룬다. 반면 교제 중심 그룹은 경험 위주로서 감정에 대한 응답들이 오가게 마련인데, 구성원들의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필요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서로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것인데, 이러다보니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약해진다. 이 두 가지를 대신해서 변화 중심 그룹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그룹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변화하는 것이다. 성경 지식이 어떠한든,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답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식과 삶이 연결되어야 하고, 하나님과 내가 동시에 연결되는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 이 변화 중심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돈된 마음이다. 결국 소그룹은 말씀 중심으로만 가셔도 안 되고, 교제 중심으로만 가셔도 안 되며,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한 변화 중심 그룹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려면 리더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구비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모든 소그룹이 다 성장하는 것은 아닌데, 소그룹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200) Donahue and Robinson, *소그룹 사역*, 114-120.

위해서는 그 초점을 재생산과 성장에 맞추어야 하고, 외부 지향적, 전도 중심적 이어야 한다. 만일 소그룹이 성장과 재생산의 목표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친교 모임으로 전략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교과잉증이 걸리지 않게 하려면 적어도 정기적으로 배가할 수 있는 목적의식을 붙여넣어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sup>201)</sup> 그리고 모든 일에 장점과 약점이 있듯이 소그룹도 그러한데, 권문상은 소그룹의 장점과 약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소그룹은 인간의 원초적 열망인 소속감을 갖게 하고, 믿음을 실제의 삶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실천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게 하며, 목사의 과도한 목회적 부담을 소그룹 리더들과 분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약할 수 있고, 영적 성장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보다는 개인의 욕구 충족에 집중할 수 있는 우려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02)</sup>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적인 이슈들을 소그룹의 리더나 구성원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 차원에서 그 내용과 방향들을 지원해주면 좋을 것이고 설교나 전체 모임 속에서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이슈는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결국 도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더 넓은 범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영적 성장보다 개인의 욕구 충족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소그룹 리더들을 향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 성장의 경험이 그 어떤 만족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4장을 통하여 건강한 평신도 사역을 위하여 꼭 강화되어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평신도들이 잘 구비되고, 유기적 관계 속에서 상호 간에 책임 있는 관계를 유지하며, 모두가 예외 없이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구조는 가족공동체 목회구조가 되어야 한다. 가족공동체의 개념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성경에 나타난 본질이며, 21세기의 복잡 다양한 사회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목회구조이다. 이것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 기본 토양화 작업이 필요한데, 양육과 훈련 및 소그룹의 활성화가 절대적이다. 양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201) 명성훈,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2), 231.

202)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280-281.

것으로서, 거기에는 인격적인 삶과 사역적인 부분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제자훈련이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제자훈련은 예수님이 직접 실행하셨고, 가장 중요하게 명령한 부분이기도 하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든, 양육과 훈련이든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그룹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소그룹 활동은 평신도들의 사역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성도들의 실질적인 만남도, 양육도, 사역도 소그룹을 통해서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 물론 소그룹은 전체 교회와의 긴밀한 연결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소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폭 넓은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더욱 결집된 힘으로 더 많은 비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그룹은 영적 성장과 재생산을 향한 초점을 잃지 말아야 그 생명력이 유지된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목회 현장의 사례를 찾아보고, 건강한 평신도 교육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 제 5 장

### 지역교회에서의 실제적 방법(할렐루야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는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성경의 본질에 입각하면서 현 시대의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구조를 살피고, 이를 위해 건강한 평신도 교육 전략을 위한 이론적 연구를 해왔다. 이러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실제 교회의 사례를 통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건강한 평신도 교육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분당 야탑동에 소재한 할렐루야교회의 양육 구조와 특별히 ‘평신도목회연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양육기관을 집중 다루고자 한다.

#### 제 1 절 할렐루야교회의 현재적 상황과 특성

할렐루야교회의 역사와 성도들의 지역적, 연령적, 공간적 특성을 살핌으로써 적절한 양육 대책 수립을 위한 준거를 강구하고자 한다.

##### 1. 할렐루야교회의 역사

할렐루야교회의 역사는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기는 창립당시를 기점으로 이종윤 목사가 담임목회를 하던 시기(1980.11.9.~1988.4.)이고, 2기는 김상복 목사가 담임목회를 하던 시기(1990. 6. 17.~2010. 1.)이며, 3기는 김승욱 목사가 담임목회를 하는 시기(2010.11.~ 2017. 현재)이다.

### 가. 1기 시대

할렐루야교회는 1980년 11월 9일 이종윤 목사와 최순영 집사(당시) 가족 8명을 중심으로 강남구 대치동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종윤 목사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 교수였으며, 1984년 12월 19일에는 전주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1기 시대는 전통적인 목회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후 1988년 4월 17일 이종윤 목사는 충현교회 청빙 관계로 사임하게 되었고, 이후 후임 담임목사를 물색하며 준비의 시간을 가졌다.

### 나. 2기 시대

미국에서 목회와 교수 활동을 하던 김상복 목사가 할렐루야교회의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청빙 절차는 1989년 10월 15일 공동의회에서 청빙을 가결하였고, 1990년 6월 17일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김상복 목사는 부임하면서 처음부터 평신도목회 신학을 목회의 중심으로 삼았고, 이를 위해 1991년 3월 6일 평신도목회연구원을 개설하였다.

대치동에서 진행되던 할렐루야교회의 목회활동이 협소한 공간 문제로 인해 1992년 4월 5일부터 양재동 햇빛회관으로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며, 이후 1993년 10월 31일 분당 야탑동에 새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리고, 1997년 10월 5일 분당 새 성전으로 입당을 하였다. 당시 건물 내부 전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고 일부만 완성되었으며, 이후 2004년 7월 25일 모든 공사를 마치고 분당 입당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김상복 목사는 부임 이후 줄곧 평신도목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평신도를 일으키고 구비시켜서 평신도 목회자화에 힘을 쏟았으며, ‘오늘의 양식’이라는 매일 묵상집을 발간하여 성도들의 영성 증진에도 남다른 노력을 보였다.<sup>203)</sup> 김상복 목사는 목회와 동시에 햇빛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창설하고 초대 총장을 맡으며 학문의 분야

203) 신표근, “목회자의 리더십이 교회성장에 미치는 영향: 할렐루야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98.

에도 힘을 기울였고, 선교를 위한 모든 활동에도 온 교회의 힘을 모아 동참하는 열의를 보이며, 각종 선교대회가 할렐루야교회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하였다. 북한 통일 사역에도 힘을 기울여 한기총 산하 북한교회재건사역도 담당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한을 향한 구제 사역과 교회 재건 사역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김상복 목사의 목회는 할렐루야교회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목회였고, 목회와 학문과 선교를 함께 이끌어가는 목회였다. 이후 김상복 목사는 2010년 1월 정년 은퇴와 함께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되었다.

#### 다. 3기 시대

김상복 목사의 뒤를 이어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목회하던 김승욱 목사가 할렐루야교회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10년 11월 취임하였다. 김승욱 목사는 부임하면서 전임 김상복 원로목사의 목회의 틀을 존중하면서도 제자훈련 시스템으로 교회의 변화를 이루어갔다. 평신도 목회 운동과 제자훈련이 언뜻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두 가지 모두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평신도가 교회의 중심인 동시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중추적 사역자임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차이점은 김상복 목사의 평신도 목회 운동은 제자훈련의 구조는 도입하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제자훈련을 하면서 자칫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경계하는 면이 있기도 했고, 제자화를 넘어서서 목회자화를 강조하는 면이 있기도 했다. 김상복 목사의 평신도목회 관련 부분은 본 논문 5장 1절과 3절에서 좀 더 깊이 다루고자 한다. 김승욱 목사의 부임과 동시에 새로 도입된 할렐루야교회 제자훈련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실행하는 제자훈련의 과정에 비해 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등 할렐루야교회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였다. 김승욱 목사는 이후 3세대가 함께 하는 교회영성을 강조하고, 청년과 다음 세대에 강조를 두었으며, 북한 선교와 통일을 포함한 디아스포라를 아우르는 ‘원코리아’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포함하여 연합의 도구가 되는 비전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다.

## 2. 할렐루야교회의 목회 철학

할렐루야교회의 목회 철학을 김상복 목사의 목회 철학과 김승욱 목사의 목회 철학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 가. 김상복 목사의 목회 철학

할렐루야교회의 2기 담임목사였던 김상복의 목회철학은 평신도 목회의 정신에 근거하여 3S를 추구하는 목회였다. 3S는 구원의 신앙(Salvation), 성화의 신앙(Sanctification), 섬김의 신앙(Service)의 영어단어 첫 글자를 따서 모은 것이다.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이 3S과정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목회의 지침은 예배, 전도, 훈련, 교제, 섬김 5가지로 두었고, 교회의 사명으로서 예배, 기도, 전도, 선교, 평신도 목회자 훈련, 교제, 나눔, 섬김을 정했다. 이것을 위한 전략으로서는 평신도 목회, 사랑방 교회, 3S 교육 이념을 구현하는 조직을 갖는 것, 소중한 가치(긍정적 믿음, 희망적 자세, 따뜻한 사랑)를 갖는 것에 두었다. 김상복 목사의 평신도목회 신학은 본 장 3절에서 더 서술하기로 한다.

특히 목회 비전(교회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신앙고백, 독립교회, 신앙공동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sup>204)</sup> 신앙고백은 “우리는 친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앙고백으로 삼고 전통적 복음주의 신앙을 따른다.”로 되어 있고, 독립교회 부분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일치와 연합을 도모하는 독립교회이다.”라고 되어 있다.<sup>205)</sup> 김상복 목사가 독립교회를 추구한 이유는 건전한 교단 운동이나 교파 운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편협한 교단주의의 역기능적인 요소를 우려하는 것과, 평신도목회를 보다 더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독립교회가 더 좋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힘써 지켜야 한다

204) *할렐루야교회요람* (성남: 할렐루야교회, 2009), 368.

205) 심상법, “김상복 목사의 생애와 사역과 신학,”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 CLC, 2011) 110-111.



는 것, 그리고 모든 교단과 자유롭게 교통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교회의 연합과 일치 추구하기 위한 것 등의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sup>206)</sup> 김상복 목사의 견해는 독립 교회가 자유로운 목회 환경에서 은사공동체로서의 교회, 평신도들을 구비시키고 목양의 사역을 비롯한 평신도 목회의 역할을 하기에 자연스러울 것임을 늘 강조해왔다. ‘평신도 목회’, ‘평신도 목회자’라는 용어 자체가 기존 교단에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상복 목사가 미국에서의 목회를 정리하고 한국에 귀국했을 당시부터 ‘평신도 목회’라는 단어가 논란의 소지가 된 부분도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평신도는 사역을 하는 것이지 목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목회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서도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평신도들은 신학 훈련도 받지 못해서 자격도 안 되고, 공연히 부담만 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sup>207)</sup> 그러나 김상복 목사는 굽히지 않고, 평신도목회라는 단어와 함께 그 철학을 이어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다루기로 한다. 목회 비전 중 세 번째인 신앙공동체는 균형 있는 신앙공동체, 평신도목회자 사역 공동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공동체, 지역사회를 섬기는 공동체, 한국 교회와 세계민족을 섬기는 공동체, 역사에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민족의 통일과 북한 복음화 포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나. 김승욱 목사의 목회 철학

할렐루야교회의 제3기 담임목사인 김승욱의 목회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존재목적은 “할렐루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한다.”이고, 이를 위한 핵심가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 기도과 금식, 양육과 훈련, 하나님 나라 등을 삼았으며, 비전으로서는 평신도를 일으키는 교회,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사회와 나라를 축복하는 교회, 다음 세대와 함께 선교하는 교회를 세웠고, 이것들을 위한 목회전략으로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3S(구

206) 김상복, *교회를 알면 신앙생활이 즐겁다* (서울: 도서출판MB, 2003), 121-123.

207) 김상복, “평신도의 은사 계발로 목회의 동역자를 만들라,” *월간목회* 369 (2007년 5월), 70-71.

원의 신앙, 성화의 신앙, 섬김의 신앙)의 신앙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중심으로 사랑방 사역, 훈련사역, 킹덤미션 사역을 추구한다.”라고 되어있다.<sup>208)</sup> 결국 김상복 목사의 3S 신앙을 유지하면서 훈련사역을 추가 하였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을 좀 더 강화 했으며, 그 후 남북한과 해외 디아스포라와 선교사를 포함하는 ‘원코리아(One Korea)’사역을 앞장서면서 ‘연합의 도구’로서의 비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sup>209)</sup>

### 3. 할렐루야교회의 구조적 특성

할렐루야교회의 지역별, 연령별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교회의 공간적 특성에 담겨진 목회 철학을 이해하며, 이에 따른 사역의 다양화도 다루고자 한다.

#### 가. 지역적 특성

할렐루야교회는 교인들의 지역 분포가 비교적 넓은 특성이 있다. 이런 이유는 교회가 설립될 당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시작하였고, 양재동과 분당(야탑동)으로 두 번이나 교회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일이기도 하다. 교회 초창기부터 출석하는 교인들은 지금도 다수가 대치동과 서울 강남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령층이 높은 편이다. 이들은 할렐루야교회 1대 담임목사인 이종윤 목사와 2대 담임목사인 김상복 목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특히 김상복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관계로 평신도목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한 평신도 교육을 비교적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8) <http://www.hcc.or.kr>.

209) <http://www.hcc.or.kr>.

<표 1> 교구별 지역과 특성

교 구	지 역	비 고
1교구	양재동, 논현동, 방배동, 서초동, 서울 강북, 경기 일산, 파주	강남 지역 일부와 강북 이상의 원거리지역
2교구	대치동, 도곡동, 역삼동, 삼성동	교회가 시작된 곳. 교회 경력과 연령이 높음.
3교구	개포동, 잠실, 송파동, 문정동, 천호동, 상계동, 의정부, 구리시	
4교구	성남 수정구, 중원구, 경기도 광주	상대적으로 경제적 취약지역, 새 가족이 많음
5교구	분당구 야탑동	교회 인근지역, 새 가족이 많고, 젊은 층이 많음
6교구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연령층이 골고루 혼합
7교구	분당구 서현동, 수내동, 분당동, 정자동 일부	분당신도시 최초개발지역
8교구	분당구 정자동 일부, 미금동, 수지, 죽전	서울에서 이주한 중장년층과 젊은 층 혼합
9교구	죽전 일부, 용인, 신갈, 구성, 오산, 평택 이하지역 포함	서울에서 이주한 중장년층 많고, 젊은 층도 혼합
10교구	판교, 수내동과 정자동 일부	새로 개발된 지역, 중장년층과 젊은 층이 혼합

위의 표1에서 볼 수 있듯이 교구 지역에 따라서 교인들의 연령층도 상이하거나  
와 신앙의 배경과 특성들도 서로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다. 분당 야탑동 현재 교회  
주변에 거주하는 교인들은 젊은 연령층이 많고, 신앙의 경력은 타 교구와 비교해서  
비교적 짧은 편이며, 자녀교육문제가 가장 절실한 현안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교  
회라 할지라도 지역과 특성에 따라서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전략이 달라야 한다.

## 나. 연령적 특성

할렐루야교회의 교인 구성 현황을 살피고, 연령구조에 따른 특성을 다루며, 이에 대한 전략을 다루고자 한다.

(1) 교인 세대수, 성도수 및 성도의 연령별 분포도(2016년 7월을 기준으로)

(가) 교회 전체 세대 수 : 6,287세대

(나) 교회 전체 성도 수 : 14,580명(20세 이상 : 12,258명)

(다) 성도의 남, 여 비율 : 남 6,863명(47%), 여 7,717명(53%)

(라) 성도의 연령별 분포

<표 2> 할렐루야 교회 성도의 연령별 인원 수, 2016년 7월 기준

연령	인원수(명)	남	여	비율(%)
19세 이하	2,322	1,137	1,185	16%
20-29세	1,679	798	881	12%
30-39세	2,397	1,164	1,233	17%
40-49세	2,738	1,257	1,481	18%
50-59세	2,052	921	1,131	14%
60-69세	1,796	867	929	12%
70-79세	1,153	546	607	7%
80세 이상	443	173	270	4%
합 계	14,580	6,863	7,717	100%

할렐루야교회의 남녀 구성 비율은 거의 1:1에 근접하고 있다. 보통 여성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에 비하여 남성의 수가 보통 평균치 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김상복 목사가 담임목회를 하던 2기 때부터의 현상이다. 이것은 매우 건강하고, 긍정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남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성들에 대한 전략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준다. 특히 남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체적 삶의 역할 강조와 이를 위한 구비전략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세대별로 인원 구성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다는 것이다. 4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중간층이 튼튼한 비교적 건강한 연령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2) 교구별 세대 수 및 인원 수

<표 3> 교구별 세대 수 및 인원 수, 2016년 7월 기준

교구	세대수	비율(%)	인원수(명)	비율(%)	20세이상교인	19세이하교인
1교구	725	12	1,537	10	1,337	200
2교구	402	7	993	7	887	106
3교구	505	8	1,279	9	1,094	185
4교구	829	13	1,830	13	1,512	318
5교구	758	12	1,651	11	1,391	260
6교구	597	9	1,467	10	1,209	258
7교구	570	9	1,427	10	1,140	287
8교구	440	7	1,116	8	930	186
9교구	654	10	1,627	11	1,321	306
10교구	328	5	851	6	674	177
기타	479	8	802	5	763	39
합계	6,287	100	14,580	100	12,258	2,322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교구별 인원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인원을 균등히 배분한 것이 아니고, 지역 중심으로 배분하다보니 지역에 따라서 교회와의 거리 관계, 성도들의 연령 관계, 기타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직분별 교인 수

&lt;표 4&gt; 할렐루야교회 직분별 인원수, 2016년 7월 기준

	성도	서리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30-39세	1,080	363			
40-49세	1,257	748			
50-59세	852	835	38	27	2
60-69세	486	653	334	121	19
70-79세	279	336	222	53	40
80세이상	240	97	33	2	6

위의 표4에서 볼 수 있듯이 할렐루야교회는 서리집사의 분포는 전 연령별로 균등하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권사, 안수집사, 장로의 비율은 60대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어서 매우 노령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에서 보았듯이 성도들의 전체 연령 구조는 비교적 건강하게 균등하게 되어 있음에 비해서, 항존직 직분자들의 연령이 매우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의 활동성과 역동성에 있어서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직분을 맡는 연령이 좀 더 이른 시기가 되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노령화된 직분자들의 재교육 내지는 목회 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 다. 공간적 특성

할렐루야교회는 공간적인 면에서도 성도들을 훈련하고 구비시키는데 있어서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할렐루야교회 건물은 김상복 목사의 담임목회 기간 중에 건축되었으므로, 김상복 목사의 목회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 건물은 전통적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기독교 종합 센터의 개념으로 미래 한국

교회의 목회와 기독교 문화를 집약한 건물로서 지역사회를 향해 활짝 열린 교회이고, 한국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공간이며, 성도들이 주일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건물이다.<sup>210)</sup>

예배와 각종 교육 활동을 위해서 유용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대지 4천평에 연건평 2만평 정도의 규모로서 3,500석의 예배당과 1,200석의 중간 예배당이 있고, 각종 소모임에 적당한 공간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성도들의 교제 기능으로서도 유용한 구조를 갖고 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실내 공간으로 되어 있다. 일단 건물에 들어오면 외부의 날씨에 관계없이 어떠한 행사도 가능하다. 또한 건물 중앙에는 커다란 홀이 있고, 주변으로 좌석을 비치한 공간들이 많아서 성도들이 각종 개인 교제를 갖기에 유용하다.

가족단위의 영성 훈련에도 유용한 구조를 갖고 있다. 건물 뒤편으로 500명 정도가 동시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요즘 같은 주5일 근무 체제에서 가족단위로 주말에 교회에 와서 숙박을 하며, 모처럼의 가족 단위의 시간을 갖기도 하며, 소그룹 단위의 영성 훈련들이 실시되고 있다.

지역을 섬김에 있어서도 유용한 구조가 있다. 기존의 시설들은 할렐루야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는 물론, 일반 지역 기관들도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것은 교회 건물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불신자들이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출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특히 교회 1층에 있는 체육관 시설은 주변 사람들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수도권에 존재하는 교회들의 연합행사로도 사용되고 있다.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한 유용함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예배당, 세미나실, 숙박시설 등은 웬만한 국제행사까지도 감당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어떠한 훈련과 구비 프로그램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김상복 목사의 21세기적 목회 개념이 반영된 것이고, 평신도 목회, 가족 공동체 목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목회, 세계 선교를 위해 사역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섬기는 교회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할렐루야교회 건축공사에

210) 김상복, *교회를 알면 신앙생활이 즐겁다*, 209.

따른 어떠한 금융적 채무 없이 김상복 목사가 은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도들과 김상복 목사의 목회 비전이 잘 소통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제 2 절 제자훈련과 각종 교육 내용

할렐루야교회가 평신도 양육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인 제자훈련과 각종 교육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본다.

### 1. 제자훈련

김승욱 목사가 할렐루야교회 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제자훈련의 실시였다. 김승욱 목사는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을 실시하였었다. 개척하는 교회나 소규모의 교회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가 쉽겠으나, 할렐루야교회 같이 대형교회에서 그것도 역사가 있고, 교인 연령층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교회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것도 제자훈련같이 기존 교회의 체질을 바꾸어야 하는 과정은 더욱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김승욱 목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고, 더구나 할렐루야 교회는 2대 담임 목사였던 김상복 목사를 통하여 평신도목회훈련을 잘 받은 기초가 있으므로 그 흐름을 무시하지 않았다. 제자훈련을 실시하되, 서울 사랑의교회나 미국 남가주 사랑의교회와 같이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내용을 압축하여, 새생명훈련을 16주 코스로, 새소명훈련을 8주 코스로 하였다. 짧게 한 이유 중이 하나는 기존의 중직자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사람들을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소화해 내기 위해서였다. 이미 중직자가 된 성도들도 다시 한 번 훈련에 임할 것을 강조하였고, 심지어 60대 후반의 직분자들도 성실하게 참여하게 되었다. 그 후 어느 정도 중직자들의 훈련 과정이 진행되었다고 판단되었고, 좀 더 깊은 차원의 내실이 필요해서 2014년도부터는 새생명훈련을 24주로, 새소명훈련을 16주로 기간을 늘려 운영하게 되었다. 새생명훈련을 수료하지 못하면 직분자 임명에 제한을 받게 되고, 새소명훈련을 수료하지 못하면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



### 가. 새생명훈련

(1) 지원 자격 : 본 교회 등록한 지 1년 이상 되고, 세례를 받은 지 1년 이상 되어야 하며, 사랑방 참석을 꾸준히 해야 한다. 연령은 30~65세로 제한하며, 사랑방장, 배우자, 담당 목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새생명훈련은 가정을 순회하며 실시하기에 가정을 공개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도 중요한 자격의 하나이다.

(2) 훈련자 : 국제 제자훈련원에서 진행하는 제자훈련세미나를 이수한 부목사들에 의해서 진행된다.

(3) 반 운영 : 각 반 마다 12명을 전후로 인원을 구성하며, 총 지원자들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반을 편성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편성한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동일한 계층의 연령 집단이 보다 깊은 대화와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 연령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4) 훈련 내용 : 매 시간마다 주제 성구 암송이 있고, 예습, 복습이 철저히 확인되며, 주일 설교 요약과 매일 QT 제출의 과제가 있다. 학기마다 정해주는 필독서 4권의 독후감도 제출해야 한다. 24주간의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 할렐루야교회 새생명훈련 교재 내용

1권		2권		3권	
1	예수님	1	성령충만	1	내적치유
2	하나님	2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2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3	성령님	3	행복한 가정생활	3	영적 전투
4	하나님의 말씀, 성경	4	그리스도인의 재정관리	4	마지막 시대와 이단
5	목상훈련	5	인생의 장벽에서 이기는 삶	5	전도
6	기도훈련	6	건고한 믿음	6	선교
7	예배	7	순종하는 삶	7	선한 청지기
8	섬김	8	그리스도인의 교제	8	하나님 나라와 사명

#### 나. 새소명훈련

- (1) 지원 자격 : 새생명훈련을 이수한 자들만 지원할 수 있다.
- (2) 훈련자 : 16주간의 과정 중 처음 8주간은 담임목사가 목회철학과 교회의 비전, 킹덤미션 사역을 중심으로 직접 강의하고, 후반부 8주는 부목사들이 평신도목회 돌봄 사역과 소그룹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 (3) 반 운영 : 10명 정도의 단위로 반을 편성한다. 매 주마다 1시간 정도의 전체 강의와 1시간 정도의 반별 모임으로 진행된다. 각 반마다 반장을 두어서 반별 모임 진행과 실천 과제 실행을 하도록 한다.
- (4) 훈련 내용 : 새소명훈련도 새생명훈련과 같이 매 주일 설교 요약과 매일의 QT 정리 제출 및 필독 독서 독후감이 있다. 이와 함께 일정한 봉사과 섬김

의 실습 내용이 포함된다. 16주간의 교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주간 중 전반부 8주간은 제자도에 관한 훈련이다. 강의 내용은 소명, 제자도(위탁, 증거, 종), 소명의 공동체(교회, 가정, 세상), 킹덤미션을 향한 새소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후반부 8주간은 평신도목회 돌봄사역과 소그룹 인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다.

평신도목회 돌봄 사역의 기본 개념은 영어로 PACE로 칭한다. 이것은 기도(Pray), 시간을 내어줌(Available), 정기적인 접촉(Contact), 본을 보여줌(Example)을 뜻하는 영어단어의 첫 글자 조합이다. 모든 성도는 서로 영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하고, 또 서로 돌봐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역에는 전문적인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에 맞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시간을 내어주고, 정기적으로 만나주며,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본이 되어줌으로써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개념이 평신도 목회의 목양 사역의 기본 개념이다. 이 돌봄 사역(PACE)은 김상복 목사의 목회 중심 사역이었다. 김상복 목사의 평신도목회는 평신도목회연구원을 통한 성경, 신학, 목회의 구비 사역과 함께 평신도들이 목양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실제 그 사역을 위임하는 것이 돌봄 사역이었다. 김상복 목사는 돌봄 사역과 함께 소그룹 인도를 위하여 4W를 강조하여 운영하였었는데, 4W는 환영(Welcome), 찬양과 경배(Worship), 말씀(Words), 사역(Work)의 영어 앞 글자를 모은 것으로서 소그룹이 모임을 진행할 때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강조한 것이다. 김승욱 목사는 김상복 목사의 목회활동 중 돌봄사역을 제자훈련의 새소명훈련에 접목시켜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 (5) 새생명훈련 및 새소명훈련 이수 현황

2011년도부터 2016년도 6년 동안 새생명훈련 및 새소명훈련을 받은 인원을 기수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새생명훈련을 이수하고 나서 새소명훈련을 받아야 하므로 새생명훈련이 한 기수 더 많다.

〈표 6〉 새생명 및 새소명훈련 이수 현황

	새생명		새소명	
	남	여	남	여
1기	107	130	116	289
2기	58	129	47	103
3기	66	119	37	75
4기	39	104	21	72
5기	47	85	35	69
6기	34	69	21	62
7기	42	113	24	85
8기	54	104	47	76
9기	53	102		
합계	500	955	348	831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새생명훈련 이수자는 1,455명이고, 새소명훈련 이수자는 1,219명이다. 여기에는 청년제자훈련은 별도로 진행되어서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할렐루야교회 주일예배 성인 평균출석 인원이 5,200명 내외인 것을 감안할 때 6년 사이에 주일 출석수의 약 28%가 새생명훈련을 받았고, 약 23%가 새소명훈련을 받았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상복 목사의 목회 결과로 이루어진 성숙한 성도들이 새로운 목회 환경에도 잘 순응하였다는 것과 김승욱 목사의 부임 초기에 성도들의 적극적 참여가 호응적이었던 것이다. 새소명훈련 1기에 특별히 인원이 많은 것은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중에서 새생명훈련을 안하고 바로 새소명훈련을 받도록 1기에 한해서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 2. 각종 교육 내용

할렐루야교회에서 성도들을 구비시키는 주요 내용으로 제자훈련과 평신도목회연구원 외에 기타 여러 분야별로 실행되는 구비내용들을 성인사역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새 가족 교육

할렐루야교회 성도로 등록을 하면 우선 4주간의 새 가족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앙생활 자체가 처음일 경우나 타 교회에서 전입을 한 경우나 관계없이 동일하게 4주간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초신자는 그 필요성이 말 할 것도 없거니와 전입 교인의 경우도 다시 한 번 신앙의 초석을 다지며 교회의 분위기도 적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매 주일 실시되며, 개인사정상 4주간의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 년에 두 차례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새 가족을 위한 4주간의 교육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교회의 승리, 예배의 기쁨 등이다. 새 가족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식 교인으로 인정이 되며, 그 이후의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나. 성경대학

성도들의 영적 구비를 위해 주일과 주중에 성경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내용은 성경공부 및 상담, 교회사, 타종교 이해 등 신앙 전반에 걸쳐서 다루고 있으며, 10주간 진행된다. 강의는 부목사 또는 전문 강사진이 담당한다. 매 회 1시간씩 진행되며, 10회 강의 중 7회 이상을 참석해야 수료하게 된다. 할렐루야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려면 일정 과목 이상의 수료가 있어야 한다. 1년에 봄학기 와 가을학기로 2회 진행되며, 2014년도 봄학기 내용은 총9과목으로서 주일반 6과목, 주중반 3과목이었다. 주일반 과목으로는 북한교회사, 한국사회와 가족관계(상담), QT반, 이슬람 이해, 성경적 기도론, 성경적 재정훈련 이었고, 주중반으로는 갈라디아서 공부, 바른 영성이해, 성경통독반 이었다.

### 다. 전도폭발훈련

전도폭발훈련은 국제전도폭발본부와 연계를 갖고 임상훈련기독교회로서 특별한 협력 관계 속에 있다. 매년 전, 후반기 13주씩 훈련을 실시한다. 전도폭발훈련은 평신

도를 사역자로 무장시켜 그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 주는 훈련이다. 이 전도폭발훈련의 목표를 본다면 평신도를 훈련시켜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전도자를 키워낼 수 있는 훈련자로, 새 신자들을 제자로 삼는 주님의 제자로, 지역교회 전도폭발사역을 일으키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 훈련은 철저한 전도 내용 암송과 실제적인 전도현장 실습을 강조하고 있다.

#### 라. 선교비전스쿨

평신도 선교사를 일으켜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동시에 열방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의 효과적인 협력 사역을 위해서 선교비전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성도들 중에 자원자를 모집하여 1년에 봄, 가을 2회 실시하며, 10주간의 강의와 1회의 선교지 단기선교를 실행한다. 강사들은 교회 목회자 및 선교 단체 전문 사역자들이 감당한다.

10주간의 강의는 주로 5가지의 관점을 강조한다.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의 이야기 이해하기 이다. 세계복음화와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심을 다룬다. 역사적 관점은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 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들과, 선교운동의 선구자들 이야기로 구성된다. 전략적 관점은 이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당면한 과제인 세계 복음화,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장, 교회개혁운동, 전방개혁 선교와 전략적 무기 등을 다룬다. 문화적 관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줄 것인가의 내용이다. 문화의 이해와 차이, 효과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한 전략과 문화변화를 위한 선교사의 역할을 다룬다. 동역적 관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말하기 이다. 헌신된 자들의 동역으로서 보내는 자, 선교동원가, 환대하는 자, 중보기도 하는 자, 가는 선교사 등을 다룬다. 이러한 5가지 관점 외에도 한국 선교 역사, 영성 수련회, 북한 선교의 현황, 이슬람과 무슬림, 디아스포라 선교의 이해 등의 강의가 함께 진행된다.

할렐루야교회는 성인들을 위한 선교비전스쿨과 함께 중고생들을 위한 선교드림스쿨을 운영하고 있다. 전체적인 맥락은 동일하게 진행되며, 청소년 시기 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체적 비전을 세워주기 위함이다. 선교드림스쿨의 교

과 과정은 일반 선교 훈련의 내용들을 대부분 포함하면서 청소년이라는 특징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 가정에서의 부모와의 관계, 학교생활과 학업의 문제등도 함께 다룬다. 선교드림스쿨에서는 QT와 일주일의 삶 나누기, 중보기도가 강조되며, 전체 과정 중 네 번 이상은 학부모가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마. 상담아카데미

모든 사람들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고, 마음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이 과정은 본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타교회 성도들의 참석이 50% 정도에 이르고, 그 중에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복음과의 접촉점이 되고 있다.

상담 아카데미는 1년 22주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강의가 진행된다. 강사는 교회 내외의 상담학 전문가들로 이루어지며, 강의 내용은 해마다 강사의 사정과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이 이론과 상담자의 자질, 이야기 치료와 가족 관계, 가족 역할 이해, 결손 가정 자녀 이해, 미술치료와 상담, 방어기체의 이해, 우울증 상담, 가족 조각을 통한 치료, 성격 검사와 상담, MBTI와 상담, 자아상의 치유, 상담사례, 조별 모임 등이 있다.

#### 바. 호스피스

호스피스는 말기 암 환우와 임종을 앞 둔 환우 및 그 가족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할렐루야교회는 1년에 2차례, 각각 11주의 과정으로 호스피스 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교회 내, 외의 전문 강사진이며, 영성, 건강, 법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강의와 함께 호스피스 기관 방문과 암 환우들과의 만남을 실습하고 있다. 강의 내용은 조금씩 상황별로 달라지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개강예배, 교육OT, 조별모임, 암에 대한 이해와 대책,

통합적인 재활치료, 전인건강과 현대인의 건강관리, 암을 이기는 생활, 수련회 (호스피스 기관 방문), 교회 호스피스, 호스피스 현장에서의 섬김, 아로마 테라피, 전인건강과 통합치료, 사전의료 의향서, 기독교 장례문화, 수료예배 및 파송식 등이 포함된다.

#### 사. 무릎학교

성도들이 기도훈련을 통하여 보다 풍성하고 깊은 기도생활을 하게하며, 중보기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 구비시키는 과정이다. 1년에 2차례 진행되며, 8주간의 강의가 있고, 그 후에 조별로 일정 기간 중보기도 사역을 하도록 한다. 8주간의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련과정의 기간이 끝나면 훈련을 받았던 조별로 1년간 의무적인 중보기도사역을 하도록 한다. 무릎학교의 교과 내용은 중보기도자로 부르심, 친구약의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능력, 중보기도의 동역자,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 중보기도의 실제, 영성과 성품, 중보기도자의 충성과 헌신 등이 있다. 무릎학교는 김승욱 목사의 부임 후에 제자훈련과 함께 신설된 양육과정이다.

#### 아. 문화강좌

할렐루야교회는 매년 2회에 걸쳐 봄, 가을학기로 문화강좌를 개설한다. 여기에는 두 개의 목적이 있다. 첫째는 성도들이 문화 내용을 습득하고 구비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둘째는 이웃에게 문화 선교란 개념에서 불신자들이 복음을 접촉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교회의 문화 강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섬김과 선교의 차원이다. 강사는 교회 내의 평신도들 중에 은사별로 선정하여 봉사하도록 한다. 강좌 시간은 주일을 포함하여 주중 일주일 내내 진행되는데, 2016년도 하반기에는 5개 분야(음악, 건강, 스포츠, 생활, 교육), 43개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 제 3 절 평신도목회연구원

김승욱 목사가 담임목사로 부임하기 전 김상복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사역하던 1991~2010년간의 할렐루야교회의 대표적 사역은 평신도목회연구원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평신도목회연구원이라 함은 평신도를 훈련하여 균형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고, 전임 목회자와 함께 목회의 동역자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구비시키며, 이렇게 함으로써 평신도들이 각자 개인의 영적 성숙은 물론 가정과 이웃과 직장과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도록 돕는 기관이다.<sup>211)</sup>

#### 1. 출발과 연혁

할렐루야교회의 평신도목회연구원은 김상복 목사가 2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직후 1991년 3월 6일부터 시작되었다. 김상복 목사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으로 2010년 6월까지 44과목을 직접 강의하였다. 2000년 6월 27~28일에는 제1회 국제 평신도목회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김상복 목사와 옥한흠 목사가 함께 강의였으며, 2004년 6월28~29일에 3차 까지 진행하였다. 2003년 3월부터 평신도목회연구원 강의를 사이버강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넓혔다.

#### 2. 과목분류 및 주요과목 소개

평신도목회연구원은 20년간 44과목을 강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경, 신학, 목회의 분류이다. 성경 과목을 가르침은 개인의 영성과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를 위함이고, 신학을 가르침은 신앙의 기초와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세우기 위함이며, 목회를 가르침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준비토록 하기 위함이었다.

211) 심상법, “김상복 목사,” 115-116.

## 가. 44과목 분류

44과목을 성경, 신학, 목회의 주제별로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 평신도목회연구원 44과목 분류표

성경	신학	목회
구약개론	신론(1,2)	영성계발
모세오경(1,2)	기독론	평신도 상담학(1,2)
역사서	성령론	개인전도학
시가서	죄론	성서적 치유학
이사야서	구원론	성경적 기도론
다니엘서	종말론	성경적 예배학
소선지서	기독교변증학	가정생활과 품성계발
성경해석학	평신도신학	행복한 가정생활
신약개론	이단론	
사복음서(1,2)	고난의 신학	
사도행전	변화의 신학(1,2)	
바울서신	예수의 신학(1~6)	
일반서신		
요한계시록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평신도목회연구원 과정은 일반 신학교와 유사한 커리큘럼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김상복 목사의 평신도목회연구원이 지향하는 것은 평신도의 제자화를 넘어서서 사역자화, 목회자화를 위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당초에는 더 많은 과목이 예정되어 있었다. 교회사, 세계종교연구, 세계선교세미나, 소그룹인도세미나, 기도훈련세미나, 찬양세미나, 설교학, 심방론 등이 있었는데, 이 과목들을 실행하지 못한 것은 시간적인 부족도 있었고, 다른 기회(설교, 특강, 사랑방장 훈련, 각종 칼럼 등)들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12)</sup>

212) 부록1의 김상복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중 1번 문항 참조.

## 나. 특수 과목 소개

평신도목회연구원 44과목 중에는 특별한 명칭이 붙은 과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난의 신학 : 고난의 신학은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고난의 원인과 종류, 의미와 과정, 대처 방법과 결과, 고난의 기쁨과 영광을 성경과 철학과 종교적 관점과 실제적 현실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으며, 읍기서를 많이 다루고 있다.

(2) 변화의 신학 : 변화의 신학은 인류 역사와 늘 함께 고민해 왔던 변화의 문제를 다룬다. 이 강의는 왜 변해야 하는가? 무엇이 변해야 하는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그 변화의 주체는 누구인가? 변화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내면의 변화, 외면의 변화, 가정의 변화, 교회의 변화, 세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필요, 방향, 영역, 실제적인 예화, 전문가들의 견해, 성경적 견해와 심리학적 견해의 비교 등을 다루고 있다. 변화의 신학은 2007년 2학기 와 2008년 1학기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3) 예수의 신학 : 김상복 목사는 예수에 대한 연구의 기회가 많았는데, 대학원 시절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 연구한 논문을 쓴 적이 있었고, 석사 과정에서는 예수의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연구하는 논문을 썼으며, 박사 과정에서는 예수의 생애와 사상과 사역을 포괄한 공관복음서 자료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sup>213)</sup> 그는 예수의 신학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연구를 조직화함으로써 예수신학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생각하셨던 자료들을 주제별로 종합 연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학보다는 예수님께서 믿고 계시던 그분 자신의 신학을 함께 공부하고 싶다고 하였다. 예수의 신학<sup>1</sup>에서는 예수님

213) 김상복, *영혼의 울림* (성남: 한국오늘의양식사, 2009), 235.

의 성서론, 신론, 신국론(하나님 나라), 기독교론, 구약의 기독교론, 성령론을 다루었고,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다루었고, 예수의 신학2에서는 예수님의 인생론, 인간론, 죄론, 구원론 등을 다루었으며, 예수의 신학3에서는 예수님의 교회론, 종말론, 물질관에 대해서 다루었다. 예수의 신학4에서는 예수님의 마귀론, 천사론, 제자론, 리더십에 대해서 다루고, 예수의 신학5에서는 예수님의 행복관, 성공관, 인물론, 유대교에 관한 견해, 환경론, 기다 관심분야를 다루었으며, 예수의 신학6에서는 이제까지 다루지 않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 사랑, 어린이, 여성, 부와 가난, 진실과 거짓, 언어, 전쟁과 평화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예수의 신학 강의는 2004년 2학기부터 2007년 1학기까지 3년 6학기 동안 진행되었다.

### 3. 역대 수강 현황과 그 의미

1991년부터 2010년 1학기까지 20년간 수강생들의 총 합계 수는 48,113명이고, 수강생들이 소속된 교회의 수는 3,085개 교회였다. 이것은 정식으로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며, 시험지를 제출한 사람들이며, 수강 신청을 하지 않고, 청강생으로 수강한 사람들을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된다. 수강생들을 연도별, 과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인의 수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수가 3천개가 넘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수강생 인원수의 할렐루야교회와 타 교회의 비율을 볼 때에도 타교회의 비율(53%)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할렐루야교회 성도는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 청강형식으로 참여한 것을 고려하면 조금은 다를 수 있어도 타 교회 교인들의 비율이 거의 절반인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김상복 목사가 처음부터 할렐루야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한 결과이기도 하다. 한 예로서 평신도목회연구원의 모든 교재나 인쇄물에는 할렐루야교회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것은 타 교회 교인들이 할렐루야교회 사역에 공연히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을 일체 덜어주기 위한 것이었으며, 그 목적성이 한국 교회 전체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연도별 과목 및 수강생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8> 평신도목회연구원 연도별 과목 및 수강생 수 도표

연도	과목명 및 수강인원
1991	요한계시록 / 신문1, 성령론 (총2,646명)
1992	신문2, 구약개론 / 신약개론, 개인전도학 (총3,080명)
1993	기독론, 행복한 가정생활1 / 행복한 가정생활2, 구원론 (총2,701명)
1994	죄론, 영성계발 / 종말론, 평신도 상담학1 (총2,632명)
1995	평신도 상담학1, 성경해석학 / 바울서신, 이단론 (총2,367명)
1996	역사서 / 통신수강 (총1,617명)
1997	성서적 치유학 / 기독교 변증학 (총2,321명)
1998	시가서 / 소선지서 (총2,328명)
1999	모세오경1 / 모세오경2 (총2,625명)
2000	신약일반서신 / 평신도신학 (총2,408명)
2001	사복음서1 / 사복음서2 (총2,572명)
2002	이사야 (1,353명) / 성경적 기도론 (1,568명)
2003	성령행전 / 가정생활과 품성계발 (총2,721명)
2004	성경적 예배학 / 예수의 신학1 (총2,290명)
2005	예수의 신학2 / 예수의 신학3 (총2,171명)
2006	예수의 신학4 / 예수의 신학5 (총2,450명)
2007	예수의 신학6 / 변화의 신학1 (총2,252명)
2008	변화의 신학2 / 요한계시록 (총2,589명)
2009	다니엘서 / 고난의 신학 (총2,320명)
2010	행복한 가정생활 (859명)

위의 표8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996년 2학기에 김상복 목사가 해외일정(미국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에서 3개월간 겸임교수 사역)으로 인해 강의를 한 학기 쉬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2천명이 넘게 꾸준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이 수치는 등록하고 수강 후에 시험지까지 제출하는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들의 통계이다. 등록을 하지 않고, 청강을 한 인원도 매우 많았고, 어떤 경우에는 구역장이 사이버수강을 신청하고, 구역 모임 시간에 단체로 사이버 수강을 들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이런 통계는 모두 생략 된 것이다.

평신도목회연구원의 과목을 이수할 때마다 학점을 부여했는데, 과목의 분량과 성격에 따라 2학점부터 5학점까지 부여했으며, 성경, 신학, 목회 각 분야별로 10학점 이상, 종합하여 30학점 이상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다. 그것은 그 정도의 수업을 이수하면 신학교에서의 1년 정도의 수업 분량이 될 수 있기에, 그 후 어느 선교지, 어느 사역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김상복 목사의 뜻이었는데, 그는 이러한 근거로 미국 선교기관에서도 자기 분야의 기능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가 섬기기 원하면 신학교 1년 공부를 요구한다는 것이었다.<sup>214)</sup>

평신도목회연구원에서 학점을 이수한 수강생들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이 통계는 2009년까지 만을 다룬 것이기에 그 이후 수강생들을 포함하면 더 많을 것이다.

<표 9> 평신도목회연구원 학점 이수 현황, 단위 명

졸업학점	출석	통신	사이버	합계
30학점	1,105	668	61	1,834
60학점	380	235	37	652
90학점	170	112	18	300
120학점	54	58	19	131
150학점	24	31	12	67
180학점	12	13	8	33
합계	1,810	1,126	164	3,100

위의 표9에 기록된 인원수는 청강생을 제외하고, 정식 등록과 수업 및 사후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의 통계이다. 30학점을 이수하려면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3년이 소요된다. 사이버 과정은 2003년도에 실시되었기에 수료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주목할 것

214) 김상복, “평신도의 은사 계발,” 70.

은 통신의 과정으로 12학점 이상을 수료한 인원수가 출석 인원 수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평신도목회연구원의 과정이 이후에도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통신의 과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난 과목들을 개인적인 노력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있다. 180학점 이수자는 거의 전 과목을 모두 수강한 것이다. 한 과목당 5학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두 학기를 운영할 때, 1년에 10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학점을 보면 몇 년간 수강했는지 대략 파악이 된다. 실제로 전 과목을 이수한 180학점 이상인 경우도 다수가 있다.

#### 4. 수강방법

평신도목회연구원 강의 내용 수강 방법은 3가지로 진행되었다. 1991년 3월부터 시작된 출석 수강, 통신 수강이 있고, 2003년 3월부터 시작된 사이버 수강이 있다.

가. 출석 수강 : 출석 수강은 1년에 두 차례씩 실시하는 수업에 직접 참석하여 수강하는 것이다. 통상 3~6월에 1학기, 9~12월에 2학기를 운영하였고, 매 학기는 14주를 기본으로 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할렐루야교회 건물을 이용하여 강의가 진행되었다. 매 시간 출석 체크가 이루어지며, 학기 종료 시에는 수업을 들었던 내용들의 시험지에 답안을 기록하여 제출해야 했다.

나. 통신 수강 : 통신 수강은 개인 사정상 출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강의한 내용들의 강의 내용을 카세트 테이프와 CD에 녹음하여 우송해주던 수업 방식이다. 기간과 시험지 방식은 출석수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전국 각지로 우성되어서 평신도목회연구원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다. 사이버 수강 : 컴퓨터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좀 더 편하고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이버 수강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다. 통신 수강은 음성으로만 강의를

들었지만, 사이버 수강은 영상을 직접 접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인 매체로 이용되었다. 덕분에 한 사람이 수강 신청을 하고,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수강하는 일도 생기게 되어 학사관리 차원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강의를 보급하는 차원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현재와 미래 시대에 포스트모더니즘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성도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 될 것이다.

## 5. 평신도목회연구원의 특징

평신도목회연구원은 하나의 개 교회에서 진행되었지만, 한 교회의 사역으로만 볼 수 없으며, 그 내용도 단순한 성경공부나 신학강좌가 아니라 김상복 목사의 목회 철학과 영성이 반영된 전인적, 종합적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가. 평신도목회 신학에 근거

평신도목회연구원은 김상복 목사의 평신도신학에 근거한 것이다. 김상복목사는 미국 유학 중 특히 전도폭발훈련의 제임스케네디(James Kennedy) 목사의 특강을 들은 후에 새롭게 인식하게 된 바울 사도의 목회철학을 따라 에베소서4:11-12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 이후로 줄곧 평신도목회를 펼쳐왔다.<sup>215)</sup> 그 의미는 본 논문 2장에서 연구한대로 모든 평신도는 부름 받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서 각자 부르심과 은사대로 구비되어서 목양 사역을 비롯한 모든 사역에 주도적으로, 동역자로서 참여해야 하며, 안수 받은 목사의 역할은 평신도를 구비시켜 사역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평신도 제자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평신도 목회자화란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철학이라고 강조하였다.<sup>216)</sup> 목사와 평신도가 동일한 목양의 마음으로 동역하는 것이기에 신학교에서 목

215) 김상복, “평신도의 은사계발,” 69.

216) 김상복, *영혼의 울림*, 201.



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정과 거의 유사하게 평신도목회연구원 과정을 조직한 것이다. 김상복 목사는 평신도들이 기존의 교회 봉사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주중에 목회자처럼 이웃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고, 복음을 전해 주고,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주며 목회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영적인, 목양적인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sup>217)</sup> 그는 계속 강조하기를 전통적 목회자 중심의 목회는 많은 사람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해 두는 목회이지만, 소그룹과 돌봄사역을 통한 평신도목회만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였다.<sup>218)</sup> 김상복 목사는 평신도목회의 개념이 실제 목회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해마다 설정하는 할렐루야교회 표어에서도 평신도 목양의 내용을 많이 강조하였는데, 1991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sup>219)</sup>

#### 나.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과정

김상복 목사는 항상 전인적인 회복을 강조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영적인 파탄, 정서적 파탄, 지적인 파탄, 사회적 파탄, 환경적 파탄, 육체적 파탄을 초래했기에 이 여섯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절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신학 교육도 전인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20)</sup>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신학교에서의 교육이 인간의 다양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보다는 학문적 지식과 정보의 전달, 학문의 창출로만 진행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신학교가 인격 형성에 관심을 갖고 인성을 개발하며, 실제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준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학자 이전에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221)</sup> 그의 평신도목회연구원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한결같이 지식으로서의 만족보다는 내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은 김상복 목사의 강조점이

217) 김상복, *영혼의 울림*, 222.

218) 김상복, *기적의 연속* (성남: 할렐루야교회 신문사, 2009), 72-73.

219) 부록3 할렐루야교회의 연도별 표어 참조.

220) 김상복, *교회를 알면 신앙생활이 즐겁다*, 220.

221) 김상복, *교회를 알면*, 222-225.

강의 과정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 그가 모든 목회의 영역에서 전인적 회복을 강조했다라는 것은 앞에서 교회의 공간적 특성을 논할 때에 할렐루야교회 건축의 모든 비전들 속에 성도들의 영성과 함께, 건강, 문화 모든 것을 포함하고,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추구하며, 지역주민들까지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에서도 잘 알 수 있다.

#### 다. 성경과 신학과 목회의 균형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커리큘럼은 성경, 신학, 목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김상복 목사는 신학교에서 정작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완전하고 철저히 구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이기에,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나 목양에 있어서나 성경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sup>222)</sup> 실제로 성경의 대부분을 강의하였는데, 소신지서 부분은 개략적으로만 강의하고, 각 권별로 상세히 하지 못했음을 아쉬워했다. 또한 그는 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하고, 인간의 이성(자유주의)이나 개인의 경험(신정통주의, 신비주의)은 하나님의 계시에 준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이며, 신학은 신앙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sup>223)</sup> 또한 신앙과 신학이 일치하지 않으면 늘 혼란과 갈등이 있고, 영성은 약화되기에 균형 있는 신학과 신앙개발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평신도들에게 신학을 가르쳐야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인찬은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째 기독교 진리(성경 말씀)를 이단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이고, 둘째 기독교 진리를 조직적으로 설명하기 위함이며, 셋째 기독교 진리를 오늘날 정황에 맞게 재해석하기 위함이고, 넷째 신앙생활 실천의 바른 정립을 위함이라고 하였다.<sup>224)</sup> 목회의 부분은 신학교에서도 실제 목회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훈련이 너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평신도들도 목양의 은사를 개발하고,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222) 김상복, *교회를 알면*, 226-227.

223) 김상복, *교회를 알면*, 205.

224) 정인찬, “평신도 신학훈련으로 복음의 새 시대를 열라,” *월간목회* 369 (2007년 5월), 89-90.

#### 라.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훈련

김상복 목사는 할렐루야교회에 부임하면서부터 목회, 학문, 선교의 세 영역을 균형 있게 감당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것은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부르심의 응답이었고, 평신도목회연구원을 운영하면서도 한국 교회 전체를 바라보며 진행하였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교재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에서 할렐루야교회 이름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어떤 교회의 성도라도 남의 교회의 것을 참여한다는 마음이 없도록 강조하였다. 매년 학기 초마다 극동방송과 국민일보에 홍보를 하였고, 은퇴 후에도 타 교회로부터 자료를 찾는 연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수강생들의 교회 분포도가 3천 교회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후로도 평신도목회연구원이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활용될 소지가 있음을 알게 하는 내용이다.

#### 마. 성육신적 교육을 통한 감동

김상복 목사의 특징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의 신학적 지식과 유창한 영어실력도 빼놓지 않지만, 섬김의 영성을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학생들은 좋은 모델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하면서 교수는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 스스로 변화된 신앙적 인격을 눈앞에 보여주어야 하고, 교수와 학생,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는 인격적, 신앙적 관계가 있어야 하며, 교수와 목회자의 삶에서 말씀이 ‘성육화’되고, 예수를 닮은 경건한 인격을 보여주지 못하면 진리의 사실이 증거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sup>225)</sup> 그의 이러한 강조는 그의 삶에서 수강생들과 교인들에게 제일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왔다.

또한 김상복 목사는 평생 교수와 목회를 동시에 감당해왔는데, 그는 자신에게 가르치는 은사, 설교의 은사, 상담의 은사, 개인전도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교수생활을 통해 지식과 영성과 풍부한 목회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로 많은 평신도 신앙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한다.<sup>226)</sup>

225) 정인찬, “평신도 신학훈련,” 227-228.

226) 김상복, “평신도의 은사 계발,” 73.

#### 바. 평이한 언어를 통한 교육

김상복 목사의 목회 기간 중에 교인들의 남녀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진 이유 중에 하나로 설교와 강의가 매우 쉽다는 것이다. 즉 보통 남자들의 영적 성숙도가 여자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쉬운데, 새신자이거나 믿음이 약한 남자성도들도 그의 설교와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의 인터뷰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모든 설교와 강의에 있어서 그 대상이 항상 누구라도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간증의 내용을 봐도 신앙생활이 깊지 못하거나 심지어 새신자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되었다. 그는 설교나 강의를 할 때에 언제라도 새 신자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했으며, 어떤 경우에도 그들이 소외되지 않고 복음을 통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sup>227)</sup> 그의 강의는 설교보다도 오히려 더 쉽다는 평을 듣게 되었고, 평신도목회연구원 과정이 평신도들을 목회자화 하기 위한 과정이었지만, 특이하게 전도의 기회로도 많은 열매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 사. 교육 내용의 보편적 유용성

김상복 목사의 담임목사 은퇴와 더불어 평신도목회연구원의 강의는 일단 종료되었지만, 그 강의의 내용과 자료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활용되고 있다. 그것은 처음부터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한 목적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강의 내용과 진행에 있어서도 할렐루야교회의 특수성을 나타내지 않고, 보편성을 많이 추구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종료와 함께 주일예배 시간에 방송으로 광고한 것을 녹취한 내용에 보면 평신도목회연구원 모든 내용들이 누구의 특정한 소유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와 각종 매체로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227) 부록1. 김상복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 7번 문항 참조.

## 6. 향후 과제와 대책

김상복 목사가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를 은퇴하면서 평신도목회연구원도 강의를 종료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후임 담임목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자하는 목회적 배려 때문이었다. 비록 강의는 종료 되었지만, 김상복 목사는 이 내용들이 필요한 곳에 널리 보급될 수 있기를 부탁하였다.

### 가. 자료 관리와 재정비

1991년부터 20년간 강의가 진행되었기에 그 사이 인쇄, 출판, 매스미디어의 발전이 놀랍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과거의 자료들을 현재의 문화 개념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4과목의 교재 책을 CD 하나에 옮겨 담은 작업이 이루어졌고, 강의 내용들도 MP3 파일 CD로 만들어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들을 수 있게 하였으며, 앱을 비롯한 모바일 체제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완성되어서 운영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이제는 국내는 물론이요, 해외 선교지에서도 쉽게 받아보고 사용할 수 있다.

### 나. 자료 활용 방안

김상복 목사는 은퇴와 동시에 평신도목회연구원 강의를 종료하면서 비록 본인이 더 이상 강의는 안하더라도 이제까지 강의 한 내용들이 필요한 곳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라도 사용되기를 부탁하였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전국 각지와 중국 조선족 등 세계 각지에서 평신도목회연구원 강의를 듣고 많은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몇 가지 활용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성도 개인의 영적 구비: 성도의 영성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적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적인 말씀묵상, 설교와 같은 일도 물론 필요하지만, 동시에 성경과 신학과 목회의 균형 잡힌 영적 구비는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나, 사역을

위해서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2) 중소형 교회의 성경 교육 교재: 대형교회는 풍부한 인적 요소를 기초로 각종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지만, 중소형 교회에서는 다양한 양육을 실행하기가 어렵다. 소형교회일수록 더욱 심하고, 농어촌 교회는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다. 담임목사 혼자서 주일 설교와 심방과 행정 업무만도 과중한 일인데, 별도로 양육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기가 너무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평신도목회연구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보다 쉽고, 안정적인 양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평신도들이 목양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직접 가르치기 어려운 경우나 소그룹 모임에서 함께 공부할 경우에도 좋은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교지에서의 선교사 영적 충전 및 선교 자료 활용: 선교지에서는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운 난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 중에도 가장 어려운 상황은 선교사들의 영적 공급이 원활치 않다는 것이고, 선교지에서 현지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지인 중에 회심자를 만나고 그 중에 사역자들을 세울지라도 마땅한 양육을 위해서 평신도목회연구원 교재와 김상복 목사의 강의를 활용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4) 해외 한인교회와 디아스포라: 현재 175개국에 750만 명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있다고 한다. 해외 한인사회에서 교회의 중심 역할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런데 현지 한인교회를 감당하는 사역자들의 고충은 성도들을 균형 있고, 종합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재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집은 구할 수 있고, 매일 묵상 교재들은 구할 수 있어도, 평신도목회연구원 같은 성경, 신학, 목회의 체계적인 종합 양육의 구비교재가 너무도 절실하다는 것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 내용상으로는 매우 복음적이고, 균형적이고, 학문과 목회 현장을 잘 연결시킨 것이므로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5) 북한교회와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교회는 그동안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온 보배 같은 성도들이다. 비록 공개적으로 신앙활동을 할 수는 없어도, 이들에게 여러 각도로 영적 공급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개인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자료들이 잘 활용될 것이다. 이제 곧 통일의 시대가 열릴 것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장차 북한 전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힘 있게 확장되고, 교회들이 세워질 것인데, 이때에 많은 평신도 사역자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사역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6) 외국어로 번역하여 보급하는 일: 김상복 목사는 한국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 교회를 위하여 그 활동을 해왔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아시아인 최초의 회장 및 세계 신학대학교 총 학장 회의(PAD) 의장을 역임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자료들은 전문 목회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쉽게 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구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다양한 언어로의 번역이 시급하다. 이미 일본어와 러시아어는 부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해외 한인디아스포라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국가 언어로의 번역 작업을 구상하고 있다.

## 7. 간증 사례와 평가

평신도목회연구원의 강의를 마치고, 수료를 할 때 간증문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내용이 우수한 간증문들을 책으로 발간한다. 9권까지 발간되었는데, 2009년에 발간된 9권 “바라며 기다리며”의 내용 중에서 몇 편의 간증문을 신고자 한다. 이 간증문의 내용은 평신도목회연구원 강의의 특징과 수강 이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는지 알게 해 준다.

## 가. 간증 사례

9권의 간증집 중에서 가장 최근에 발행된 9권에서 6개의 간증 사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 (1) 간증1(장로 이\*\*)228)

#### “평신도 목회와 참여적 경영”

나는 김상복 목사님으로부터 평신도도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바로 21세기 목회 패러다임이며, 성경이 가르치는 것임을 알았을 때 너무나 큰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였다. 에베소서4:11-12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나 자신이 이 말씀을 믿고 실천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 평목원과 PACE 돌봄 사역을 통해 성도들에게 전파하면서 나 자신 크나큰 유익을 얻어왔다.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눌 때 마다 나는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조금 설명을 곁들인다. “목사 선생님의 하시는 일은 평신도를 가르치고 도와주고 임무를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사역들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평신도목회의 성경적 이치를 알았을 때와 같은 기쁨과 사역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아왔다.

나는 또한 직장의 경영인으로서 평신도목회의 원리를 경영의 현장에 적용하여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여왔다. 모든 평신도가 교회 안에서 수동적 역할을 하던 것을 떠나 사역의 주체가 될 때에 놀라운 권능이 솟구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에서도 최고경영자와 중역이 아닌 일반직원 모두가 경영의 주인의식을 갖고 경영의 일선에서 뛰게 할 때에 놀라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경영의 결과도 상상을 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체득하였다. 에베소서4:11-12의 말씀의

228) 김상복, *바라며 기다리며* (성남: 평신도목회연구원, 2009), 30.



표현을 빌어 나름대로 21세기 참여적 경영의 패러다임을 설명하자면 아마도 이런 말이 될 것이다. “사장과 중역의 역할은 모든 평사원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경영의 중심에서 일을 하게 함으로 기업과 주주와 고객과 사회와 사원 본인들이 모두 성공하게 하는 것이다.”

참으로 평신도목회의 원리는 우주적 보편타당성을 지닌 21세기 목회 패러다임이다. 할렐루야교회에서 김상복 목사님을 모시고 20년에 가까운 세월 모든 평신도목회 강의를 들어온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서 얻은 영적 지혜와 현실적 지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목사님과 평목원에서 사역하시는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

(2) 간증2(집사 이\*\*)229)

“이 결심 약해지지 않게”

늦은 나이에 세례를 받았지만 그 후에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감을 느끼면서, 혼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변화의 신학을 통신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죄성에 젖어서, 또 인간의 향락에 젖어서 생활해온 타성 때문인지, 본인의 의지부족인지 믿음의 부족인지, 변화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화를 위한 커다란 충격과 같은 동기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6교구 인도선교 여행단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곳의 열악한 사회 환경과 버려진 영혼들을 상대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 나 자신에게도 커다란 감동과 충격이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직접 인도에 가서 보고 느낌이 무척 컸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 그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현장을 보며 남은 생애를 보다 보람 있게 살아야겠다고 크게 느꼈습니다.

변화의 산학을 공부하고 내린 결론은 보다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변화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화의 신학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229) 김상복, *바라며 기다리며*, 109.

된 내용처럼 현재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닦아서 다시 돌려주시는 것만을 갖고 지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회심하여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을 갖고 지속된 위로와 평화를 오래 유지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이 결심이 약해지지 않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훈련을 꾸준히 하면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자 합니다.

(3) 간증3(집사 정\*\*)230)

“낙심되고 주눅이 들어 도망한 곳이 평목원”

할렐루야 교회의 앞산을 바라보며.....

사계절의分明함으로 창조주의 때와 섭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끽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잔의 커피와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사가 만발했습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들어서면서 현세의 방주에 안주할 수 있는 안식처임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할렐루야 교회 안에 평목원의 강의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헤매며 방황하던 고통에서 날 잠잠히 받아들이는 회복의 때를 만났습니다. 잠잠할 때와 나서야 할 때와 기다려야 할 때를 알려주시며 주님이 한 걸음씩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날 더욱 풍성함으로 회복하게 하시니 행복합니다.

영적으로 갈급하여 무엇이든 잡아야만 할 것 같았던 방황 속에 있을 때에 나의 친구의 권유로 평목원에 발을 들여놓으며 내 스스로 치유됨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낙심하고 주눅 들어 도망한 곳이 평목원이 되었습니다. 분주함에 내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을 해결해준 곳입니다.

봄 학기 처음엔 셔틀버스 속에서 시끄러움에 낯설어했으며 군중 속에 혼자임을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진 환경이 하나 없어도 새로움에 취해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항상 내 곁에서 친근히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기에 감사했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나를 혼자 서게 하시는

230) 김상복, *바라며 기다리며*, 80.

훈련의 단계였음을 알기에 기꺼이 담대히 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커피를 마시고 강의실 안에서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나를 보며 미소가 지어지며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즐기는 오붓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신학과 변화의 신학을 배우며 오히려 저를 충분히 쉬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목사님을 통해 먹이신 뒤 하나님의 호렙산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작년 졸업식을 보며 미국에서까지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졸업식을 마치신 분과 연세 드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재도전의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4) 간증4(권사 조\*\*)231)

##### “말씀의 꽃과 열매”

백내장 수술을 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염증이 생겼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수술을 하고 곧 활동하는 것을 보고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만 주의하였다. 의사가 며칠 쉬라는 말에 외출을 삼가고 그동안 사두고 못 읽은 책과 신간을 하루에 열 시간씩 읽었다. 일주일 쯤 후 눈이 아팠다. 안과에 가니 의사가 “다리를 다치면 다리를 쉬어야 하듯이 눈이 아프면 눈을 쉬어야지요. 그건 유치원 아이도 아는 기본이지요.”라고 말하며 어이없어 하는 의사를 보며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활자 중독증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귀를 열어 놓는 일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내게 말씀에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 주셨다.

평목원 강의에 빠진 시간 것과 다시 들으려고 사 두었던 강의 테이프 상자를 열었다. 신약, 죄론, 역사서, 행복한 가정생활... 십년도 훌쩍 넘은 테이프를 듣기 시작했다. 시각을 닫으니 청각은 예민하게 열려져 목사님의 말씀은 더욱 가슴 깊이 들어왔다.

김상복 목사님의 말씀을 17년 가까이 들었는데도 새로운 감동이 몰려왔다.

231) 김상복, *바라며 기다리며*, 33-34.

말씀을 듣는 동안, 가슴이 찢리고 깊은 깨달음이 오고 어두웠던 마음은 밝아졌다. 우리 목사님의 신학적 이론을 어느 목사님이 따라갈까? 어려운 신학이론도 나 같은 유치원 수준의 사람이 들어도 알기 쉽게 설명하신다. 말씀의 생활화를 주장하시는 목사님의 강의는 이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생활에 적용시키신다. 나의 생활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부정적인 말도 바꾸려 노력하니 행동에도 조금씩 변화가 왔다.

큰 박스로 서 너 개가 넘는 테이프를 다시 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간단한 수술에 부작용이 있게 하신 것을 깨달았다. 변화되는 나를 보니 새로운 감동으로 수술 후유증도, 염증도 감사하게 되었다. 어서 빨리 그 다음을 듣고 싶어 테이프를 바꾸어 끼는 손길이 바빠졌다. 들은 내용인데도 새롭게 말씀 하나 하나가 보석 같았다. 테이프를 바꿀 때마다 시들었던 영혼에 단 비가 내리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새삼스럽게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좋은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께 매주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평목원을 시작했을 때 홍보부장을 맡으며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다.

대전, 인천, 안양... 멀리서 오는 수강생들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이렇게 좋은 말씀을 매 주 들으니 할렐루야 교인들은 정말 축복을 받았다”며 부러워했다. 통신으로 듣던 타 교회 성도가 한번 직접 뵙고 싶어 왔다가 목사님의 은혜스럽고 평화로운 얼굴을 뵙고는 “좋아요. 정말 좋아요”를 반복했던 일도 떠오른다.

테이프는 평목원 위원들의 아날로그적 손작업으로 통신수강생에게 전국각지로 발송되었고, 개인적으로 사서 친지에게 부치는 성도들도 많았다. 감사의 편지와 전화로 전해 온 평목원의 영향은 대단했다. 완도의 개척교회 목사님은 설교준비 할 때 평목원 말씀을 교과서처럼 쓰신다고 했다. 평소 하고 싶었던 신학공부를 최고의 목사님의 강의로 하니 소원을 풀어 감사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평목원을 통해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는 성도의 얘기를 들으며 평목원은 우리교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닌 전국적인 프로그램이란 생각을 했다.

평목원에서 하시는 목사님의 강의에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말씀의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열매가 모두 들어있다. 듣고 난 테이프를 전도대상자인 후배에게 주기위해 예쁜 보자기에 싸며 기도한다. “하나님, 이 열매에 들어 있는 씨가 세계에 심겨지게 해주세요.”

## (5) 간증5(권사 김\*\*)232)

“좋은 교회, 좋은 목자를 만난 최고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므로 인해 내 모든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됨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매주 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믿는 자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19년 전에 김상복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면서부터 시작된 평목원의 수요 성경공부는 성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접하지 못했던 저에게 김 목사님의 명쾌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풀 송이와도 같았습니다.

매주 주일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수요일에 평목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둡던 영의 눈이 밝아졌고 연약한 제 영혼이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이던 생각이 긍정적 생각으로 변하였고, 이기적이던 성격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으로 변하였으며, 내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할 때 불평이 많던 삶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평목위원으로 봉사한지도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도 2008년 평목원 총무로 섬기게 되었을 때는 목사님께서 처음 평목원에서 강의하셨던 요한 계시록을 다시 하시게 되어 많은 분들이 다시 요한 계시록을 수강하시게 되므로 인해 더욱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무로 봉사하게 되면서 목사님께서 평목원 한 학기 강의를 하시기 위해 해외에 가실 때도 노트북을 가지고 가서 비행기 안에서도, 외국에서 집회를 인도하시면서도, 휴가 중에서도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팔이 저리도록 교재 작성을 하시는 수고를 거쳐서 우리가 공부하는 한 권의 교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평목원에서 공부한 40여 과목 한 권 한 권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목사님의 명쾌하고 탁월하며 성령의 임재가운데 써진 평목원 교재들은 앞으로 성경공부를 통해서 영적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학

---

232) 김상복, *바라며 기다리며*, 15-16.

생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평목원 강의 듣고 소감 몇 자 적는 것도 힘들어 하는데, 목사님께서서는 한 달이면 주일 설교 4번, 할렐루야 신문에 목사님 칼럼 1개, 오늘의 양식 발행인의 글 1개, 결혼식 주례사, 각 기관지 머리글, 각종 모임의 설교, 거기에 평목원 교재 한 권, 우리가 행복할 때 목사님께서서는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시고, 우리 양들에게 최고의 꼴을 먹이시고자 애쓰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20여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 간증6(집사 박\*\*)233)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이번 학기로 내가 2003년 만 38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 평목원 수강을 시작한지 어느덧 6년째가 된다. 처음엔 천안에서 아침7시에 집을 나와 시외버스로 한 시간, 야탑역에서 다시 교회버스를 타고 교회까지 와서 수강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한 학기만 해보기로 마음먹고 시작했다. 매학기 등록 때마다 망설이다가, 앞으로 내가 한국에 사는 동안 무작정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 한 후 2년을 수강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제주도 한라병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는 감사하며 무조건 순종했다. 제주에서 3년간 통신으로 수강! 작년 6월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단대병원으로 인도하셔서 천안으로 이사 왔다. 작년 2학기과 이번 학기를 마치고 60학점을 획득했다. 내가 이렇게 6년간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이유는 1980년 김상복 목사님이 미국의 벨엘교회를 시작하신 이후 한국에 오실 때까지 목사님의 성경공부를 한 과목도 빠진 적이 없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영적으로 보답하기 위해서이다. 매 학기 목사님의 가르치심에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으며, 내 영혼에 활력소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린다. 내가 40세 때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서 지난 30년간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함

233) 김상복, *바라며 기다리며*, 17.

께 늙어온 셈이다.

이번 학기에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고, 신앙적 도전도 많이 받았다. 먼저 그의 기도생활을 통해 기도의 원리를 배웠고, 세상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세상과 신앙적 타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며, 뜻을 정하고 영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충애를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겸비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기도할 것이다.

#### 나. 간증에 대한 평가

여기에 수록한 간증의 내용들의 공통점은 수강생들이 영적 성장을 경험하고, 내적 치유를 경험하며, 구체적인 삶의 변화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는 동시에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부분이 깊어지게 되었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신학 부분도 쉽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변화가 없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내적 변화에 따른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또한 훈련 이후에는 남은 삶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찾게 되고, 주변에까지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간증1의 경우에는 평신도 중심의 목회구조를 회사에까지 적용하여 사회에서도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업무 분위기가 수평적, 자율적 분위기로 전환되는 열매를 얻기도 하였다. 간증2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정년퇴임을 전후하여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찾고 싶은 과정에서 이 훈련이 얼마나 유효했는지를 보여준다. 간증3의 경우에는 내적 방황과 영적 갈급함의 상태를 치유 받고 평안을 얻게 되는 열매를 보여준다. 간증4의 경우에는 평신도목회연구원의 강의 내용들은 일회적으로만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반복적으로 계속 들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보여준다. 삶의 형편이 어떠한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든지 평신도목회연구원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음도 보여주었다. 간증5의 경우에는 영적 변화가 성격을 포함한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짐을 경험한 것과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임원으로 섬기면서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김상복 목사의 강의 준비 과정을 보여준다. 간증6의 경우에

는 미국에서부터 김상복 목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던 수강생이 국내에서도 지방의 먼 거리를 마다하고, 출석으로, 통신으로 적극 참여하였던 내용을 보여준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평신도목회연구원 과정은 신앙의 연륜에 관계없이 누구라도 성경과 신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마음의 공감으로부터 내면의 치유와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적용성이 있으며, 일회적인 강의가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 수강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된다.

## 8. 발전적 제안

평신도목회연구원에 대한 간증들을 통하여 좋은 영향력이 컸음을 알 수 있지만 동시에 몇 가지 아쉬움과 발전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가. 제자훈련과의 연결성

김상복 목사는 평신도목회운동은 제자화를 넘어서는 평신도 목회자화임을 강조하였고,<sup>234)</sup> 제자훈련이 자칫 훈련자의 제자로 남을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제자훈련을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제자훈련과 평신도목회연구원은 함께 운영되는 것이 더욱 좋았다고 연구자는 판단한다. 그리고 김상복 목사는 교수활동과 목회활동을 함께 하였기에 시간적인 여유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김상복 목사는 평신도목회연구원외에 평신도목회훈련원을 운영하면서 평신도 목회 돌봄사역을 훈련하고, 목회에 적용하였지만, 제자훈련과는 다른 것이었다.<sup>235)</sup>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도로서, 제자로서의 영적 체질을 더 준비한 후에 평신도목회연구원이 적용되었으면, 더욱 효과가 컸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제자훈련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숙의 과정은 필요하기에 평신도목회연구원이 적절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김상복 목사의 영성과 섬김의 목회 정신이 평신도목회연구원 강의와 설교를 통해서 수강

234) 김상복, 영혼의 울림, 224.

235) 김종태, “평신도 목회자의 세움과 돌봄 사역에 관한 시스템적 접근의 연구: 할렐루야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64.



생들에게 잘 전달되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후에 평신도목회연구원이 적용되는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겸하여 실시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한다.

#### 나. 교육 내용의 연속적 활용

평신도목회연구원이 종료된 후에 김상복 목사는 지난 20년을 회고하며 강의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성경 중에 몇 권을 하지 못했다고 했다. 예를 들어서 소선지서 개론은 강의했지만, 소선지서 각 권을 상세히 강의하고 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김상복 목사는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겸임교수 사역 관계로 1996년 2학기 강의를 하지 않은 것 외에는 모든 학기를 감당했다. 김상복 목사의 헛불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 세계복음주의연합회 회장 등의 사역을 고려할 때 그의 대단한 열정이 아니었으면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강의였다. 그래서 2010년 1학기를 마지막으로 평신도목회연구원 강의를 종료한 것이 더욱 아쉽다. 종료한 이유 중에는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직을 은퇴하면서 후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은퇴한 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후임자의 사역에 개입해서는 안 되며, 전임자의 사역이 아무리 좋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후임자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했다. 그러나 평신도목회연구원이 처음부터 할렐루야교회만을 위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담임목사 은퇴 후에 새로운 형태의 전환이 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고 본 연구자는 판단하면서, 이후에라도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보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 평신도목회연구원 활용 매뉴얼과 네트워크화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생각할 때에 그 내용을 다른 교회에서 사용하거나 개인이 활용할 때에 그 대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과목부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 44과목에 대한 과목 설명서는 준비하였지만,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매뉴얼이 있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것은 향후 미래의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김상복 목사는 강의가 진행되는 중에 이 내용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별로 평신도목회연구원 지부를 구성하려는 목회자들이 있었음을 밝힌 적이 있다.<sup>236)</sup> 만약 그것이 가능했다면 훨씬 더 폭 넓게 활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평신도목회연구원의 내용을 활용하는 교회와 사용자들이 지역별로 또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네트워크화 될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까지 5장의 내용을 통하여 할렐루야교회의 평신도 교육을 위한 제반 과정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평신도목회연구원의 사역과 특성을 강조하였다. 할렐루야교회는 평신도목회의 구조 속에서 평신도들을 균형 있게 양육하기 위한 다양한 과정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김상복 목사의 20년간의 할렐루야교회 2기 사역은 평신도목회가 할렐루야교회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체로 영향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였다. 그리고 담임목사의 은퇴 후에도 평신도목회를 향한 그의 비전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 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에 전달될 것이다. 특히 평신도목회 연구원은 과거의 사역을 재정비하고, 미래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평신도목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교회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김승욱 목사의 3기 사역은 기존의 평신도목회의 철학 위에 제자 훈련을 가미하고, 통일한국원코리아를 위한 연합의 도구로서의 비전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평신도를 건강하게 교육시키고, 동역자화, 목회자화 한 결과인 것이다.

---

236) 김상복, *영혼의 울림*, 222.

## 제 6 장

### 결 론

이제까지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경에 입각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연구하였다.

1장에서는 서론으로서 연구 동기와 목적, 범위를 설정하면서 현재 한국 교회가 내외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교회의 건강성을 잃었기 때문인데, 그 건강성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며, 그 초점은 평신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회복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2장에서는 평신도신학의 내용을 다루었다. 성경에 나타난 평신도의 의미는 목회자와 구별된 하위의 개념이 아니며,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책임과 역할을 갖고 있다. 또한 평신도는 만인제사장직을 소유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예외일 수 없다. 평신도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잘 계발해야 하며, 이 은사는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셨으며, 목회자와 평신도는 동역자의 의식을 갖고, 역할에 있어서 목회자는 평신도를 구비시키는 사역을, 평신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구체적인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3장에서는 21세기의 특징과 이에 대한 교회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1세기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대이다. 그것은 이전까지의 세계관과는 너무나 다른 급

격한 변화의 시대인데, 이전의 시대가 이성과 합리성이 중시되는 시대였다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모든 절대적, 객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상대화시켰으며, 혼돈, 불확실성, 개방성, 다중성, 변화를 열망하는 시대이다.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을, 객관적이기 보다는 주관적인 것을,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실의 실존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데, 질서를 부정하면서도 오히려 초월을 추구하는 새로운 영성의 시대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개인주의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며 다양한 미디어 문화에 민감한 시대이다. 이와 함께 미래 시대는 초고령화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 통일의 시대가 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목회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려면 교회의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기존의 수직적, 중앙집권적, 성장 지향적, 개인 목회적, 목회자 중심의 구조에서 수평적, 지방분권적, 성숙 지향적, 팀 목회적, 평신도 중심의 구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평신도를 더 이상 교회의 울타리 안에 가두어서는 안 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신도는 목회자의 종속적 존재가 아니며, 오히려 평신도들이 교회 내에서도 성도 상호간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여 영향력을 미치고 돌보는 공동체 구조가 되고, 사회에서도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교회는 기존의 메가교회 구조가 아니라, 메타교회 구조가 되어야 한다. 즉 대형교회를 추구하던 것에서 평신도들이 소그룹을 중심으로 은사를 발휘하고, 상호간에 유기적 공동체성을 나타내며, 전체 교회로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교회구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4장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 앞에서 그 구조가 담아내야 할 요소들을 연구하였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셨으며, 그의 역사 또한 공동체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도 공동체적이었고, 신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도 공동체적이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도 가족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으로 세우셨고, 그 이후의 모든 공동체도 확대된 가족공동체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유교식 폐쇄적 가족주의 문화로 인해 개교회주의, 분파주의, 권위주의, 성장주의, 파벌주의 등의 문제를 갖고 있었고, 전통무속신앙의 영향도 받아 현세적, 물질적 성공주의의 폐해를 안고 있었다. 이제는 성경적 개방형 가족공동체가 되어서 평등성, 역동성, 개방성, 창의성을 나타내야 하며, 미래 교회의 구조는 가족공동체 목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가족공동체 목회를 구현하려면 평신도들을 철저히 양육, 훈련시켜야 하는데, 그 훈련은 종합적, 전인적 성장이 되어야 하고, 특히 제자훈련을 통한 삶의 변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그룹의 특성을 잘 유지해야 한다. 제자훈련은 예수님께서 직접 실행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며, 이 시대에 가장 적절한 양육 과정이다. 제자훈련은 단순한 성경공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특수한 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교회가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제자훈련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는 훈련이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루는 형태는 소그룹이 되어야 하는데, 소그룹 안에서는 성도들이 상호간에 삶을 나누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유기적 관계성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그룹은 전체 교회와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야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5장에서는 그동안의 이론적 바탕위에서 할렐루야교회라고 하는 현장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서 평신도 양육을 위해 필요한 모습들을 연구하였다. 할렐루야교회는 평신도목회를 지향하는 교회로서, 대형교회가 할 수 있는 공간적, 인적요소들을 잘 활용하여, 다양한 평신도 양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상복 목사의 평신도목회는 평신도신학을 목회적으로 잘 적용한 실례를 보여주었고, 평신도들을 전인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양육하였다. 김승욱 목사는 이전의 목회적 장점을 유지하면서 제자훈련을 첨가하여 미래 시대를 대비하는 원코리아 연합의 도구로서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다. 특히 김상복 목사의 평신도목회연구원은 한 개 교회만의 사역이 아니었고,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한 평신도목회의 열매였다. 평신도목회연구원은 성경, 신학, 목회를 균형적으로 구비시킴으로써 개인의 성숙은 물론이요, 평신도들이 목양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사회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역할로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는 과정이다. 또한 20년간의 모든 훈련 내용이 미래 시대에도, 어느 교회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준비되어 있기에

한국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위한 평신도 양육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신도를 구비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세우는 것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종교개혁으로 되찾은 만인제사장직의 사역을 이제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성도를 구비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교육 기관은 지역 교회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회가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구비 전략이 필요하다. 목회자들의 특권의식과 독점사역을 과감히 탈피하고, 모든 평신도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사를 잘 계발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거룩한 부르심에 기꺼이 순응하도록 세워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성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까지 목회자를 돕는 소극적인 평신도의 개념을 넘어서서, 평신도 사역자들이 삶의 각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목회자가 평신도를 돕는 틀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벗어난 자리에서 갱신하는 길이며, 교회의 생명력을 되찾는 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할렐루야교회의 김상복 목사가 평신도 양육을 위해 진행하였던 평신도목회연구원의 모든 교육 내용은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진정한 영성의 성숙을 도모하고, 바른 신학의 틀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향한 목양 사역을 준비시키는 데에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양육교재를 통하여 준비된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를 따라 교회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는 귀한 역사가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본 연구를 마친다.

## 부록 1

## 평신도목회연구원 사역과 관련한 김상복 목사와의 서면 인터뷰

(일시 : 2015. 7. 8.)

김상복 목사님께! 평안하십니까?

평목원 과목 및 수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쭙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며 또 앞으로 평목의 사역과 관련하여 참고하고자 합니다.

1. 평목원 교과목으로 예정되었다가 실행하지 못한 과목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사, 세계종교연구, 세계선교세미나, 소그룹인도세미나, 기도훈련세미나,  
찬양세미나, 설교학, 심방론

어떠한 취지로 계획하신 것이었는지, 또 이 외에도 강의를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 되시는 것들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답: 가르치고 싶었던 과목들이었지만 21년의 시간 안에서 정규 과목으로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기도훈련세미나는 성경적 기도론에서 충분히 다루었다고 생각하고 성경대학에서  
내가 직접 하지는 못했으나 강의를 계속하게 했고 중보기도위원회 조직과 운영을 통  
해 노력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기타 51개의 글이 있습니다.

소그룹 세미나는 평신도 목회론에서 어느 정도 다루었습니다. 4W과 PACE 방법  
이 그것입니다. 사랑방장 훈련에서 다양하게 매년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심방론도 사랑방장 훈련에서 언급하고 가르쳤습니다.

찬양세미나는 성경적 예배학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세계선교세미나는 과목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설교를 통해 또 선교에 대한 많은  
글들, 몇 권의 책을 통해 제 관점을 표현했습니다. 북한선교를 위해서는 (1) 무너진  
제단을 세우라, (2) 북한교회재건백서, (3) 남북 평화통일 정책 등 세권에 많은 생각  
이 들어 있고, 세계선교에 대해서는 (1) 구소련선교핸드북, (2) 한국교회 선교의 비전

과 협력 (1992) 들 두 권의 책이 있고 제가 쓴 1600여개의 글 중에 630번이나 선교를 언급하며 곳곳에 써놓았습니다. 미국의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와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의 창립 멤버였고 공동회장직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이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사는 가끔 예화를 통해 전했지만 한 학기를 하기에는 실질적 도움은 아니라는 생각에 뒤로 미루었다가 기회를 갖지 못했지요.

세계종교연구는 비교종교를 하려했는데 기독교의 우수성을 말하려 했으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기독교 변증학의 철학적 변증학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필요한 만큼은 다루었습니다.

2. 1996년도에는 역사서 한 과목만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2학기에 강의를 못하신 건가요?

한 학기는 못했습니다. 제가 석달 동안 시카고의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 겸임교수(Adjunct Professor)로 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 요한계시록을 두 번 하셨습니다. 그 때마다 첫 과목으로 요한계시록을 하신 이유와 두 번째 강의를 하신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답: 기독교인에게는 종말의식이 있어야 시간을 아끼고 매일 신실하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평복원을 시작하던 1990년 가을에는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상당한 위기를 의식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시대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의식을 일으키기 위해 요한계시록으로 출발했는데 그 때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다른 성경공부처럼 많아야 200-300명이 참석할 것을 기대했으나 1500명이 넘게 참석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여력이 20년을 밀고 갔습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 것도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제가 20년 전에 강의를 했을 때 한 두 군데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그리고 동일한 이유로 다시 했습니다.



4. 가정생활과 관련된 과목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그만큼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나름대로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아마 세 번 다른 분야의 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 한 것입니다. 저는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가정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5. 예수의 신학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는데, 혹시 다 못 다루셨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답: 거의 다 했습니다. 약간 더 있지만 역시 시간의 제약 때문에 남은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예수님의 신앙과 가르침을 가장 잘 알고 따라야 합니다. 그만 하면 저로서는 만족입니다. 사실 예수의 신학을 우리처럼 다룬 책이 없습니다.

6.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에는 평목원 같은 강의를 안 하셨나요?

답: 네,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두 시간 동안 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자들 양성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에는 오후 4시 반까지 항상 신학대학에서 5-6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가르치며 일을 했기 때문에 낮에는 시간을 낼 수 없었고 주말에는 전국에 전도대회, 부흥회, 수련회 등을 인도하러 나갔습니다.

7. 평목 설문지에 보면 수강생들의 반응 중 새신자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혹시 강의를 하실 때에 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의도를 하신 것이신지요?

답: 저는 언제나 새 신자나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믿게 되도록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새신자들의 신앙은 굳어졌습니다.

8. 최근 CTS TV 7000미러클 방송이나 기타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교회와 선교사, 성도들을 접촉하실 텐데, 이러한 많은 곳들에 평목원 자료를 보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시지 않으시는지요?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많은 자료를 언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진리를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접하면 많은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특히 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은 학교 공부에 시간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시작할 때는 이 자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9. 20년간 평목원 강의를 하신 후에 평목원 강의가 처음 의도하신 대로 목적을 잘 이루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그러시다면 특히 어떤 면에서, 어떤 경우에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가장 유익했던 것은 저 자신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와 신학교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자세하게 연구하고 써보고 강의하고 그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성도들의 반응에 저 자신이 놀랐고 진리의 힘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신앙이 제대로 정돈되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힘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당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금도 그 자료를 접하는 분들은 같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 평신도목회연구원 종강 안내 방송 녹취록

이하의 내용은 김상복 목사의 할렐루야교회 담임목사 은퇴를 전후하여 평신도 목회연구원(평목원)의 20년간의 활동과 미래의 모습을 담아 2010년 6월 8일 주일에 배시간에 전교인에게 방영했던 내용을 녹취한 것입니다.

## &lt;김상복 목사의 말씀&gt;

## (작은 시작)

평신도목회연구원은 1991년 3월 요한계시록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평신도목회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낯선 때였죠. 처음에는 통신수강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평목원 첫 강의 때에는 몇 명이 올지 몰랐어요. 그저 뭐 한 2~3백 명 올까 생각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500여명이 등록을 해서 교재와 간식 부족으로 봉사위원들이 아주 찢찢매기도 했습니다. 평목원은 대치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사 갔고, 또 양재동에서 분당 성전으로 옮겨왔는데, 오늘까지도 놀랍게도 평목원의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고, 꾸준히 지속, 발전되어 왔습니다.

## (그리고 성장)

평목원 강의는 20년 동안 세 분야를 공부했는데, 성경과 신학과 목회입니다. 그 과목은 44과목 정도 되었어요. 1993년 12월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는데, 3년 동안 공부해서 30학점을 했죠. 323명이 처음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100여 교회에서 48,000여명의 성도들이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졸업은 17회까지 졸업생이 나왔는데, 전체를 보니까 한 3,200여명 정도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수강생들 가운데에는 지난 20년간 공부를 계속 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심지어 150 내지 180 학점을 수료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놀라운 얘기죠.

평목원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평신도 목회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동안 평목원을 들으신 분들을 다 초청하는 홈커밍데이도 있었고, 또 평신도 목회 컨퍼런스라고 하는 것을 열어서 2000년 6월에 있었습니다. 그때 외부의 강사들도 많이 오셨죠. 한국 교회의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평신도 목회 사역을 한국교회와 공유하기 위한 효율적인 평신도 목회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큰 성과)

20년 동안 강의했던 44과목의 교재를 이제는 전부 다 CD 1장에다 수록을 했습니다. 한 장 안에 20년 동안의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목회자와 선교사들, 신학생들, 평신도들까지 한 장을 가지고 20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니까 아주 평이 좋습니다. 또한 평목원 수강생들의 간증을 모아서 9권의 간증집을 발간했었죠. 그동안 TAPE로 제작했던 모든 과목을 MP3 CD로 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인 신학 공부-성경과 신학과 목회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 MP3CD가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구할 수 있어요. 20년 동안의 평목원 강의가 우리 한국 교회에 귀한 자료로 사용되기를 원하구요, 평신도 목회 사역이 한국교회와 세계에 뿌리 내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섬기신 분들 또 저 멀리서도 여기까지 오셔서 공부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 낭독>

이제 김상복 목사님의 원로목사 추대로 인해 20년간 계속되어 온 평목원 강의를 끝내게 되어 너무나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고, 성장을 했습니다.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하나님과 이웃에게 섬김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평목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부록3

## 할렐루야교회 연도별 표어

연도	표어	연도	표어
1981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자.	2001년	내 양을 돌보라.
1982년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	2002년	영혼을 구하고 사랑으로 돌보 자.
1983년	배워서 일하고 자라는 교회	2003년	기도를 생활화하자.
1984년	모범적인 교회	2004년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자.
1985년	이 복음을 위하여	2005년	전도의 해 - 나도 한 사람!
1986년	그리스도를 본받아	2006년	올라가서 이 산지를 취하자.
1987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2007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1988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2008년	일어나 섬기자.
1989년	일어나 빛을 발하라.	2009년	미래의 도약을 준비하자.
1990년	새 역사를 창조하자.	2010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1991년	신앙의 생활화	2011년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1992년	평신도목회의 해	2012년	세상을 이기는 자
1993년	하나 되게 하소서.	2013년	주님과 함께 전진하게 하소 서.
1994년	몸으로 섬기자.	2014년	성숙한 믿음을 향하여
1995년	말없이 힘껏 섬기자.	2015년	성령의 기름 부으사 빛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1996년	함께 건너가서 정복하자.	2016년	복음, 치유, 회복, 자유

1997년	여리고를 점령하자.	2017년	주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1998년	네 지경을 넓히라.		
1999년	말씀과 기도로 전진하자.		
2000년	사랑으로 섬기자.		

## 참고 문헌

### 1. 국내서적

- 권문상. *성경적 공동체*. 서울: 킹덤북스, 2013.
- \_\_\_\_\_. “한국교회 연합과 ‘가족’ 신학.” *성경과 신학* 제57권 (2011): 163-196.
- 김명호 외. *교회와 제자훈련*.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3.
- 김상복. *목회자의 리더십*.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7.
- \_\_\_\_\_. *교회를 알면 신앙생활이 즐겁다*. 서울: 도서출판 MB, 2003.
- \_\_\_\_\_. *바라며 기다리며*. 성남: 평신도목회연구원, 2009.
- \_\_\_\_\_. *영혼의 울림*. 성남: 한국오늘의양식사, 2009.
- \_\_\_\_\_. *기적의 연속*. 성남: 할렐루야교회 신문사, 2009.
- \_\_\_\_\_. “평신도의 은사 계발로 목회의 동역자를 만들라.” *월간목회* 369 (2007년 5월): 68-73.
- 김종태. “평신도 목회자의 세움과 돌봄 사역에 관한 시스템적 연구: 할렐루야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명성훈. *교회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1.
- \_\_\_\_\_. *소그룹 성장 마인드*. 서울: 교회성장 연구소, 2002.
- 미래목회포럼. *이슈&미래*.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5.
- 박영숙, Glenn Jerome. *유엔미래보고서 2050*. 서울: 교보문고, 2016.
- 박찬식, 이우성. *한국교회여, 미래사회를 대비하라*. 서울: 기독교산업사회연구소, 2006.
- 박창건. *에베소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 송인규. “평신도 지도자는 하나님의 목회 동역자.” *목회와 신학* 181 (2004년 7월): 88-93.
- 신광은. *떼거처치를 넘어서*. 서울: 포이에마, 2015.
- 신표근. “목회자의 리더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할렐루야교회를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 심상범 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서울: CLC, 2011.
- 양승훈. *기독교 세계관 렌즈로 세상읽기*. 서울: 도서출판 바울, 2003.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0.
- 이동원. “포스트모던 시대의 전도 패러다임.” *목회와 신학* 176 (2004년 2월): 50-57.
- 이문식. “가정교회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목회와 신학* 221 (2007년 11월): 62-73.
- 이상화. *교회 성숙 분석 리포트*.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2.
- \_\_\_\_\_.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매력포인트 24*.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이석철. *기독교 성인 사역론*.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2008.
-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_\_\_\_\_. *미래목회 대 예언*. 서울: 규장, 1998.
- 이승구.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사회와 교회*. 서울: SFC, 2005.
- 이학준. *한국교회, 패러다임을 바꿔야 산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1.
- 정인찬. “평신도 신학훈련으로 복음의 새 시대를 열라.” *월간목회* 369 (2007년 5월): 88-93.
-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0.
- \_\_\_\_\_. *건강한 소그룹 목회 컨설팅*.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최영기. *가장 오래된 새 교회*. 서울: 두란노, 2015.
- \_\_\_\_\_. *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서울: 나침반 1997.
- \_\_\_\_\_.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 서울: 두란노, 1999.
- 최윤식.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_\_\_\_\_. *한국교회 미래지도 2*.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3.
-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7.
- 두란노 *HOW 주석 43권 에베소서 골로새서*.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3.
-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서울: 바이블넷, 2006.
- 옥스퍼드 *원어성경대전 베드로전서*. 서울: 바이블넷, 2006.
- 할렐루야교회 2009 요람*. 성남: 할렐루야교회, 2009.



홍성철,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와 가정교회.” *목회와 신학* 221 (2007년 11월): 79-85.

## 2. 번역서적

Anderson, Leith. *21세기를 위한 교회 (A Church for the 21st century)*. 황성철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1992.

Andrews, Alan. *제자도와 영성 형성 (The Kingdom Life)*. 홍병룡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Banks, Robert & Julia. *교회, 또 하나의 가족 (The Church Comes Home)*. 장동수 역. 서울: IVP, 1999.

Beckham, William A. *제2의 종교개혁 (The Second Reformation)*. 터치 코리아 사역팀 역. 고양시: 도서출판 NCD, 2000.

Clinton, J. Robert. *영적 지도자 만들기 (The Making of a Leader)*. 이순정 역. 서울: 베다니출판사, 1993.

Cole, Neil. *교회 3.0 (Church 3.0)*. 안정임 역. 서울: 스텝스톤, 2012.

Colson, Howard P. and Rigdon Raymond M. *교회 커리큘럼의 이해 (Understanding Your Church's Curriculum)*. 김희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002.

Donahue, Bill and Robinson, Russ. *소그룹 중심의 교회를 세우라 (Building a Church of Small Groups)*. 오태균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8.

\_\_\_\_\_. *소그룹 사역을 망치는 7가지 실수 (The Seven Deadly Sins of Small Group Ministry)*. 김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6.

Frazer, Randy. *21세기 교회 연구: 공동체 (The Connecting Church: Beyond Small Groups to Authentic Community)*. 차성구 역. 서울: 좋은씨앗, 2003.

Fretheim, Terence E. *출애굽기 (Exodus)*. 강성열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Getz, Gene A.. *당신의 교회는 건강합니까? (The Walk)*. 양승헌 역. 서울: 도서출판

- 디모데. 1998.
- George, Carl F. *성장하는 미래교회 메타교회 (Prepare Your Church for the Future)*. 김원주 역. 서울: 요단출판사, 2009.
- Gibbs, Eddie. *Next Church*. 임신희 역.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0.
- Henrichsen, W. A. and Garrison, W. N. *평신도 사역자를 계발하라 (Layman, Look Up! God Has a Place for You)*. 유재성 역. 서울: 나침반, 1988.
- Hull, Bill. *온전한 제자도 (The Complete Book of Discipleship)*. 박규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2.
- Icenogle, Gareth W.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가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안영권, 김선일 공역. 서울: 도서출판 옥토, 1997.
- Simson, Wolfgang. *가정교회 (The House Church Book)*. 황진기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13.
- Kraemer, Hendrik. *평신도 신학 (Theology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아바서원, 2014.
- Labberton, Mark. *제일소명 (The Crisis and Promise of Following Jesus Today)*. 하보영 역. 서울: IVP, 2014.
- Lincoln, Andrew T. *에베소서, 골로새서 (Ephesians, Colossians)*. 배용덕 역. WBC 42.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3.
- MacArthur, John F., JR. *은사-예언자인가, 광신자인가, 아니면 이단인가? (Charismatic Chaos)*. 서울: 생명의 샘, 1994.
- Maxwell, John C. *효과적인 평신도사역을 위한 30가지 양육전략 (Growing Your Church through Training and Motivation)*. 김창대 역. 서울: 기독교신문사, 2001.
- McLaren, Brian. *저 건너편의 교회 (The Church on the Other Side)*. 이순영 역. 서울: 낮은올타리, 2002.
- Nicholas, Ron 외. *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Good Things Come in Small Groups)*. 신재구 역. 서울: IVP, 1992.
- Ogden, Greg. *새로운 교회개혁 이야기 (The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 미션월드라이브러리, 1998.
- Pope, Randy. *랜드포프의 목회계획 (The Prevailing Church)*. 박주성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Schultz, Thom and Joani. *지루함을 깨뜨리는 가르침의 기술 (Why Nobody Learns Much of Anything at Church)*. 마영례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테, 2000.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Paradigm Shift in the Church)*. 정진우 외 역. 경기도: 도서출판 NCD, 1999.
- Snyder, Howard. *그리스도의 공동체 (The Community of the King)*. 김영국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7.
- \_\_\_\_\_. *교회 DNA (Decoding the Church)*. 최형근 역. 서울: IVP, 2007.
- \_\_\_\_\_.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The Problem of Wine Skins)*. 이강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0.
- Stevens, R. Paul.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Liberating the Laity)*. 김성오 역. 서울: IVP, 1992.
- \_\_\_\_\_. *21세기를 위한 평신도 신학 (The Abolition of the Laity)*.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1.
- \_\_\_\_\_.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The Equipper's Guide to Every-Member Ministry)*. 이철민 역. 서울: IVP, 1992.
- \_\_\_\_\_. *하나님의 사업을 꿈꾸는 CEO (Doing God's Business)*. 홍병룡 역. 서울: IVP, 2009.
- Stevens, R. Paul and Phil Collins. *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The Equipping Pastor)*. 최기숙 역. 서울: 미션월드 라이브러리, 2000.
- Stott, John R. W. *한 백성 (One People)*. 정지영 역. 서울: 아바서원, 2012.
- \_\_\_\_\_. *제자도 (The Radical Disciple)*. 김명희 역. 서울: IVP, 2013.
- \_\_\_\_\_. *그리스도가 보는 교회 (What Christ Thinks of the Church)*. 생명의말씀사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 Sweet, Leonard.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교회 (Postmodern Pilgrims)*. 김영례 역. 서울: 좋은씨앗, 2000.

\_\_\_\_\_. *모던시대의 교회는 가라 (Summoned to Lead)*.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5.

Wagner, E. Glenn.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The Church You've Always Wanted)*. 조계광 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6.

Warren, Rick.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고성삼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7.

\_\_\_\_\_. *새들백교회 이야기 (The Purpose Driven Church)*. 김현희, 박경범 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5.

### 3. 외국서적

Crabb, Larry. *Real Church*. Nashville: Thomas Nelson, 2009.

MacArthur, John F., Jr. *The Master's Plan for the Church*. Chicago: Moody, 2008.

Slocum, Robert E. *Maximize Your Ministry*. Dallas: The Entrepreneurial Church Series, 1993.

Steinbron, Melvin J. *Can the Pastor Do It Alone?* Ventura: Regal,

\_\_\_\_\_. *The Lay Driven Church*. Ventura: Regal, 1997.

Vita of  
Hyeon Kyu Shin

Present Position

Associate Pastor, Hallelujah Community Church, Seongnam City,  
Korea

Personal Data

Birthdate : August 19, 1961  
Marital Status : Married to Min Jeong Kim  
with 2 daughters, Hye Jin and Hye Won  
Home Address : 415-602 Hyundae Apt. Seohyundong Bundanggu,  
Seongnam City, Korea  
Denomination :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Hapdong)  
Ordained : October 14, 1991

Education

B. A. :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1985  
M. Div. :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88  
D. Min. :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7

Personal Experience

2001 to Present Hallelujah Community Church, Seongnam City,  
Associate Pastor  
1993 to 2000 Yeonhee Church, Seoul, Associate Pastor  
1991 to 1993 Shinil Church, Seoul, Associate Pastor  
1986 to 1987 Sungsuk Church, Seoul, Evangelist